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博士學位論文

# 가정의 인터넷문화 형성 :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을 중심으로



濟州大學校 大學院

가정관리학과

진 연 주

2007年 8月

# 가정의 인터넷문화 형성 :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을 중심으로

指導教授 金 惠 娟

秦 連 珠

이 論文을 이학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秦連珠의 이학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委 員 \_\_\_\_\_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7年 8月

Internet Culture at Home :  
Focused on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about Adolescent Internet Usage

Jin, Yean-ju

(Supervised by Professor Kim, Hye-yeon)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science.

August 2007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 목 차

국문초록 .....	v
I. 서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문제 .....	7
3. 용어의 정의 .....	9
1)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	9
2)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	9
II. 이론적 배경 .....	10
1. 현대사회와 인터넷문화 .....	10
1) 인터넷문화의 정의 .....	10
2) 인터넷문화의 특성 .....	16
2. 인터넷문화와 가정 .....	20
3.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 .....	27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 .....	29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 .....	40
4. 관련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 .....	45
1) 개인관련 변인 .....	45
2) 가정관련 변인 .....	46
3)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	48
4)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 .....	50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54
1. 연구모델 .....	54
2. 척도의 구성 .....	56
1) 종속변인 .....	56
2) 독립변인 .....	57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	60

4. 분석방법 .....	61
IV. 연구결과 및 해석 .....	62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62
1) 개인관련 특성 .....	62
2) 인터넷관련 특성 .....	65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	68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 .....	69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 .....	77
3)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	82
4)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	90
3.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	98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실태 .....	98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	100
3)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분석 .....	107
V. 결론 및 제언 .....	112
참고문헌 .....	122
Abstract .....	135
부록 .....	138

## 〈표 목 차〉

〈표1〉정보문화운동의 개념적 범주 .....	14
〈표2〉인터넷문화의 특성 .....	20
〈표3〉사이버공간의 활동량 증가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	22
〈표4〉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변인 .....	56
〈표5〉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 .....	58
〈표6〉변인의 정의 및 측정방법 .....	59
〈표7〉자녀집단의 개인관련 특성 .....	63
〈표8〉부모집단의 개인관련 특성 .....	65
〈표9〉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관련 특성 .....	68
〈표10〉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 실태 .....	70
〈표11〉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감독 정도 .....	72
〈표12〉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감독 정도 .....	74
〈표13〉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감독 정도 .....	76
〈표14〉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 .....	78
〈표15〉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태도 유형별 차이 .....	79
〈표16〉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태도 유형별 차이 .....	81
〈표17〉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태도 유형별 차이 .....	82
〈표18〉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실태 .....	84
〈표19〉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	86
〈표20〉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	87
〈표21〉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	89
〈표22〉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실태 .....	90
〈표23〉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대한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 차이 .....	93



<표24>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대한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 차이	95
<표25>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대한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 차이	97
<표26>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실태	99
<표27>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101
<표28>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103
<표29>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105
<표30>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106
<표31>자녀집단이 인식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8
<표32>부모집단이 인식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10

### <그림 목 차>

<그림1>사회구성원의 영향력 변화	26
<그림2>연구모형	55



<국문초록>

가정의 인터넷문화 형성 :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을 중심으로

진 연 주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 혜 연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이용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비행과 인터넷 범죄로 심화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세대간 격차로 인해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개인 및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가정의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녀집단은 제주도 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모집단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은 부모의 감독 정도, 부모의 태도 유형,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로 구성하였고 관련 변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 analysis,  $\chi^2$ -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갈등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이항변인이었으므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자녀집단에 비해 부모집단이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감독정도는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은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 수준으로 부모의 감독정도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은 자녀집단의 경우 민주형, 권위형, 방임형 순으로 부모집단의 경우 권위형, 민주형, 방임형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부모집단의 경우 2/3가 부모 자신의 태도 유형을 권위형으로 인식하고 있어 부모-자녀간 인식의 차가 크게 나타났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변화에 대해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은 독서와 취미활동 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오락과 게임 시간이 가장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는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하는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는 자녀집단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대의 변화 요구도, 부모집단의 경우 오락위주의 인터넷 이용 사이트에 대한 변화 요구도로 나타나 부모-자녀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의 인식 차는 자녀집단은 성별과 인터넷 이용규칙, 부모집단은 본인의 교육수준과 인터넷 이용규칙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 개인적 특성과 인터넷이용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은 자녀집단의 경우 본인의 연령, 아버지 교육수준과 직업, 인터넷 이용 규칙 등 개인적 특성 뿐만 아니라 부모특성과 관련된 가족관련 특성 및 인터넷이용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부모집단은 본인의 연령과 교육수준, 컴퓨터 이용능력, 인터넷 이용 규칙 등 개인적 특성과 인터넷이용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변화는 자녀집단의 경우 본인 연령, 개인 용돈과 인터넷 이용시간, 부모집단의 경우 본인 연령과 인터넷 이용시간 등 개인적 특성과 인터넷이용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에 있어서 자녀집단은 성별, 연령, 개인 용돈과 인터넷 이용 규칙, 부모집단은 본인 연령, 본인의 컴퓨터 이용 능력 등 개인적 특성과 인터넷이용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적 특성과 인터넷이용 특성은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를 매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이 자녀집단보다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일 수, 인터넷 이용 규칙, 부모감독과 생활변화, 부모집단의 경우 연령, 본인의 컴퓨터 이용 능력, 자녀 인터넷 이용시 걱정 정도, 부모 감독, 생활변화와 인터넷에 이용 변화 요구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는 인터넷 이용 특성 및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녀집단이 인식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아버지 직업, 주택유형,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일 수, 인터넷 이용 규칙, 부모의 감독 정도, 부모의 태도 유형,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가, 부모집단은 연령, 주택유형, 컴퓨터 설치 장소,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걱정 정도, 부모의 감독 정도, 부모의 태도 유형,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상과 같이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특징이 각 영역별로 달랐지만, 한편으로는 공통적으로 인터넷이용관련 특성 및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이 중요했던 결과를 기초로 자녀집단의 인터넷 윤리 의식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부모집단의 인터넷 이용 증진 및 인터넷의 바른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오늘날 사회 흐름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은 새로운 정보매체로서 고성능 PC와 초고속 정보망으로 가정과 학교, 회사에 급속히 보급되어 사회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인터넷의 활용분야는 우리의 환경, 생활, 문화, 의식으로 점차 영향을 넓혀가면서 일상화 되었다(John & Katelyn, 2004; King & Kraemer, 1995).

일상생활의 한 부분인 인터넷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현대인의 인터넷 이용을 살펴보면, 월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이용자수는 1998년 3,103천명에서 2006년 33,580천명으로 10배 정도 늘어났으며 전체 인터넷이용률은 73.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를 살펴보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이상의 청소년들은 3,301천명으로 나타났으며, 학력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생의 97.9%, 중학생의 99.4%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즉, 초·중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부모집단의 인터넷 이용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40대 부모들의 인터넷 이용률은 43.8%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였고 50대는 8.4%로 10%를 채 넘지 못하였으나(통계청, 2002), 2006년의 경우 40대는 71.0%, 50대는 3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40대 이상 부모의 인터넷 이용률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윤영지(2000)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 모두 인터넷을 이용한다 27.4%, 아버지만 이용한다 27.4%, 어머니만 이용한다 15.0%, 두분 모두 이용하지 못한다 30.3%로 나타났으며, 조춘범(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인터넷 이용여부에 대해 부모 모두 인터넷을 이용한다 27.4%, 아버지만 이용한다 25.3%, 어머니만 이용 8.1%, 두분 모두 이용하지 못한다 39.2%로 나타났다. 말하자면 부모집단의 인터넷 이용률이 증가

하고는 있으나 자녀집단의 인터넷 이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부모-자녀간 인터넷 이용률의 차가 큼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00년 정보통신부<sup>1)</sup>의 주최로 ‘주부 100만인 인터넷 교실’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주로 감독하거나 통제하기 쉬운 어머니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제주지역의 인터넷 이용을 살펴보면 2006년 인터넷 이용률은 70.1%이며, 이용자수는 35만 명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또한 저소득층 PC보급률은 73.3%로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인터넷 이용률은 5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살펴보면 50세 이상 장·노년층 인터넷 이용률은 울산 39.6%, 서울 28.8%에 크게 못 미치는 1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한라일보, 2006).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 247개 시군구의 정보화 지수를 산출한 결과 제주시만 전국 21위로 상위수준이었으며 다른 시·군의 경우 평균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제주의 소리, 2005). 즉, 제주지역의 전체 인터넷 이용률은 높지만 장·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이 매우 낮게 나타난 결과에서 인터넷 이용에 있어 연령간의 차가 크며, 지역간 정보화 수준에서도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녀집단과 부모집단간에는 인터넷 이용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야에서도 차이가 있다. 자녀집단은 어려서부터 가정에서 각종 디지털기기과 제품들을 이용하였고, 인터넷문화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친숙한 디지털 키드<sup>2)</sup> 세대이다. 이 디지털 키드세대인 자녀집단은 부모집단과는 달리 인터넷이 이미 일상의 한 부분이며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는 10대의 56%는 한 개 이상의 e-mail 주소를 가지고 있고 약 20%는 자신의 web-page를 가지고 있으며(허형열, 2002; Lenhart, 2001), 초등학교 학생의 절반 가량은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박소라, 윤성옥, 양지운,

1) 정보통신부는 2000년 3월부터 주부 100만명을 대상으로 인터넷교육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교육 희망자가 폭 증함에 따라 교육 대상자를 200만명으로 늘리고 교육기관도 769개에서 1057개로 확대하여 실시하였다.

2) 디지털 키드란 문자 습득이 안된 상태에서부터 컴퓨터에 노출된 세대로 정의한다. 디지털 키드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끌어안고 성장하는 세대로 다른 어떤 세대보다 디지털 매체에 둘러싸여 성장하는 세대로 자연스럽게 디지털 문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디지털 문화를 창출할 세대로 기대되는 집단이며, 나중에 네트워크 세대로 편입된 N세대와도 구별된다(김유미, 2000; 동아일보, 2005).



2004). 즉, 자녀집단은 인터넷을 자기 자신을 표출하는 장으로서 이용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만나고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디지털 매체인 e-mail이나 메신저(instant message)를 이용하고 있다(Janis, Kimberly & David, 2002). 또한 자녀집단은 인터넷을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통로로 이용하여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자신들의 사이버공동체를 형성하기도 한다(정진태, 2003; Gross, 2004; Tapscott, 1998). 뿐만 아니라 자녀집단에게 있어서 인터넷은 여가생활의 일부이기도 하다. 음악파일이나 영화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즐기며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온라인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친구들과 과도 만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청소년 자녀집단에게 있어 인터넷은 교육의 수단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사이버 학원 수업, 인터넷 교육방송, 에듀넷 등의 교육사이트, 인터넷 신문활용교육(Newspaper in Education : NIE) 등을 통한 인터넷 교육은 보편화된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며 왕성한 호기심이 발동하는 청소년 자녀집단에게 있어서 이미 생활의 일부이자 문화로서 크게 자리하고 있으며 활용분야 또한 다양함을 알 수 있다(Suler, 1998).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모집단은 흑백 텔레비전과 라디오에서 출발하여 여러 미디어를 거쳐 인터넷을 접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많은 변화와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부모집단 중에는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취미생활이나 의사소통방식-을 가지고 인터넷을 이용(나미수, 2002)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인터넷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으며 자녀집단과 달리 인터넷을 한정된 분야에서만 이용하고 있다. 부모집단의 인터넷 이용은 회사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주로 이용하며 인터넷 बैं킹이나 주식, 인터넷 쇼핑을 일부 이용하기도 한다. 특히, 주부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 동기 자체가 자녀학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중요한 인터넷 이용 목적이 자녀교육으로 나타나(나미수, 2002)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는 데 활용하거나 자녀의 진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Katherine & Lee(2002) 또한 부모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큰 동기는 자녀를 위해서라고 했다. 즉, 부모집단은 인터넷을 자녀집단과 같이 오락적, 의사소통적 수단보다는 정보획득 수단으로 활용하여 정보지향적인 이용패턴을 보이고 있다. 많은 부모들은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이용에 있어서도 무

지하거나 기초적인 능력밖에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인터넷이 일상이 된 자녀집단과 인터넷이 삶의 수단인 부모집단은 인터넷 이용분야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정진태, 2003).

이러한 인터넷 이용분야의 차이는 부모집단으로 하여금 인터넷이 자녀집단의 정보 획득 및 과제 해결 등을 위해 필수적인 미디어라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자녀집단이 공부에 외면한 채 컴퓨터에만 몰두하거나 게임 등 오락적인 이용과 어쩔 수 없이 접하게 되는 유해사이트에 대해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게 한다. 이처럼 부모집단은 인터넷에 대해 이중적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결국 자녀집단과의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박소라 외, 2004).

또한 자녀집단은 높은 인터넷 이용률과 이용 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Forester & Morrison, 1995)과 부작용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사이버 범죄를 행하기도 한다. 우선 청소년 자녀집단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로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하게 되면서 몰입하여 이용하기 쉬우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가장 쉽게 생활시간의 무절제한 이용으로 수면시간 감소, 학습시간의 방해 등 생활의 리듬을 잃어 변화를 겪기도 하고 눈의 피로, 두통, 피로감, 시력저하 등의 신체적 변화를 겪기도 한다(나강환, 2004; 서순미, 2002; 이현아, 2004; Thomson, 1996). 뿐만 아니라 자녀집단의 인터넷 이용분야가 다양화됨에 따라 음란물 접촉, 게임중독, 자살사이트, 채팅사이트, 해킹, 사이버 스토킹, 인터넷 도박, 원조교제 등 여러 가지 문제 등 역기능의 경험을 넘어 사이버 비행 즉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조남근·양돈규, 2001). 실제 게임에 중독된 중학생이 친동생을 살해하기도 하였으며(동아일보, 2001, 3, 5), 고등학생이 9시간 동안 게임을 쉬지 않고 하다가 돌연사 했다(헤럴드 경제, 2005, 12, 20)는 등의 기사가 빈번히 보도되고 있다. 또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금지시켰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보고(강원일보, 2006, 1, 26)처럼 가정폭력의 문제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자녀집단의 생활변화 및 사이버 비행 증가는 부모집단으로 하여금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걱정하게 하고 감독 및 통제하게 하는 요인이 되며 부모-자녀간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제주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예로 들어보면, 인터넷 중독자는 4.2%에 불과하였으나 가끔 문제발생 이용자는 68.5%



로 나타나 앞으로 인터넷중독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문제로 나타났다(진연주·김혜연, 2003). 또한 2006 인터넷 중독실태조사에서 인터넷중독 고위험군은 1.7%로 전국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향후 인터넷 중독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잠재적 위험군은 8.4%로 전국 평균 7.5%를 웃돌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정보문화진흥원, 2006). 뿐만 아니라 2006년 탐라교육원이 배포한 교직원 연수 분임활동 자료집에 따르면 7월 도내 초등학교 100여명을 대상으로 게임 중독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독됐다’는 학생은 2%, ‘곧 그렇게 될 것 같다’는 9%에 불과했다. 그러나 교사와 학부모들은 다른 견해를 보였다. 교사 79명 중 43%가 인터넷 중독 어린이 지도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학부모 83명 중 24.1%는 컴퓨터를 못하게 할 때 자녀가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고 답했다(한라일보, 2007). 또한 인터넷 게임에 중독돼 생활해 오던 30대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미디어제주, 2006). 즉, 청소년들 스스로는 인터넷 이용에 따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미 인터넷 부작용이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많은 문제에 대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 스스로 네티켓을 준수하고자 하는 자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5)이 인터넷 범죄 사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소년 사범 7명 중 5명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범죄인지 몰랐다’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2명도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답해 범죄 인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부모집단이 인터넷 이용 교육 및 윤리교육을 해 주어야 하나 인터넷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으로 각종 규제와 감시를 통한 통제(김윤석, 2002)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청소년들의 거부로 실효성이 떨어지는게 사실이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유교적인 사회인 한국이 가장 탈규범적인 인터넷을 받아들여 어떻게 변해갈지 궁금하다면서 한국이 인터넷문화를 보여주는 실험장이 될 것이라고 한 신문기사(Time, 2000)의 지적처럼 이러한 현실들을 타파하기 위해 인터넷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인터넷문화의 형성과 정착이 가정, 학교, 사회가 유기적으로 상호관계를 맺고 협력하여야 하나 가장 중요한 곳은 가정이라 할 수 있다. 자녀집단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장소는 주로 가정이며(남화정, 2001; 통계청3, 2002), 거실이나 개인방

이 주 이용 장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부모집단이 자녀집단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역할자이며 자녀집단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문제를 가정에서부터 예방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집단은 정보통신기술에의 접근과 이용에서 배제되고 인터넷 기술이 자녀집단보다 낮은 인터넷문화의 주변인(윤옥경, 2000)이며 많은 부모들은 인터넷 지식의 무지<sup>4)</sup>로 인하여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을 적절히 교육시키거나 규제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김지형, 2002). 이러한 부모집단의 열악한 위치는 자녀집단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우려와 인터넷문화에 대한 걱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무조건 제재를 하거나 또는 오히려 방관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부모집단은 자녀집단에 비해 인터넷 이용에 있어 낮은 위치에 있으며 정보통신기술의 혜택을 받아온 자녀집단과의 문화격차와 부모-자녀간의 갈등의 증대를 경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즉, 가정이 자녀집단을 위한 인터넷문화 교육의 장소가 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녀집단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있어 부모-자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부모-자녀간의 실제적 갈등에 대한 영향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자녀집단의 건강하고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인터넷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여건과 조건을 개선해주고 인터넷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초기 선행연구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이용 실태를 조사(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한국정보문화센터, 1998;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b)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진행되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이용에 따른 인터넷 비행(윤영지, 2000; 조남근·양돈규, 2001) 및 범죄에 관한 연구들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인터넷 중독(김지형, 2002; 류진아, 2003; 안석, 2000; 이계원, 2001; 이지향, 2005; 이혜진, 2001; 조영란, 2003; 황수정, 2000), 인터넷 음란물(성운숙,

3) 인터넷 주 이용 장소는 가정으로(76.1%)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0-14세 89.0%, 15-19세 82.0%, 40-49세 78.3%, 50-59세 72.1%로 나타났다.

4) Lenhart(2001)의 연구에 의하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10대의 64%와 부모의 66%는 부모보다 자녀가 인터넷에 대하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00; 윤석용, 2000) 및 인터넷 게임(권재환, 2005; 김미영, 2004; 박미정, 2004; 한경아, 2002) 등 특정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

이러한 기초적인 실태조사 및 인터넷 비행관련 연구 이외에 인터넷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고선주, 2002; 남화정, 2001; 박부진·이해영, 2000; 심수민, 1999; 이영분, 2003; Young, 1999)들도 있기는 하나 실태조사 수준이며 가정의 한 특정한 측면과의 관계를 살펴보는데 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사회적 관계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실태와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비행 및 범죄 실태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자녀집단의 인터넷 이용은 인구사회학적 속성 외에도 부모집단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으로 나타나(Orleans & Laney, 2000) 부모집단과의 상호작용 및 영향요인에 대해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소년의 문제행동이 청소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가정 전체의 시각으로 볼 때,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집단과 자녀집단을 함께 고려하여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갈등을 살펴볼 때 부모집단과 자녀집단을 함께 고려하여 부모-자녀간 잠재적인 갈등요인 및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문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있어 부모-자녀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파악은 앞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문제행동을 줄이고 가정의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형성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제주도 지역의 청소년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자녀집단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잠재적 갈등요인 및 부모-자녀간의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과 실제

적 갈등정도를 파악하여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자녀집단과 부모집단간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고 갈등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가정에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집단의 무조건적인 제재와 통제가 아니라 합리적인 인터넷 지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부모-자녀 교육 및 상담 현장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가정의 인터넷문화 형성을 위한 정부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이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특징들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특징에 따라 부모의 감독 정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특징에 따라 부모의 태도유형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특징에 따라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특징에 따라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 정도 실태는 어떠한가?

넷째,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특징에 따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 정도에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다섯째,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특징들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용어의 정의

#### 1)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이란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함에 있어 부모와 자녀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들을 말한다. 그 구체적인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 부모의 감독정도
- 부모의 태도 유형
-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요구도

#### 2)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실제적 갈등정도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와 자녀가 실제로 인식하는 갈등의 유무를 말한다. 구체적인 하위영역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갈등
- 인터넷 이용사이트에 대한 갈등
- 가족원과의 갈등
- 자녀의 변화에 대한 갈등
- 인터넷 언어사용에 대한 갈등



## II. 이론적 배경

### 1. 현대사회와 인터넷문화

#### 1) 인터넷문화의 정의

인터넷은 전 세계 모든 통신망을 상호 연결하는 세계 최대의 네트워크이다. 지역별, 혹은 단체별로 운영되는 지역 네트워크망(LAN : Local Area Network)을 거대한 네트워크로 다시 연결함으로써 네트워크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한 이른바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 할 수 있다. 1969년 미 국방성의 주도하에 컴퓨터 망 실험을 시작한 것이 그 기원이 되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의하여 사회저변으로 확산되었다.

현재 인터넷은 전화기, 텔레비전, 게임기, 라디오 등 대부분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삶의 가장 중요한 매체이고, 다수의 사람이 동시에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곳이며 인터넷 공간문화가 매일 새롭게 형성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전세계 사람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창출·저장·삭제·교환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사회전반의 다양한 문화흐름을 창출·촉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단순히 건조한 지식과 정보의 창고에 그치지 않으며,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이고, 감정과 정서가 흐르고, 사람들 사이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지고 나름의 독자적인 문화가 형성되는 엄연한 사회공간으로 정의되고 있다(민경배, 2001).

이와 같이 인터넷은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 정의되고 정보사회인 21세기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 하나의 독자적 공간으로 인식되면서 그 나름의 문화인 인터넷문화가 생성되었다. 문화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없고 다양한 현실공간의 사회적 맥락과 가상공간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인터넷문화 또한 인터넷을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 보고 그 공간 이용자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문화에 대한 논의에 앞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인터넷공간과 현실공간의 관계 정립이라 할 수 있는데 인터넷도 하나의 사회적 공간으로 현실공간의 확장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으로 인터넷공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다르게 정의한다. 하나는 가상공간에서의 공유되는 가상적인 문화로서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실존하지 않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과 행동 및 규범으로 본다. 대표적으로 John Perry Barlow는 인터넷이 만들어낸 사이버스페이스를 단순히 컴퓨터 네트워크가 창출해낸 공간으로 개념화하였으며(고금수, 2002), Smith & Kollock(1999) 또한 사이버공간을 물리적 근접성이 아닌 사회적 연결망의 관점에서 정의하였다. 즉, 실제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적 한계가 없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창출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뉴로맨서'의 소설가 William Gibson(1984)은 사이버공간(Cyberspace)을 디지털 정보와 인간의 지각이 만나는 지점이자 문명의 매트릭스라고 보았고, 홍성태(1997)는 사이버문화를 실존하는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Chayko(1993) 또한 오늘날 사회적으로 구성된 의미의 세계가 현실로 보편화된 우리의 삶에서 가상과 현실의 구분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가상이 우리의 생활에 차지하는 영역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어서 가상은 더 이상 가상이 아니라 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정혜정 재인용, 2004). 가상공동체라는 용어를 대중화시킨 Rheingold(2000)는 가상공동체를 충분한 수의 사람들이 자주 사이버공간에서 만날 때 형성되는 문화적 집합체라고 정의하였고, 가상공동체가 기존의 공동체와 같이 물리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정신적·정서적 유대를 바탕으로 한 '우리 의식(we-feeling)'을 생성시킨다고 보았다. 이러한 가상공동체가 개인적 수준에서는 소속감을 불어 넣어주고, 대인적 수준에서는 공공재(public goods)를 추구하는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정치적 수준에서는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하는 고대 그리스와 같은 정치적 아고라의 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6)는 사이버스페이스가 가상현실이나 하나의 '실질적인 실재'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일부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일탈적 행위를 보여주고 자신들이 행한 사이버 폭력 등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가상현실도 하나



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해 인터넷이 만들어낸 가상공간은 단순한 가상공간이 아니라 현실영역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전자적 네트워크로 새롭게 구성된 현실세계의 부분이며, 현실의 확장이자 변형인 실세계로 실존하는 일정 '공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연구의 목적과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문화란 무엇인가? Cicero는 문화의 개념에 대하여 최초로 영어의 Culture나 독일어의 Kultur를 번역한 것으로 라틴어의 Cultus에 그 어원을 두고 있으며 '밭을 갈아 경작한다'란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후에 '가치를 창조한다'는 의미로 변화되었다고 하였다(유태용, 1999). 문화의 의미가 작물 경작의 의미에서 인간 발달의 과정으로 의미가 확대된 것은 16세기 말부터였으며 특히 Hamann은 문화개념을 인격도야 내지 교육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Herder는 정신도야의 의미로 사용했다. 이처럼 문화개념이 주관적·부분적인 것에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으로 확대되어 해석되어 왔다(강신임, 1999).

그 후 Tylor(1871)는 Primitive Culture에서 좁은 의미로 지적, 예술적인 활동의 생산물을 일컫지만, 총체적이고 광의적 의미로는 '삶의 의미체계'나 '생활의 스타일과 방식'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언어, 관습, 경제, 정치, 종교, 예술, 교육 등으로 부르는 모든 제도와 조직적 활동, 그리고 사회집단이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인 전체(Complex Whole)라고 하였다. 즉, 총체론적 입장에서 문화는 인간생활 경험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Castells(1989)은 문화란 행동을 알려주는 일련의 가치와 신념으로 이데올로기, 심리학 또는 개인의 주장과는 다르며, 명시적이면서 문화 속에서 개인의 기호를 초월하는 집단적인 건설이라고 했으며, Giddens(1994)는 가장 일반적이고 정통적인 의미에서 사회 및 집단성원이 견지하고 있는 가치(value), 그들이 준수하는 규범(norm), 그리고 그들이 창조한 물질적 재화(material goods)들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문화는 생물학적 유전에 의한 것이 아닌 인간이 주어진 사회 환경에 적응하면서 후천적으로 습득하여 스스로 문화를 만들고 변형하고 전승하는 과정을 통해 문화의 연속성을 이어간다. 따라서 문화란 고정된 것이 아니며 시대적,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해

가는 인간의 산물인 동시에 인간의 삶의 조건을 형성하는 환경으로 작용한다(전경수, 1994; 한국정보문화센터, 2000a). 즉, 사회는 문화의 기반이 되고, 문화로 양식화된 인간의 행동은 사회-기존의 제도와 사회집단-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와 같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인간 생활양식 전반에 새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1990년대 이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인터넷문화가 출현·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문화는 컴퓨터의 통신망을 통해 형성된 가상 공간상의 문화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김윤겸, 2005) 용어 자체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연구자마다 정보문화, 네트문화, 사이버문화, 디지털문화 등으로 명칭을 달리하여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 형성되어 있는 인터넷문화의 긍정적 측면을 활성화시키고 부정적인 측면을 억제하기 위해 인터넷문화에 대한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고, 인터넷문화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학문적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까지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 인터넷문화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문화의 정의를 살펴보면 인터넷이 활성화되기 이전인 1980년대 말을 전후로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정보사회의 문화(culture in information society)를 일컫는다. 다시 말하면 정보문화(information culture)란 정보사회를 구성하는 적합한 문화형태로서 정보화에 대한 가치문화, 규범문화, 도구문화를 포괄하는 것, 정보사회에서의 생활총체, 행동양식, 정신, 정보사회에서의 총체적 생활양식, 정보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생활양식 또는 행위양식의 총체 등으로 정의될 수 있다(정보통신부, 1999). 사회의 정보화가 확산되면서 문화적 변동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문화가 바로 정보문화이다. 즉, 정보문화란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통신 서비스의 발달과 정보통신기기의 보급이 인간의 생활양식과 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침에 따라 정보사회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의식주에 관련된 사항, 정보사회에 사람들의 행위나 교류 양식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등을 포괄하는 문화적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0a).

한국정보문화센터(2000a)는 정보문화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정보문화를 도구적

정보문화, 제도적 정보문화, 가치적 정보문화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도구적 정보문화는 정보사회에서 인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화의 수단(컴퓨터의 하드웨어 설비와 소프트웨어의 운용), 정보화에 대한 지식을 지칭하고, 제도적 정보문화는 정보사회에서 활동을 하는데 요구되는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공인된 규범적 절차와 규칙이며, 가치적 정보문화는 정보 마인드를 의미하는 정신적인 영역과 관련한 윤리 및 규범의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간행위나 사회활동에 의미나 목표를 부여하는 신념체계의 정신적 가치를 의미한다.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문화운동은 인식·의식, 규범·행동, 제도·절차 3가지 차원을 고려하여 전개해 왔으나, 주로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정보활용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대간·지역간·계층간의 정보 불균형 해소와 정보윤리와 문화를 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될 계획이라고 한다(정보통신부, 1999). 이러한 정보문화의 개념적 범주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정보문화운동의 개념적 범주

차원	범주	
인식·의식	정보화마인드 확산	정보사회의 가치관·윤리형성
규범·행동	정보 리터러시 제고	정보의 대중화, 생활화 촉진
제도·절차	정보화 불균형 해소	정보복지 구현 및 법·제도 정비 (보편적 서비스와 보편적 접근)

출처: 정보통신부(1999).

그 다음으로 사이버문화(cyberculture)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철학자 Pirre Levy가 유럽의회에 보고한 ‘사이버문화’ 라는 보고서에서 사이버문화란 이제까지 존재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보편성을 출현시키고 있다고 말하며 사이버공간의 팽창에 따라 발달하고 변화하는 물질·지적 테크닉·실천·태도·사유 방식 등의 총체를 지칭한다고 하였다. 즉, 사이버문화를 인간 또는 집단이 사이버공간 영역에서 보여주는 특정의 생활방식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김동윤·조준형 역, 2000).

구체적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은 사이버문화를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행동양식이라 정의하였으며 배경희(2001)는 사이버문화를 사이버 공간상의 문화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인지되는 인간경험으로 정의하였다. 조동기·김병준·조희경(2001)도 사이버문화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사이버공간의 기술적 특성들을 활용하여 커뮤니케이션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발현되는 문화로써,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들의 집합적 행위에 따라 생성되는 집합적 생산이라 하였다. 홍성태(1997)는 사이버문화 역시 인터넷상에서 실존하는 문화로 구분 지을 수 있고, 매체를 통한 가상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동체 의식과 문화라 하였다.

종합하여 볼 때 사이버문화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한 문화체계의 변화상을 의미한다. 보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사이버 공간상에서 혹은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여 일어나는 유·무형의 생활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으며(박수호, 2002), 사이버공간 속에서의 기술, 가치, 행동 등을 구성요소로 삼으며, 디지털 정보 수단을 매개로 하는 사회적·인지적 활동의 총체를 포함한다(김동인, 2002). 즉, 사이버문화는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문화양태이며,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문화는 넷월드(networld)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함으로써 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과 그들이 만들어나가는 생활양식의 총체 또는 행위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이버문화의 발전을 세 단계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기존의 문화를 사이버공간에 그대로 이식해 놓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기존의 문화 가운데 사이버세계에 적합한 것들을 성장시키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사이버공간의 특징에 맞추어진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것이다(구연상, 2002). 현재 사이버상에서 이루어지는 콘텐츠의 양상을 살펴보면 사이버문화는 이미 세 번째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인터넷 등 정보이용과 관련된 문화가 외국에 비해 일반화되어 있는 않으며 자녀세대인 청소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터넷은 접근 용이성, 자유로움, 개방성, 광범위성 등 인터넷 세계의 특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놀이공간이 되면서 청소년에게 급속히 확대

되고 청소년을 중심으로 인터넷문화가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현실 세계의 놀이활동과 놀이공간의 부족, 학교교육의 억압 속에서 인터넷이 분노를 분출하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탈출구의 기능을 하고 있으며 대인관계 및 오락 중심의 이용행태에서 볼 수 있듯이 인터넷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놀이문화 정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용한 정보보다는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정보만 난무한 사이트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토론보다는 욕설과 비방으로 얼룩져있는 게시판들, 음란한 대화와 은밀한 성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채팅방이 바로 청소년의 놀이문화이고 우리 인터넷문화의 현주소(민경배, 2001)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 중심의 놀이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인터넷문화의 문제점 외에 정보화의 기술적·물리적인 발전 속도에 비해 정보화마인드 지체, 정보통신기기나 서비스의 보급수준에 비해 낮은 윤리수준과 네티켓 수준, 그리고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에 정보자원의 불평등한 배분과 정보화 수용능력의 차이로 인한 정보격차 등 문화지체현상(Cultural time-lag)이 나타나고 있어(정보통신윤리위원회, 2006)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형성을 저해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새로운 정보 기기를 접할 기회가 많고 정보 기기의 사용 빈도가 높은 자녀와 정보 기기에 익숙해 있지 않고 다양한 정보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부모 사이에 가장 심각한 문화 단절 현상이 나타나며 이러한 현상은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전할 소지가 있다.

## 2) 인터넷문화의 특성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강국이며 인터넷문화 현상이 가장 강력하게 지배하는 사회이기도 하다. 이는 우리나라의 공간 구조와 네트워크가 가지는 특성에 근거하여 컴퓨터 통신이 보편화되었고 실제 세계의 다양한 영역과 결합되어 그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하고 복잡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문화는 사이버 공간과 현실세계가 상호작용하는 그 한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실 세계로부터 출발했지만 그 이전의 문화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그 자체의 특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은 인터넷문화의 특성을 재미와 즐거움이라고 하였다. 다양한 게임과 유행하는 영화나 음악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특성은 혈연, 지연, 학연이 아닌 모르는 상대라도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과 교류가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호회나 마니아들이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나누고 유대를 강화하는 한편 기업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두발 자유화 운동, 역사교과서 왜곡, 김동성 금메달 박탈사건,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등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공감이 가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사회 문제에 참여해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인터넷문화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익명성 또는 탈육체화된 특성이다. 익명성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상대방에게 드러내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다중 정체성(multi-identity) 혹은 선택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인터넷문화는 육체인 성별, 연령, 인종 등의 사회적 조건이 아닌 익명성을 전제로 하는 가명의 문화로 ID와 아바타(Avatar)<sup>5)</sup>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 서로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갖지 못하면서 단지 상대방이 제공하는 정보에만 기초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익명성의 특성은 외모나 연령과 같은 사회맥락적 단서가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대등한 교류와 대화가 이루어지고, 쌍방향적으로 공통된 목적과 관심사에 대해 보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실제로 사이버 공간상의 동호회나 전문가들의 뉴스그룹의 경우, 사회적 맥락에 대한 편견 없이 공통된 목적과 관심사에 의해 보다 친밀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 익명성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 현실세계보다 적극적이거나 진보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익명성은 정체성 기반, 은폐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인터넷공간에서 감정의 조절이나 표현에 대한 억제가 풀리거나 지나친 과장, 개인의 몰개성화, 책임감 약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김동인, 2002; 민경배, 2001; 이기일, 2002; Suler, 1998; Tapscott, 1998). 김도형(2003)의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익명 및 가명 사용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7.7%가 익명을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5) 아바타(Avatar)는 분신(分身)·화신(化身)을 뜻하는 말로, 사이버공간에서 사용자의 역할을 대신 하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이다. 자신을 대표하는 가상육체라고도 한다(www.naver.com).

32.7%는 가명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그 중 자주 혹은 항상 익명을 사용한다는 15.5%, 자주 혹은 항상 가명을 사용한다는 3.9%로 나타나 상당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즉, 익명성은 양날의 칼과 같아 순기능과 부작용을 함께 가지고 있어 이를 금지하기보다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정보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공유성이다. 정보사회에서 정보는 정적이며 객관적인 실체의 개념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정보공유, 정보검색, 정보수집, 정보저장 등은 정보를 기록된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정보는 디지털화로 인해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 없이 영원한 정보로 기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순식간에 사라져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개념이다. 또한 정보사회의 문화는 네트문화로 그 특징은 공유와 나눔의 문화에서 출발한다. 권오문(2001)은 네트문화를 정보의 나눔을 자신의 존재의미로까지 여기는 그야말로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세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공유된 정보는 매체적 특성에 따라 인터넷공간에서 신속하게 전달된다.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 넘어 공유된 정보는 인간관계 형성에 새로운 방식을 제시해주는데 특히, 개인의 관심 영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터넷공동체에서 집단의 소속감과 문화를 공유하게 된다. 인터넷공간에서 관심과 정보의 공유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며 현실공간의 확장선 또는 현실공간에서의 시·공간의 장애를 극복하는 대안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특성을 갖게 된다(김동인, 2002). 이와 같은 네트문화는 정보공유나 교환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정보를 획득하거나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신장시켜준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학습이나 탐구를 위한 자료를 제공해 주므로 매우 가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외설, 음란, 폭력 등 유해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그대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이기일, 2002).

셋째, 개방성 및 양방향성이다. 인터넷은 성, 인종, 민족이나 기타의 조건에 대한 차별 없이 컴퓨터통신망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으로 인터넷문화 구성원이 문화의 수용자인 동시에 생산자, 관리자의 역할을 한다(구연상, 2002). 인터넷 공간의 정보는 누구도 독점 할 수 없다. 개인이나 집단이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하고 사회적 관심을 요구하는 개방적인 공간은 사회적 약자나 비주류 매체의 쟁점에 대해서도 귀 기울일 수 있는 다양성을 동시에 갖고 있



다. 예를 들어 인터넷 게시판이나 채팅방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의견교환을 하면서 열린 공간에 자신들을 자유롭게 노출시킬 수 있다(Tapscott, 1998). 또한 새로운 정보매체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특성으로 지적되는 양방향성은 개방성의 적극적인 면이라 할 수 있는데(김동인, 2002), 이는 이용자가 송신자이면서 수신자가 될 수 있는 상호작용성이다. 전통적 미디어에 비해 인터넷은 수용자의 즉각적, 적극적 피드백이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허정미, 2004).

넷째, 가상성이다. 가상성은 현실공간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이미지나 상상 속에서 구현되는 새로운 세계이다(조동기 외, 2001). 시간적 제약과 공간적 한계를 벗어나게 해주는 사이버공간의 기술은 네티즌들이 현실공간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상상의 세계를 펼칠 수 있게 해준다. 가상성은 하나의 역동적인 힘으로 존재하나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현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상성은 자신만의 이상세계를 실험해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과 구체적인 현실공간을 망각해버리는 비사회적 인식으로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들이 오랜시간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서 현실세계와 혼돈을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다섯째, 자율성이다. 자율성은 인종, 지위고하, 빈부차에 따른 어떤 제약도 없이 공평해야 함을 천명한다. 이것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자율적 개인들이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회전체의 지적 차원을 확장해가는 가장 중요한 사회-기술적 환경이라고 할 때 인터넷문화의 구성원들이 조타수와 같은 자율적인 존재가 되어야 함을 암시하는 것이다(김윤겸, 2005). 즉, 이는 사이버공간이 바다에 비유되곤 하며, 사이버네틱스의 원래 어원이 조타수(키잡이)를 뜻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즉각성이다.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속도단위는 초(Second)이다. 따라서 이런 스피드에 익숙한 세대들은 리얼 타임 세계를 선호하며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클릭 한번으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이러한 즉각성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의식세계에도 영향을 주어 기다림을 참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Tapscott, 1998).

이와 같은 인터넷문화의 특성에서 박창호(2001)는 개방, 공유라는 문화적 특징은 장벽 없는 다양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고, 익명, 자율, 가상이라는 문화적 특

정은 공동체에 참여하는 인간들의 구속받지 않는 정체성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지금까지의 인터넷문화 특성을 정리해 보면 <표2>와 같다.

<표2>인터넷문화의 특성

인터넷문화 특성	문화의 영향	
	긍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익명성	자기표현, 정체 실험	무책임성, 무절제
공유성	공동체 형성, 정보공유	탈개인화, 비검증 정보 확산
개방성	지위 평등화, 참여기회 확대	집단규범 약화
가상성	잠재성 발휘, 현실 장애 극복	현실도피
자율성	자유로운 의사 개진	상업화의 범람, 비사회적인 인식
즉각성	빠른 정보 습득, 즉각적 반응	기다림을 참지 못함

출처: 김동인(2002)의 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재구성함.

## 2. 인터넷문화와 가정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로 사회 성원을 재생산하고 기초적인 사회화를 담당하며 가족구성원에게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복지적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가 아닌 상호의존적 체계이며, 가족원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항상성을 이루는 것으로 본다. 즉 가정은 개방체계로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가족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성장기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환경이며, 사회화의 1차적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가족 내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혼란과 변화의 시기인 청소년기를 잘 극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역기능적으로 기능하

는 가족 내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청소년기의 위기를 바람직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약물을 포함한 중독적 행동 또는 부적응적 행동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권재환, 2005). 즉, 청소년들에게 가정은 사회화 기능을 담당하고 교육을 하며 성인이 되기까지 보호하는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가정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었고, 자녀들의 가치와 태도 및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자녀의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부모들은 사회활동으로 인해 자녀들과의 접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또한 과거보다 가족수가 줄어들고 가족의 형태가 변화하고 가족가치관에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사회변동에 따른 가정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정보화로부터 촉발된 사회변동으로 여러 측면에서 종래와는 상이한 형태의 가정이 등장하거나 가정이 소멸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10년 후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가족의 필요성이 점점 사라질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 77.9%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가족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하였던 것(이시형, 2004)처럼 산업사회와는 달리 오히려 정보사회가 되면서 가정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는 예견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가 변동함에 따라 부모와의 접촉이 줄어든 만큼 청소년인 자녀들은 대중매체에 많이 노출이 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예전에 TV가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처럼 정보사회에서는 인터넷이 청소년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다(김명애, 2002; 조준범, 2001). 이와 같이 가정은 새로운 정보통신 테크놀로지를 채택하고 활용하도록 고무하여 전체 사회의 정보화에 추동력을 제공해주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보미디어의 채택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

정보화의 진전과 사이버 공동체의 등장은 사회구조와 인간관계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중심에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이 자리하고 있어 가족과 연관된 삶의 변화도 초래될 수 밖에 없다. 새로운 생활방식으로서의 인터넷 활용이 개인 중심에서 가족과 연관된 삶의 변화로 이어지며 가족원들은 다양한 정보사회의 적응방식을 통해 새로운 가정문화를 형성할 것이다(차성란·문숙재·정영금, 2003).

그러나 인터넷의 생활화는 가정문화에 있어 상반되는 두 가지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인터넷의 이용은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외부 사람들과 연결됨으로써 각 가족원들로부터는 고립을 유도할 수도 있는 반면, 가족성원 상호간에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도움을 줌으로써 가족원들 간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이해영·박부진, 2000;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2000).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가정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재택학습, 노동여건의 유연화, 재택의료, 홈쇼핑, 홈뱅킹 등이 가능하게 되면서 가족들간의 공동의 체험과 대화도 많아지게 되어 가족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화되는 신가족주의(neo-familism)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이다(김은미, 1999). 이는 인터넷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가족관계의 질이 높아지고 기존에 소원했던 가족관계를 회복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표3>사이버공간의 활동량 증가로 인한 가족생활의 변화

행동의 변화	가족생활의 변화	간접적 변화
주체적 행동선택	능동적 행동 기계적 의존	라이프스타일 변화
탈시간화		성역할 의식 변화
탈거리화	가사시간의 단축화	여가시간 증가
노동경감		여성의 취업·여가시간 증가
네트워크 의존	외부와의 상호작용 유지	가족의 확대
개별화	가족결속의 약화 세대간 정보격차	가족의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출처 : 김은미(1999).

이와 반대로 가정생활 깊숙이 인터넷이 개입함으로써 가족관계가 기계적이고 사무적인 것으로 변할 것을 우려하는 비판론이 공존하고 있다. 가족간의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족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오히려 가족간의 대화가 늘었다고 하였으나 가족간 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가족원 각각은 고립되고, 가족간에 대화가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이혜진, 2001). 오랜 시간의 인터넷 이용은 가족과의 대화를 점점 줄어들게 하고, 가족단위의 의식이나 여행

에 자주 참여하지 않게하여 가족구성원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적응 또한 어렵게 한다. 실제로 컴퓨터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세대간의 단절을 많이 느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조정문·임정덕·김성국·이대식·김영삼·조영복·신종국, 1999). 이와 같이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가정생활과 관련한 상반된 주장들이 있으나 인터넷 이용이 가정생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보사회론자들은 정보사회가 가족의 형태는 물론 가족관계의 성격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전의 가정생활에 대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의 전달은 가족을 단위로 면대면, 세대와 세대간에 이루어졌으며, 전통적으로 외부사회로부터 가족에 유입되는 정보는 윗세대 남성들에 의해 독점되어 성인남성들은 외부사회와 가족을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정보의 생산과 전달, 수용은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공통분배되는 상황에 있다(김은미, 1999; 차성란 외 2인, 2003). 그러므로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술은 산업사회와는 질적으로 다른 세대 경험을 형성하고 나아가 지금까지 유지되었던 세대관계의 일대변혁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김유미, 2000). 그래서 정보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중요한 측면으로 세대간 정보격차로 인해 가족내 개별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견해와 세대간 정보격차가 가족내 위계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예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즉, 정보화로 인한 새로운 기술의 수용을 둘러싼 세대간의 상이한 경험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격차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오늘날 자녀 세대는 인터넷문화를 가장 잘 대변해 주는 명칭으로는 N세대 혹은 사이버 세대라 불리우고 있다. 이 명칭으로 미루어 볼 때 기성세대와는 달리 현대를 사는 청소년들은 디지털 기술이나 정보, 문화와의 친화력이 강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자녀세대에게 컴퓨터와 인터넷은 삶의 필수조건이며, 이들은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 개방, 감성을 터득해 나간다. 또한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득함으로써 국제 감각을 지니고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자신을 표현한다(Tapscott, 1998).

실제 자녀세대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그들 나름대로 소극적인 저항과 자신들만의 즐거움을 찾는 여러 방식으로 하위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그들만의 언어 문화를 형성하였으며, 청소년 웹진 등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스스로 미디어를 창



출하는 주체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김동인, 2002; 정재민, 1998; 허철규, 2001). 이러한 N세대에게 있어서 컴퓨터 기술은 기성세대와 같이 교육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을 통해 습득되는 기술이다(김혜수·허혜경, 2003). 즉, 자녀세대는 디지털 환경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세대이다. 디지털 환경은 자녀세대에게 자유롭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촉진시키는 개방적 의식을 고취한다. 자녀세대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독립심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며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체득함으로써 국제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에 대한 호기심이 강하고 즉시적이며 속도를 중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조합주의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 기성세대와는 판이하게 다른 생활 경험을 갖게 된다(박수호, 2002).

인터넷문화로 통칭되는 인터넷 이용에서 자녀와 부모와의 차이는 단순히 사회적 경험의 차이만이 아니라 자녀들은 새로운 사회문화적 변화를 성인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한다. 부모의 경우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정보매체는 기존의 활동을 강화시켜주거나 동일한 활동을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즉 행동이나 기능에서의 유사성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는 반면, 청소년 세대의 경우 사이버 공간의 경험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활동이 된다. 이것은 바로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에 대한 세대간의 의식의 차이를 유발할 뿐 아니라 동일한 경험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요인이다(황상민, 2000).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자녀 세대의 경험은 기본적으로 부모와는 현격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서로 상이한 문화를 경험한 자녀와 부모는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결국 그만큼 유대감의 약화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정보화로 인해 사회생활에 유용한 지식 정보의 주기가 점차 단축되고 있다. 이것은 부모의 경험과 지식이 자녀에게는 더 이상 유용하지 못한 것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농경사회나 산업사회에서 부모가 자녀에 대해 누렸던 권위는 급격히 해체될 수밖에 없다(박수호, 2002).

뿐만 아니라 정보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감 약화와 갈등증대, 정보격차로 인한 정보소외자인 부모의 권위감소, 윗세대의 문화단절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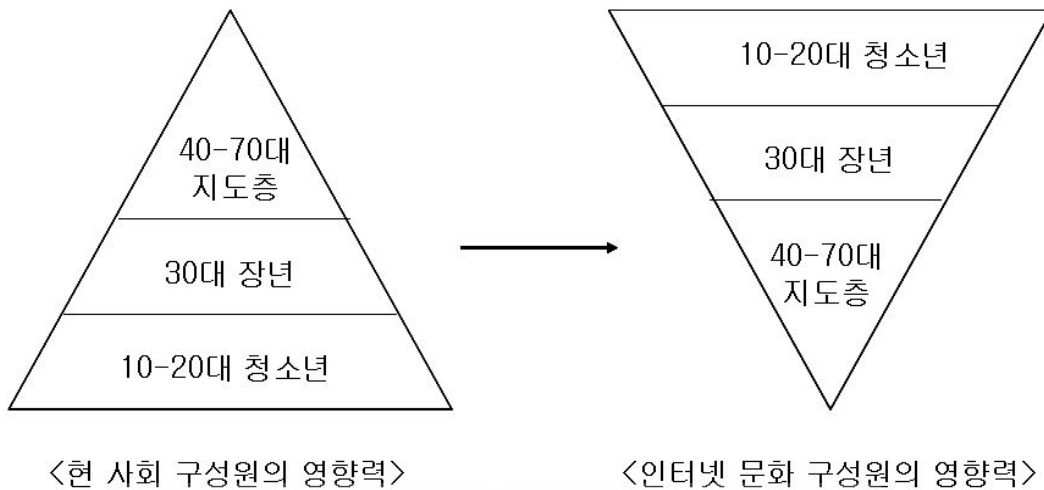
상으로 압축될 수 있다(심수민, 2000; 정혜정, 2004). 정보화로 인한 사회변동의 가속화와 함께 새로운 생활환경에 더 많이 노출된 신세대의 가치가 기성세대의 가치에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역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이선이, 1999). 인터넷문화에 대한 선호나 친숙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간의 세계관과 가치관도 달라지고 행동방식에서도 커다란 차이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와 격차가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어 표출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문화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사회의 주류 세대는 다르다. 현실 사회를 이끄는 세력은 40대 후반 지도층이라고 본다면 사이버 공간에 영향력을 끼치고 그 문화를 주도하는 세대는 10-20대의 청소년인 자녀세대라고 볼 수 있다. 40대 후반의 세대들은 현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도자층으로 새로운 사이버 문화의 규율을 배우고 적응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가 부담스러운 세대이다(안미리, 2001). 인터넷 이용계층이 다양화됨에 따라 인터넷공간에서 발현되는 문화의 양태도 처음 주도계층인 성인 남성이 아니라 청소년을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Kiesler(1999)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93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가장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 사용자이며 10대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족원들이 기술을 습득하는데 도움을 주고, 가정내의 교사로서 새로운 역할을 맡아 전통적인 기성세대로부터 신세대에 대한 지도나 교육의 의미가 상실된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이해영·박부진 재인용, 2000).

결국 각 가족원들이 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접근능력과 변별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에 의해 가족의 위계가 결정된다면 가장 많은 정보능력을 갖고 있는 아랫세대의 위계가 상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보유입통로의 역조현상은 가족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여, 경직된 위계구조를 완화하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정혜정, 2004). 인터넷문화와 현실세력을 이끄는 세대의 문화주도권을 살펴보면 <그림1>과 같다.





<그림1>사회구성원의 영향력 변화

출처: 안미리(2001), p. 156.

인터넷 공간을 주도해 나가는 세대인 청소년들은 인터넷문화를 사이버공간에 등장시켰으나(Tapscott, 1998) 여러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인터넷문화는 아직까지 어떠한 패턴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정도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며, 가상공간에서의 도덕, 윤리적 가치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기성세대인 부모의 시각으로 인터넷문화를 진단하는 것도 분명 한계가 있으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제 청소년 자녀인 N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공기처럼 익숙해진 인터넷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환경과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스스로를 지켜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관이다. 이 일은 어른인 부모들의 몫이며 이를 위해 N세대의 문화인 인터넷문화의 이해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권오문, 2001). 또한 인터넷문화 속에서 올바른 자녀교육과 건전한 가정을 이끄기 위해서도 부모 자신부터 인터넷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PC와 인터넷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야 하며 자녀들이 바람직한 인터넷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3.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

갈등이란 상호의존적인 사람들이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욕구나 기회 혹은 목표, 흥미에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것이고 특정행동 때문에 그 행위를 하는 사람 주위의 인간관계 및 사회관계가 나빠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뜻하며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방해를 경험하는 상황을 말한다(서화신, 2003; Donohue & Kolt, 1992). 그 결과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백미숙(2000)은 가정내에서의 갈등을 규범의 불일치로 인한 역할 긴장이나 역할 갈등의 문제로 다루는 기능론적 측면과 가족 구성원들간의 억압이나 권력, 자원의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 갈등론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다. 부모-자녀 갈등은 부모갈등(부부갈등), 형제(자매)갈등, 고부갈등 등과 함께 가정내 갈등의 한 영역이다.

부모-자녀갈등에 대해 연구자들이 정의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Galvin과 Brommel(1988)은 2명 혹은 그 이상의 가족 구성원이 그들이 원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상반될 때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Smetana(1989)는 부모-자녀 갈등을 부모-자녀가 중요한 가족의 문제나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반복적으로 갈등이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때 일상적인 문제들은 옷 입는 문제, 이성문제, 성적문제 등과 관련한 규칙과 규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하였다(Smetana, 1988).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자녀 갈등에 대해 이주옥(1994)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서로 상처되는 가정내의 위치와 견해 및 이해의 차이로 인해 일어나는 충돌로써 말다툼이나 폭력 사용 등 외현적 행동에서부터 긴장감까지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정의하였다. 김정수(1997)는 부모의 권위와 지배에 대해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서서히 대립하게 되면서 부모-자녀간의 기대와 역할에 문제가 생김으로써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김향숙(1999)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을 일상사에 대한 단순한 의견 불일치에서부터 결정권을 확보하려는 파워게임, 자율성의 욕구, 가정내의 위치와 견해 및 이해의 차이로 일어나는 논쟁 등의 외적·내적 긴장감과 이것이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며 지각되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가족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상호작용이 빈번히 나타나기 때문에 갈등이 표출되기 쉽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와 청소년 자녀간의 갈등은 가족관계의 일부분으로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부모-자녀관계 변화의 필수적인 요소로 파악되기도 한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으로써 독립성 및 자율성을 향한 청소년 자녀의 욕구와 부모의 통제와 긴장의 주요인이며, 부모의 힘이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행사된다는 점에서 여타갈등과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다(Osborne & Fincham, 1994).

말하자면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서로 상이한 가치관과 경험을 통해 성장한 기성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사물이나 세계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부모집단인 기성세대와 자녀집단인 신세대 사이에는 갈등이 존재했었다.

현대사회인 정보사회로 오면서 부모집단과 청소년 자녀집단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컴퓨터를 주 매체로 하는 정보중심의 사회에서 미래사회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의 컴퓨터 사용을 막거나 부정적 방향의 개입이 아니라 역기능을 개선하고 긍정적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야 하나 부모들은 인터넷과 관련한 지식이 부족하며 역기능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을 무조건 제재하거나 통제, 감독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해서 부모가 간섭을 하면 자녀들은 화를 내거나 반항적인 행동을 하고 부모가 컴퓨터를 치워 버리면 자녀의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돈을 훔치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생활로 인해 생활의 변화를 겪게 되고 학교성적이 저하되면서 부모와의 갈등은 더욱 심해지게 되는 것이다(정진태, 2003).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부모-자녀간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은 컴퓨터 이용과 관련이 있으며 부모의 감독 및 통제, 생활의 변화가 부모-자녀간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자녀간 갈등은 자녀의 청소년기 특성과 인터넷을 자라면서부터 이용해 온 인터넷 세대의 특성이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의 특성인 강한 독립성, 자율성, 모험성 및 반항성과 인터넷 세대의

특성인 적극적 자기표현, 탈공간성, 감정개발에 대한 이중성, 디지털기술에 대한 호기심 등이 복합되어 내면화되어 있으며 특히, 인터넷 세대의 특성은 부모의 경험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이함은 심각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경험할 수 밖에 없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Tapscott, 1998).

따라서 지금까지의 부모-자녀간 갈등이 세대간에 발생하는 서로 다른 생각과 라이프스타일, 문화적 차이라는 측면에서 세대차이(generation gap)라면,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은 정보사회에서의 디지털 기술 수용과 디지털 지식의 측면에서 자녀집단이 부모집단을 월등히 앞서가는 세대갯기(generation lap)의 양상을 띤다. 정보격차로부터 유발되는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가치와 규범의 상호 물이해로부터 발생하는 문화적 갈등을 넘어서서 부모집단이 지니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유미, 2000).

이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인터넷 이용에 있어 무지하거나 기초적인 능력밖에 갖추지 못한 데에도 큰 원인이 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문제들은 부모들을 불안하게 만든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세대간의 단절로 이어져 청소년들의 음성적인 인터넷문화 형성을 초래할 수 있다(정재민, 1998).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은 부모-자녀간 갈등의 새로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러 배경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갈등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표출되지 않고 잠재되어 있음으로 해서 미래의 갈등으로 표현되는 것과 같이 내재된 형태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자녀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요인과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

가정환경은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특히 가족 구성원간의 화합도, 부모의 감독, 부모의 태도 등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가족관계나

가족의 기능성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권재환, 2005; 조윤정, 2000). 즉, 많은 연구에서 청소년의 문제행동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비롯되었으며 문제행동을 완화시키는 역할 또한 가족의 지지나 가족과의 상호작용에 있다고 밝히고 있다. 가족과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에 몰입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부모-자녀간 갈등과 가족간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한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권구영과 이혜자(2002)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이용에 있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생활의 변화나 가족관계의 변화를 경험하였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감독은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 초기·중기에 걸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한다. 인터넷 중독과 부모의 감독에 관련된 국내 연구 결과들이 상반된 결과를 보이거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다. 특히, 청소년기인 자녀집단의 특성상 독립성이 강조되는 시기로 부모의 감독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감독은 자녀집단으로 하여금 반발심을 갖게 하기 쉽다. 따라서 부모의 감독이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치고 부모-자녀간 갈등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의 태도는 청소년 비행과 약물의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홍설화, 2006). 특히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도 높은 관계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김지형, 2002; 서화신, 2003; 이계원, 2001). 부모의 양육태도 중 비합리와 적대 요인, 비밀관성, 과잉기대, 학대, 방치 요인 등이 인터넷 중독 성향과 정적인 관계가 있는 반면 애정, 민주 요인은 인터넷 중독과 부적 관계가 있었다(이지향, 2005). 이와 같이 부모의 태도 유형에 따라 자녀의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 중독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부모-자녀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집단은 인터넷을 무절제하게 이용하고 몰입함으로써 많은 신체적·행동적 변화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나강환, 2004; 남현주, 1996; 조명옥, 2002; Brenner, 1997; Lenhart, 2001; Young, 1996). 예를 들면 자녀집단의 생활시간, 가족 및 친구관계, 생활 및 신체적 변화가 발생하면서 부모-자녀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감독, 부모태도, 자녀의 생활변화 등이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부모-자녀간 갈등을 유발하는 잠재적인 갈등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걱정

산업사회와는 달리, 정보사회에서는 부모의 가르치는 입장과 자녀의 배우는 입장이 변화하면서 인터넷 활용에 대한 부모의 통제는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고 부모-자녀간 갈등의 요인이 되었다. 또한 정보화시대 가장 강력한 미디어로 등장한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달리 부모들이 그 속성이나 기능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청소년들에게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청소년들의 태도, 습관 및 성의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모들의 걱정과 우려는 증폭되었고, 부모-자녀간 갈등 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자녀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허정미(2004)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모는 인터넷이 자녀의 학교과제를 돕는 것에 동의하였으나,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인터넷 이용시간 등 인터넷 안전에 대한 걱정과 인터넷의 상업성 및 사회적 고립에 관한 문제에 대해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많은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해도 실제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대처방안은 모두 소극적으로 약간의 걱정과 잔소리를 한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성근, 2002). Lenhart(2001)도 부모의 57%는 자녀가 온라인에서 나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걱정한다고 했으며 정재민(1998)의 연구에서도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을 불안해하고 걱정한다가 67.3%로 높게 나타났다. 차성란 외 2인(2003)도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에 따른 걱정, 불안, 불만족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자녀들이 불량정보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2.53)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하였다. 또한 Katherine & Lee(2002)는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 시간 및 사이버공간에서 접촉하는 사람들과 자료들에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부모들을 자극하는 이러한 걱정들은 부모로 하여금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칙을 정하고, 자녀들의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하고, 불건전한 자료에 접근을 막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게 한다. 이처럼 부모들이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대처방안을 세우게 되면서 부모-자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2) 부모감독 및 통제

부모감독이란 자녀의 행방에 대한 전반적인 주의로 자녀가 있는 곳, 하는 일, 자녀의 친구관계 등 자녀의 모든 일을 살피어 감독하는 것을 말하며 부모의 감독은 아동기 후기와 청소년기 초·중기에 걸쳐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Dishion, Patterson & Reid, 1992).

자녀들의 청소년기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의 시기는 아동기와 성인기의 과도기적 발달단계로 부모에게 의존하려는 욕구와 부모의 권위와 간섭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갈등의 시기이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권재환, 2005). 자녀의 발달적 특징 이외에 정보사회에서 정보에 대한 근접성과 신속한 수집력 등을 고려한다면 부모들이 갖는 권위는 더욱 감소할 것이나, 여전히 디지털을 통제하는 사람들이 윗세대(고선주, 2002)라는 점 등 정보사회가 갖는 특징이 부모-자녀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감독에 대해 연구한 김도형(2003)에 따르면 응답실에 컴퓨터를 설치했다 28.2%, 컴퓨터를 이용하면 수시로 들여다보신다 33.1%, 시간을 정해놓고 인터넷을 쓰게 하신다 24.4%, 음란물 차단 S/W를 설치했다 10% 정도였다. 특히 이러한 부모의 감독은 학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중학생보다 초등학생이 부모의 감독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실제 부모감독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며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감독을 많이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감독할수록 청소년들은 자기만의 가상 세계인 인터넷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김경동(2000)과 같이 인터넷에 관한 부모의 감독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와 부모의 감독이 증가하면 청소년들은 자기만의 가상 세계, 인터넷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인터넷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력에 따른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차이를 연구한 조춘범(2001) 또한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통제력에 따라 인터넷 중독에 차이가 있으며 부모의 통제가 심할수록 인터넷 중독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인터넷 중독에 걸린 청소년일수록 부모로부터 인터넷

에 대한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인터넷 과잉 이용이나 중독 방지를 위해 직접적인 통제보다 자녀와의 대화나 부모의 신뢰적 태도가 필요하다(윤영민, 2000). Christopher, Tiffany, Miguel, & Michele(2000)은 높은 인터넷 이용집단이 낮은 이용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하였다. 오현화(200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및 통제가 높을수록 인터넷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지나친 부모의 감독 및 통제가 청소년들의 인터넷중독을 심화시킨다고 하였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종원과 조옥귀(2002)의 연구에서도 게임중독이 심한 학생일수록 부모의 통제를 많이 받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적절한 감독은 청소년을 감싸고 있는 주위환경의 영향을 완충시키며 위험정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지만(Wilson, 1987) 지나치게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일 때는 자녀의 비행 빈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Mussen, 1979). 즉,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통제는 자녀가 잘 기능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지만 최고의 통제나 최소의 통제는 오히려 자녀의 문제행동을 유발(Peterson & Rollins, 1987) 할 수 있다는 것이다(권재환, 2005).

### (3) 부모의 태도 유형

부모란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며, 자녀의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교육자이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지도하느냐 하는 것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부모태도 및 부모-자녀간 갈등에 대한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여러 요인들과 복합적인 작용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그 분류 방법을 각기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먼저 부모의 양육태도란 부모 또는 부모를 대신한 다른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보편적

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외적·내적행동을 의미하며, 자녀의 사회적·정의적 행동 특성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이승화, 2001).

이러한 양육태도를 처음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Symond(1949)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으며 그 이후 Schaefer(1965)는 양육태도를 자율-통제, 애정-적대의 차원으로 구분하고 민주형, 보호형, 방임형, 독재형으로 나누고 있다. 부모의 민주적 태도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로서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있어 능동적·창의적·독립적이다. 보호적 태도는 애정을 주면서도 자녀의 행동에 많은 제약을 가하는 엄격한 부모의 태도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한다. 자녀는 의존적이고 창조성이 적으며 인내심이 강하다. 방임적 태도는 자녀를 애정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거부하는 동시에 자녀가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게 하는 태도로서, 자녀가 자신의 행동조절을 잘하지 못하며 문제적 행동을 보이기 쉽다. 이러한 방임적 태도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데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허묘연, 1999). 마지막으로 권위적 태도는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벌 또는 통제로 행동을 규제하는 태도이다. 자녀는 반항적이며 자기방어의 수단으로 거짓말을 일삼게 되는 유형이라고 하였다(서화신, 2003). Steinberg, Lamborn, Darling, Mounts, & Dornbusch(1994)는 부모가 권위적이고 민주적인 양육방식을 보이는 청소년 자녀들은 일탈된 또래와 접촉하더라도 반사회적인 행동을 저지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밝히면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청소년기 자녀의 일탈행동을 중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계원(2001)은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는 방임형 태도가 가장 설명력이 높은 변인으로 나타나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개입이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연구사례를 살펴보면 중학교 남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진태(2003)의 연구는 부모의 양육태도 유형을 민주형, 보호형, 독재형, 방임형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인터넷 중독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아버지 양육태도 유형이 독재형일 때 인터넷 중독 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민주형일 때 가장 낮게 나타났고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방임형일 때 인터넷 중독 정도가 가장 높았고 민주형일 때 인터넷 중독 정도가 가장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서화신(2003)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태도는 민주형, 방임형, 보호형, 독재형의 순으로 어머니의 태도는 민주형, 보호형, 방임형, 독재형 순으로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가 인터넷 중독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자녀가 어머니와 더 직접적으로 접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Baumrind(1991)는 자녀양육방식을 독재형(authoritarian style), 허용형(permissive style), 권위형(authoritative style)으로 분류하였다. 독재적인 부모들은 규칙을 만들어 자녀들을 통제한다. 자녀들이 규칙을 따르도록 명령하지만 그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는다. 허용적인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아무런 통제를 가하지 않으며, 뚜렷한 자녀양육방법도 없다. 이들을 자유방임형이라고도 한다. 권위적 부모들은 자녀들을 적극 지원하며, 부모들의 기대감에 대해 설명하고, 그들의 자율성을 높이 평가하며 규칙을 설명하여 자녀들로 하여금 이해하고 따르도록 한다.

Barnes & Farrell(1992)은 부모의 지지(support)와 부모의 통제(control)로 부모태도를 구분하였다. 부모지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온정, 사랑, 수용, 격려, 관심 등의 행위를 말하고 통제는 훈육과 감독을 의미한다. 훈육은 주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외적인 통제행위로, 부모가 자녀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한계를 설정하고 그 한계를 넘는 행위에 대해 취하는 행동이다(남화정, 2001).

엄명용(2001)은 부모지지의 정도가 약하거나 심한 경우에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부모지지가 중간 수준에서 청소년의 비행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지나치게 통제할수록 청소년들은 자기만의 가상세계인 인터넷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김경동, 2000). Hoffman(1979)과 Orleans & Laney(2000)도 자율적인 양육태도는 아동이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갖도록 한다고 하였고 통제적인 경우 아동의 억제된 행동을 기른다고 하였다. Seligman(1991)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통제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때 자녀들의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조춘범(2001)은 자녀의 인터넷중독과 관련한 부모태도는 허용과 통제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특히, 부모가 애정적일수록 인터넷 중독에 노출이 적으며 부모가 통제적인 양육태도보다 자율적인 양육태도를 가질수록 인터넷 중독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거부적으로 양육하거나 부모-자녀간 갈등이 많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일탈이 증가한다는 선행연구(박영신·김이철, 2000; 윤지영, 2001)로



보아 부모지지가 청소년의 행동과 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인터넷 비행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다.

Turow(1999)는 8세에서 17세 사이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1,102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인터넷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를 걱정형, 무감각형, 예찬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온라인에 접속하는 부모 중 걱정형과 예찬형은 각 39%였고, 무감각형은 22%로 나타났다. 첫 번째 걱정형은 인터넷의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지만 인터넷 오·남용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다. 이들 중 66%가 인터넷은 자녀들의 반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92%는 인터넷이 자녀의 학교 숙제를 돕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이 유형의 부모들은 높은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 두 번째 무감각형은 인터넷을 TV나 비디오와 같이 여가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유형이며, 세 번째는 인터넷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예찬형이다. 걱정형은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과도하게 통제하거나 감독함으로써 인해 자녀와 가장 많은 갈등의 소지를 갖는 한편, 무감각형은 인터넷 이용에 관해 부모의 방치나 방임의 태도로 자녀가 무절제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소지가 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들을 세워놓고,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들은 전반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자녀들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이용 규칙을 세워놓고 자녀들이 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정도의 간접적 통제에 치중하는 부모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은 인터넷에 대해 상반된 자세를 갖는다. 그러나 상반된 자세로 완전히 방치하거나 또는 무조건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은 인터넷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자녀들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해야 한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활용을 어떻게 지도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애정과 관심이 중요하며, 자녀와 신뢰적인 태도로 대화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노력과 그러한 노력을 일관된 태도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 (4)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의 변화

한국정보문화센터에서 실시한 국민정보화실태조사(2000b)에 의하면 인터넷의

이용이 생활시간의 배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크게 변화한 시간은 TV시청시간과 수면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라디오 청취시간이나 독서시간, 취미활동, 가족과의 대화시간 등도 줄었다는 비율이 늘었다는 비율보다 높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은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로 오랜시간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서 채팅, 오락, 통신 등에 빠져 대부분의 생활시간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생활의 리듬을 잃어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Stanger & Gridina(1999)는 자녀들이 스포츠나 사회적 활동을 참가하는 대신에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생활의 변화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다.

Brenner(1997)는 청소년들이 생활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시간관리에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Kaver, Kraut., Greenfield & Gross(2000)에 따르면 집에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텔레비전 시청 시간, 학교 공부 시간, 잡지나 신문 읽는 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인터넷이 없었다면 10대들은 TV 시청, 독서, 전화 통화, 친구들과의 시간, 클럽 참가, 공부 시간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하였다(Lenhart, 2001). 청소년 1,367명을 대상으로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에 따른 청소년의 TV시청 시간의 변화를 조사했는데, 응답자의 57.8%가 TV시청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했고, 4.3%가 늘었다, 37.8%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하종원·백옥인, 2000).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성근(2002)의 연구에서도 생활의 변화 중 크게 감소한 항목은 취미활동시간(28.7%), TV시청시간(27.3%)였으며 가족과의 대화시간, 신문 독서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미국의 경우도 닐슨미디어리서치(Nielsen Media Research)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991년에서 1996년 사이 2세에서 17세에 이르는 인구의 주당 평균 TV시청시간은 두 시간 감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이 일년 동안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100시간 줄어들 것이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경우 그 수치는 더욱 커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Tapscott, 1998).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장 큰 시간의 변화는 TV시청이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들의 TV시청 시간 감소는 여가 활용 수단이 인터넷으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TV시청으로 인한 부모-자녀의 갈등이 인터넷으로 인한 부모-자녀의 갈등으로 대체될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의 이용은 대인관계의 형태를 변화시켜 친구관계 및 가족관계에 변화를 초래하고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친구와의 대화도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대화가 아닌 E-mail이나 Instant message를 활용하고 옥외 활동을 위해 특정 장소에서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컴퓨터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하여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류진아, 2003). 청소년의 생활이 컴퓨터를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더더욱 컴퓨터에 접속할 수 밖에 없으며 부모들은 이러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게 되면서 부모-자녀간의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면서 가까운 친구 및 가족간의 대화부족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뒤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었다는 학생들은 11.6%인데 반해 늘었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15.2%였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친구들과의 만남이 늘었다 23.0%와 가족간의 대화가 늘었다 29.8%로 나타나 인터넷 이용이 친구관계 형성과 부모-자녀간 대화를 촉진하는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김명선, 2002; 조명옥, 2002). 이는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이 증가하기도 하나 인터넷상에서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함께하기도 하고 채팅 및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오히려 친구관계가 증가하는 등 청소년에게 인터넷 이용은 양면적인 측면이 있었다.

특히, 남자청소년들이 주 인터넷 이용 분야는 게임이다. 이러한 게임의 과다는 신체적 문제, 폭력적·공격적 성향 조장, 사회성 저하 등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인터넷 게임은 보통 몇 시간씩 시간이 소요되어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기 때문에 수면부족으로 학교에 지각하거나 수업 중에 잠을 자게 되면서 학업에 무관심해지고 혼자 게임하는 것을 즐긴 나머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 심각한 장애를 보이기도 한다.

인터넷 이용은 여가시간의 변화와 사회구성원과의 관계 변화 이외에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하기도 한다. Thomson(1996)은 인터넷 과다이용으로 인한 시력 저하나 수면장애와 같은 신체증상들로 인해 생활에 전반적인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혔다. Zhiyong, Matti & Jouko(2004) 또한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목과 어깨 통증은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하였다. 농촌 중학생을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도 인터넷 중독자들이 비중독자보다 수면시간이 부족하고 눈의 피로, 두통, 어깨통증, 피로감, 시력저하 등의 변화가 더 높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 중독정도가 높은 학생들이 비중독자보다 가족, 친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행사에 비참여적이고 부모와의 갈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나강환, 2004).

김유미(2000)는 초등학교 고학년과 그 집단의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의 인터넷 경험 후 생활변화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연구결과 인터넷 이용 후 긍정적인 생활변화에 대해서는 아동이 부모보다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지만, 부정적인 생활변화에 대해서는 부모가 아동보다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자녀보다 부모가 인터넷을 보다 목적적이고, 고정관념을 갖고 대한다는 것을 시사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5)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는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변화를 요구하였는지의 유무를 의미한다.

안은경(2006)의 연구에 따르면 자녀 스스로가 인터넷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인터넷 이용이 양호한 자녀와 인터넷 이용에 문제가 있는 자녀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인터넷 이용이 양호한 자녀의 경우 이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62%와 힘들지만 할 수 있다 25%로 나타났으나, 인터넷 이용에 문제가 있는 자녀는 조금 힘들다 68.1%, 힘들다 13%로 자녀 스스로 조절이 힘들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권구영·이혜자(2002)의 연구에 따르면 문제 이용자로 분류된 청소년들은 자신의 인터넷 이용 유형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인터넷 이용 문제에 대한 지각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는 인터넷 이용에 문제가 있을 때 스스로 인터넷 이용을 조절하거나 변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나 부모는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 이러한 경우 부모-자녀는 서로 오해하고 갈등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가 부모-자녀간에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자녀가 갈등적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갈등을 느끼고 있는가의 여부는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을 다룬 연구들을 살펴보면, 한국정보문화센터(1998)는 중·고등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와 빈번한 갈등이 발생(35.9%)했다고 하였으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은 조사대상자의 28.9%가 컴퓨터 사용을 둘러싸고 가족간 갈등이 있었고, 특히 10대 청소년의 경우 46.6%가 컴퓨터로 인해 부모집단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조명옥(2002)의 연구에서도 컴퓨터 이용과 관련해 부모와의 갈등에 대해 34.3%가 아버지와 경험이 있고, 35.7%가 어머니와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고금수(2002)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을 이용할 때 좋지 않은 점으로 시간낭비, 음란물 접촉, 학업방해,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님과의 갈등 경험에 대해서도 그렇다 20.1%, 보통 23.0%, 그렇지 않다 56.9%로 나타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모님과 가족이 인터넷 이용을 우려하고 걱정하여 부모-자녀간 갈등을 경험한 학생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1) 인터넷이용 시간갈등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의 40%는 갈등이 있다고 했으며, 특히, 인터넷 이용 시간이 갈등의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Lenhart, 2001). 한국정보문화센터(1998)의 조사에서도 인터넷 이용시간과 이용시간대는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경향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작용할 만큼 중요하다고 하였다. 황미영(2001)도 인터넷 이용시간(37.8%)으로 인한 갈등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들은 이용 시간을 정해 놓고 이를 지키도록 하거나 또는 학습과 관련되지 않은 인터넷 이용은 억제함으로써 인터넷의 지나친 몰입이나 일탈적 활동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의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대는 밤 9시에서 자정에 이르는 밤 시간대와 새벽 3시에 몰려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홍설화(2006)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이용 시간대에 대해 33.0%가 오후 7시부터 오후 11시에 이용한다고 하였으며 과반수가 넘는 54.6%의 학생이 오후 11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인터넷을 이용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학생층인 청소년들의 경우 생활 조건상 저녁시간 이후야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밤 늦은 시간대의 인터넷 이용은 수면습관의 변화를 가져와 다음날 학교생활을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오락 및 음란물 사이트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아 부모-자녀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 (2) 인터넷이용 사이트갈등

황미영(2001)은 부모들이 이용용도(35.9%)에 대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자녀가 학업 이외의 용도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사회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용도와 관련된 문제로 자녀와 갈등을 겪는다는 것이다.

특히, 부모의 인터넷 인식과 인터넷 이용분야 중 게임에 대한 인식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청소년백서(1990)에 의하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해소법으로 선택한 활동 중 컴퓨터 게임은 4위를 차지했으며, 코리안클릭의 통계자료(2006)에서도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은 92.6%에 달한다고 하였고 야후꾸러기(2006)의 인터넷 사용관련 설문에서도 9만6천명의 어린이들 중 64%가 주로 게임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현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적 도구인 컴퓨터 게임이 청소년들에게는 놀이 활동이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시간낭비활동, 공부에 방해되는 활동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4). 임은미·이숙영(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청소년들이 가족들과 갈등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가 온라인게임이라고 응답하여 컴퓨터 게임과 같은 인터넷 이용 분야가 부모-자녀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 (3) 가족과의 갈등

Kraut et al(1998)와 Saunders, Field, Diego, & Kaplan(2000)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길수록 사람들은 혼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경향이 있

으며, 인터넷의 이용이 많을수록 가족구성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감소하고 사회적 참여정도가 감소하여 가족원간의 소외가 초래되어 가족과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 Nie & Erbring(2000) 또한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시간을 보내거나 공공행사에 참석하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적다고 밝혔다. 박부진·이해영(2000)도 인터넷 이용으로 가족원 각자가 고립되면서 가족간의 대화가 줄었다는 지적을 하였다.

즉, 인터넷의 이용은 대인관계의 형태를 변화시켜 친구관계 및 가족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한다. Norman & Sunshine(2002)은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사회적 활동 시간 뿐만 아니라 친구 및 가족과 보내는 시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남현주(1996)도 인터넷 이용이 가까운 친구 및 가족간의 대화를 부족하게 만들며 부모와 자녀간의 오해와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부모-자녀간 갈등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부모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불충분한 기초지식 및 사용경험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컴퓨터 세대가 아닌 부모들은 자녀들에 비해 인터넷 이용경험이 크게 부족하고 이러한 경험부족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방임 또는 지나친 감독이나 통제로 인한 부작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이시형, 2004; 임은미·이숙영, 2002; 조명옥, 2002; 정혜정, 2004). 즉 인터넷 활용능력에서의 세대간 차이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도록 만드는데 기여하며, 부모의 감독과 통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Lenhart, 2001). 뿐만 아니라 부모의 인터넷 이용 경험과 함께 인터넷을 어느 정도 이용할 줄 알면 자녀가 인터넷을 통해 어떤 사이트에 접속했는지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등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 여부는 자녀들의 인터넷 활동 관리에 있어서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자녀는 부모가 인터넷을 잘 이용하지 못하며 자신의 인터넷 이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인터넷을 더 중독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한다(청소년보호위원회, 2000). 부모의 인터넷 이용이 가족관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써, 부모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대화가 풍부해지며 특히 어머니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족간의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박부진·이해영, 2000). 실제로 부모와 e-mail을 교환하는 청소년의 경우 학습시간이 줄었다는 19.5%, 늘었

다는 23.7%인 반면 e-mail을 교환하지 않는 청소년은 학습시간이 줄었다 27.7%, 늘었다 12.2%로 나타났으며, 부모들이 인터넷에 관한 새로운 정보(프로그램, 유익한 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이세용, 2000). 그러므로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이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요인이며 부모-자녀간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 (4) 자녀의 변화에 대한 갈등

인터넷을 자주 하거나 과다하게 이용하는 청소년일수록 공부 방해, 건강의 상실, 부모와의 갈등을 경험한다고 보고하며(서순미, 2002; 이현아, 2004), 가족, 친구들과의 대화 및 학업 수행에 있어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현실세계와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다.

우선 청소년의 밤늦은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수면시간의 감소는 청소년의 생활패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다음날의 학업을 준비해야 할 청소년들이 밤시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수면부족 및 학업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부모-자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터넷 중독 성향에 따른 생활습관의 변화를 인터넷 중독 이후 또는 1년 전과의 생활습관의 차이를 비교한 김영신(2004)의 연구에 따르면 운동시간이 적을수록 인터넷 중독 경향이 있으며, 인터넷 비중독자의 16.3%, 인터넷 중독자의 41.9%가 불규칙적인 수면을 하고 있어 인터넷 중독자일수록 불규칙적인 수면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부정적인 생활습관의 변화는 인터넷 중독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또한 Young(1996)은 인터넷중독자들은 가까운 친구관계에서부터 심지어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대인관계에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 인터넷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는 하지만 도리어 이것이 사회활동을 대치함으로써, 사회적 참여를 감소시켜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를 'Internet Paradox'라고 표현하였다(Kraut, Patterson, Lundmark, Kiesler, Mukopadhyay & Scherlis, 1998).

자녀가 인터넷에 몰입하여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성적이 떨어지며, 다양한 취미활동에 관심이 줄고, 가족과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인터넷에 관해

물어보면 화를 내고 적대시하는 반향이 나타나면서 부모와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

#### (5) 자녀의 인터넷 언어사용갈등

국립국어연구원은 2005년 한 해 동안 주요 중앙 일간지와 방송 뉴스에서 사용된 신어를 조사하여 ‘2005년 신어’ 보고서를 내놓았다. 새로 만들어진 말과 최근에 조사된 신어를 중심으로 결과를 수록하였다. 이미 조사된 신어는 2002년 187개, 2003년 341개, 2004년 344개, 2005년 408개이다. 그 중 블로그(web + log), 싸이질, 귀차니즘, 폐인, 얼짱, 몸짱, 개똥녀 등 통신언어들이 매스미디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2001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B4(Bbefore), HAND(Have A Nice Day) 등의 줄임말과 이모티콘을 정식으로 포함시킨 개정판을 발간했다. 이처럼 인터넷 언어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깊숙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 영향력이 크다.

이처럼 언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를 반영하여 변화하게 된다. 인터넷 언어는 사이버상에서 편리하고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고 신세대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 뿐만 아니라 기존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자기들끼리만의 의사소통을 위해 이용한다고 하였다. 박동근(2001)은 인터넷 언어는 넓은 의미로 의사소통을 위해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모든 문자 언어로 정의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현재 막강한 인터넷 매체의 위력을 등에 업고 자신들만의 인터넷 언어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말을 쓰지 않으면 그 공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야 만다. 실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호영(2004)의 연구에 따르면 63%가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여 이미 보편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광선(2005)은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대해 이모티콘을 21.3%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문장부호 반복 사용 17.2%, 의성어·의태어·감탄사 사용 17%, 음운변화 13.6%, 축약과 생략 8.2%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 언어 사용은 청소년들의 문법 의식 약화, 일상생활에 인터넷 언어의 무분별한 확산, 인터넷상에서 언어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특

정 집단에서만 사용하게 되면서 위화감 조성 및 세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청소년들이 인터넷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게 되면서 인터넷 언어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기가 쉬운 부모와 대화 단절 등 부모-자녀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 4. 관련변수들에 대한 선행연구의 고찰

가정의 인터넷문화 형성을 위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과 관련한 직접적인 선행연구가 없으므로 이와 관련된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이용실태 및 인터넷 중독에 관련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자 한다.

##### 1) 개인관련 변인

먼저 개인적 특성에서 성별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컴퓨터와 관련한 태도에서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정적이라고 하였다(Whitley, 1997). 이러한 컴퓨터 관련 태도가 부모와의 갈등과 관련한 요인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와의 갈등을 더 심각하게 지각한다고 하였다. 특히, 이성교제와 경제적인 문제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박희경, 2004),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 관련 비행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와 갈등을 겪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민오, 2000; Kandell, 1998). 임은미·이은숙(2002)의 조사에 의하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함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꾸중을 듣는 청소년의 비율이 50.4%였고 그중 남자청소년이 62.2%로 여자청소년 38.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부모와의 갈등 이외에 남녀학생은 인터넷 이용의 문제점 인식에서도 차이를 나타냈다(임정민, 2002). 남학생의 38.6%, 음란물 접촉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는 반면 여학생은 46.2%가 사생활 침해를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연령에 따라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의 간섭을 덜 받고 있으며 연령이 낮은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의 간섭이 많아 게임시간의 한정이나 무조건 금지를 받는 등 문제 행동을 일으키기 힘든 경향이 있다(김명선, 2002). 따라서 저학년 집단에 비해 고학년 집단의 경우 인터넷 관련 비행 수준이 높을 수 있다. 반면 인터넷을 통한 PC통신이나 게임의 중독적 사용은 성인보다 사용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연구(Brenner, 1997)도 있어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에서 성별과 연령이외에 학교성적 또한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안은경(200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들은 인터넷 이용이 양호한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를 비교했을 때 인터넷 이용이 양호한 자녀들의 성적이 그렇지 못한 자녀들의 성적보다 높은 것으로 지각했다. 허정미(2004)는 초등학생의 PC방 이용정도에 따른 학교성적을 조사한 결과 ‘중’과 ‘하’ 집단이 ‘상’ 집단에 비해 자주 이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정민(2002)도 성적이 낮은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좀 더 많다고 하였다. 조춘범(2001)은 학교성적에 따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차이가 나타나는데 성적이 ‘상’인 수준의 청소년들이 ‘중’과 ‘하’인 청소년들보다 비중독자의 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즉, 상위권성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보다 중하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 아버지, 어머니와의 갈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박희경(2004)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 2) 가정관련 변인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이외에 부모의 특성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같은 가정환경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먼저 부모님의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부모님은 가정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는 아버지에 비해 자녀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여가활동을 함께하고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활동, 자녀의 고민 들어주기, 가정내에서의 자녀의 책임, 학업활동, 예절문제 그리고 여가시간활용 등의

문제에 더 많이 관여하고 있다. 이처럼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간의 관계 특징은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간보다 긴장과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양돈규, 1997).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도 주 감독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머니가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무조건 통제를 하거나 방임하게 되면서 부모-자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은 가정의 정보화 기기 보급, 인터넷 이용률과 가정의 생활수준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허윤정(2004)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가정의 인터넷 도입과정에 영향을 미치며 자녀의 인터넷 이용기간 및 이용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가 인터넷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많다고 하였다. 또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어머니보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박희경(2004)과 양성순(2003)은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이나 직업이 없을수록 청소년들이 아버지와 의 갈등을 높게 인식한다고 했고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자녀가 가족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갈등이 낮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춘범(2001)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직업 중 아버지의 직업은 청소년 자녀의 인터넷 중독에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였으나, 어머니 직업이 화이트칼라인 경우가 블루칼라인 경우보다 인터넷 비중독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자녀인 청소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또한 어머니의 직업이 화이트칼라인 경우 사회적 지위가 높아 인터넷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인터넷 이용에 대한 통제와 올바른 이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조성연(2003)의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청소년 자녀들이 비취업모 자녀들에 비해 인터넷 사용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성순(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이 없는 경우에 비해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어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감독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모의 직업이 일관된 결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있어 영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이용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정이나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아 경제적으로 부유하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상위계층은 정보혁명의 과정에서 풍부한 온라인 자료나 기술을 이용하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경우 그저 오락적 기능이나 단순한 시간 때우기용(Digital couch potato)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Bonfadelli, 2002). 즉,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는 동기나 그 이용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허윤정, 2004). 그러나 경제적 수준에서도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인터넷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이세용, 2000)와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을수록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한(홍경희, 2002) 상반된 연구결과가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계의 경제 수준에 따라서는 경제적 수준이 하인 집단의 비율은 컴퓨터 게임 과다사용집단이 8.7%로 정상집단 3.4%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임성재, 2003). 이는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컴퓨터 게임을 함께 하는 등 부모와의 접촉 빈도가 높다는 신상우(2001)의 연구결과로 볼 때 경제적 수준을 '하'로 인식하는 자녀의 가정은 경제적 문제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적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어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적절한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이 경제적 수준이 낮다고 인식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사교육을 받는 또래 친구들과 달리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컴퓨터를 더 오랜 시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부모의 개인적 특성 및 가정의 경제적 특성 이외에도 부모의 인터넷 이용능력 여부가 자녀들의 인터넷 활동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 박부진(2000)은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가족 관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인이 부모의 인터넷 이용 능력정도라고 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 가운데 인터넷 이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45.3%, 어머니는 32.5%, 부모 모두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24.5%, 부모 모두가 인터넷 이용능력이 없는 경우는 46.7%로 여전히 인터넷 이용에 무지한 부모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임정민(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인터넷을 아주 잘한다는 5.3%에 불과하였으며, 미숙하다 31.9%, 필요한 정보는 찾으신다 22.3%, 컴맹이다 21.1%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영란(2003)의 연구에서는 아버지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경우가 60.1%로 많았으며 어머니는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다가 51.7%로 나타났다. 부모의 인터넷 이용 능력과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본 김미경(2002)은 부모 모두가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 인터넷 중독의 정도가 가장 낮았고 아버지만 사용할 경우 중독의 정도가 높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여 어머니가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아느냐가 자녀의 컴퓨터 게임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임성재 재인용, 2003).

조명옥(2002) 또한 어머니의 컴퓨터 이용능력에 따라 어머니가 컴퓨터 및 인터넷을 제대로 이용할 줄 모를수록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춘범(2001)은 많은 부모들은 인터넷을 이용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자녀들을 무방비 상태로 인터넷에 노출시키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부모의 방치로 청소년들은 인터넷에 몰입하게 되고 결국 인터넷 중독상태에 이르게 되면 부모-자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모가 컴퓨터를 다룰 수 있을 때 자녀와 컴퓨터 게임을 같이 한다는 24.1%였으나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자녀와 게임을 같이 한다는 6.9%로 큰 차이가 있었다(송원임, 2001). 즉, 부모의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경우 대화가 풍부해지고 가족간의 유대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부모가 인터넷 이용능력이 없는 경우 부모와 자식간의 인터넷 이용 지식의 차, 대화의 단절 등으로 부모-자녀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부모-자녀간 갈등에 인터넷 이용관련 변인도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전국 초·중·고 남녀 1,9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의 연구에 따르면 인터넷 이용장소 중 가정이 90.3%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터넷 이용장소로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가정의 컴퓨터 설치장소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가족내의 컴퓨터를 주로 혼자 이용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인터넷중독의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숙, 2000; 김혜원, 2001).

컴퓨터게임 과다사용 정도와 컴퓨터설치 장소에 대하여 살펴본 임성재(2003)



의 연구에 의하면 정상집단은 56.0%가 거실, 부모님 방 혹은 형제·자매방 등 본인 방이 아닌 기타 장소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반면 컴퓨터 게임과다 사용집단은 54.4%가 본인방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볼 때 가족의 통제가 없고 컴퓨터를 독점하는 경우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은 그 위험도가 높다고 하겠다.

#### 4)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부모감독 및 부모태도는 인터넷 중독 및 부모-자녀간 갈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부모의 감독과 관련한 Turow(1999)의 연구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규칙을 더 많이 정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문 사이트(84%), 온라인에 접속하는 시간(84%), 온라인에서의 활동 종류(78%), 어른과 함께 온라인에 접속하기(73%) 순으로 감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nhart(2001)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61%가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의 접속 사이트를 검토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보호위원회(2000)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님이 응접실에 컴퓨터를 설치하였다' 28.2%, '컴퓨터를 사용하면 수시로 들여다보신다' 33.1%, '시간을 정해놓고 인터넷을 이용하게 한다' 24.4%로 나타났다.

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시형의 연구(2004)에서도 부모님의 감독 및 통제로 온라인 게임을 못하도록 하는 가정 16.4%, 채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가정 21.9%,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터넷 이용을 금하는 가정 23.1%, 자녀의 PC방 출입을 제한하는 가정 27.9%로 나타났다. 자녀의 컴퓨터 이용시간과 e-mail, 채팅, 게임 이용시간 및 몰입정도는 부모가 자녀의 컴퓨터 사용을 통제·감독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 이용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통제나 감독은 자녀의 컴퓨터 중독이나 몰입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임은미·이숙영, 2002). 그러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이용 통제에 관한 연구는 상반된 응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인터넷 사용시간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61%), 자녀가 방문한 웹사이트를 종종 검사하고(61%),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잠깐씩이라도 함께 앉아 있다(68%)고 응답하였으나, 대부



분의 10대들은 인터넷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다고 답하거나 부모의 감독, 통제 행동이 있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나타나지 않았다(Lenhart, 2001). 송원임(2001)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시간을 정해준다가 49.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부모통제 대한 부모-자녀간의 인식차는 부모-자녀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통제적인 태도 뿐만 아니라 Schaefer(1965)의 태도유형에 따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성운숙(2000)은 부모의 태도가 모범적·방임적 일 때, 컴퓨터나 인터넷 게임을 시작한 후 부모자녀관계가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는 모범적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컴퓨터나 인터넷 게임을 직접 지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홍경희(2001)는 부모의 신뢰정도가 높을수록 자녀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줄어들고 인터넷 중독의 가능성도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은아(2000)는 부모가 지나친 폐쇄성, 방임성, 통제성, 보호성 등의 심리적 특성으로 양육하는 가정은 청소년 부적응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태도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문제행동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조성연(2003)은 부모의 태도가 애정·자율일 때보다 거부·통제일 때 청소년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이 길어진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넷 이용에 있어 부모태도는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생활시간의 변화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에 변화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가 부모-자녀간 갈등의 원인이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Brenner, 1997). 자녀들의 생활시간 변화를 살펴보면, 다른 생활시간에 비해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TV시청 시간은 인터넷 이용자가 주평균 14.2시간, 인터넷 비이용자가 20.6시간으로 인터넷 이용자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종원·백옥인, 1998; 한국인터넷정보센터, 2002).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허정미(2004)의 연구에서는 37.9%가 TV시청 시간이 감소하였다고 하였다.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황미영(2001)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서 TV시청, 만화책보기와 같은 기존 청소년 문화를 대변하고 있던 매체 이용시간의 감소(50.3%)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이용 전과 후를 비교해볼 때 혼자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은 늘고(80.9%), TV시청 시간은 줄었다고(66%) 하였다(이해

영·박부진, 2000). 과거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을 때 소요되었던 시간과의 차이를 통해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이 감소를 보인 것은 TV시청 시간(50.0%)과 수면시간(46.9%)으로 두 영역에서 절반에 가깝게 감소경향을 보였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0b).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기존 매체인 TV시청 시간의 감소는 인터넷을 게임, 채팅 등의 오락 용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으며,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여가활용을 위한 도구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raut et al(1998)는 인터넷을 이용한지 1-2년 된 1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인터넷의 이용이 많을수록 가족과의 대화나 사회 참여가 줄었다고 보고했으며, Stanford 대학의 계량사회학연구소(SIQSS, 2000)는 일주일에 5시간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응답자 중 13%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줄었고, 26%는 가족이나 친구와 전화로 대화하는 시간이 줄었다고 할 정도로 인터넷 이용 후 가족 및 친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34%는 독서시간이 감소하였다고 했으며, 59%는 TV 시청 시간이 줄었다고 하는 등 전통적 매체에 소비하는 시간이 인터넷 이용으로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재민(1998)의 연구에서는 PC통신 이용 후 가족과의 대화시간 변화에 대해 변화 없다 63.5%, 줄었다 16.3%, 원래 대화를 하지 않는다 13.5%, 더 늘었다 6.7%로 나타났다. PC통신 이용이 가족과의 관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청소년의 PC통신 이용이 늘어날 경우,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가족과 함께 통신에서 느낀 점 등을 이야기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대학생들도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가족이나 친구와 보내는 시간이 줄었다고 39.5%가 동의하고, 가족간 대화가 늘었다는 9.7%에 불과하다고 하였다(이혜영·박부진, 2000). 20대 이상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김승권(2002)의 조사에서는 인터넷 이용 후 '부모-자녀간에 각자 자신만의 시간과 영역이 늘었다'에 대해 46.0%가 그렇다고 답해 부모-자녀간의 대화시간 감소와 그에 따른 유대관계의 약화 등으로 부모-자녀간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하였다.

그 외에 수면시간 감소(34.5%) 등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황미영(2001)). 특히,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가 47.5%, 눈, 손목, 어깨가 걸리는 경우 44.7%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오랜 시간 인터넷을 이

용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수면시간이 줄었다는 28.2%로 나타났으나, 자녀의 경우는 35.4%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하종원·백옥인(1998)의 연구에서도 수면시간(39.6%)도 줄어든 것으로 응답했다.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불만족을 조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컴퓨터 이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와의 갈등이 19.6%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과의 대화가 줄어들었다’가 12.2%로 나타났다(차성란 외 2인, 2003). 황미영(2001)도 청소년들은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부모와의 빈번한 갈등 발생(35.9%) 등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대화의 광장(1998)은 전국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대학생 2,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7%가 PC통신 때문에 주위사람들과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이들은 주로 부모님(69.1%), 형제자매(17.1%), 친구(8.9%)와 마찰을 일으켰으며, 갈등의 주된 원인은 지나친 간섭(53.3%)과 장시간 인터넷 이용(17.6%)이었다. 중·고등학생의 인터넷 이용으로 부모님께 꾸지람을 들은 경험이 있다가 70.6%, 없다가 29.4%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하기 때문에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일, 2002). 김승권(2002)의 연구에서는 갈등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가 28.9%로 나타났으며, 이는 장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다른 가족원에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다른 가족원의 컴퓨터 이용을 제한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즉,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의 갈등은 대체로 있는 편이며, 이러한 갈등은 가족과의 대화시간 감소, 생활의 변화 등과 같이 부모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측면의 증가 때문으로 사료된다.

###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1. 연구모델

이 연구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적 변인, 가정관련 변인,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및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이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가정의 인터넷 문화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이 연구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델을 설정하였다.

모델 1 :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모델 1-1 :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이 인식한 부모의 감독 정도  
= f (개인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모델 1-2 :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이 인식한 부모의 태도 유형  
= f (개인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모델 1-3 :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이 인식한 인터넷 이용에 따른 자녀의 생활 변화 정도

= f (개인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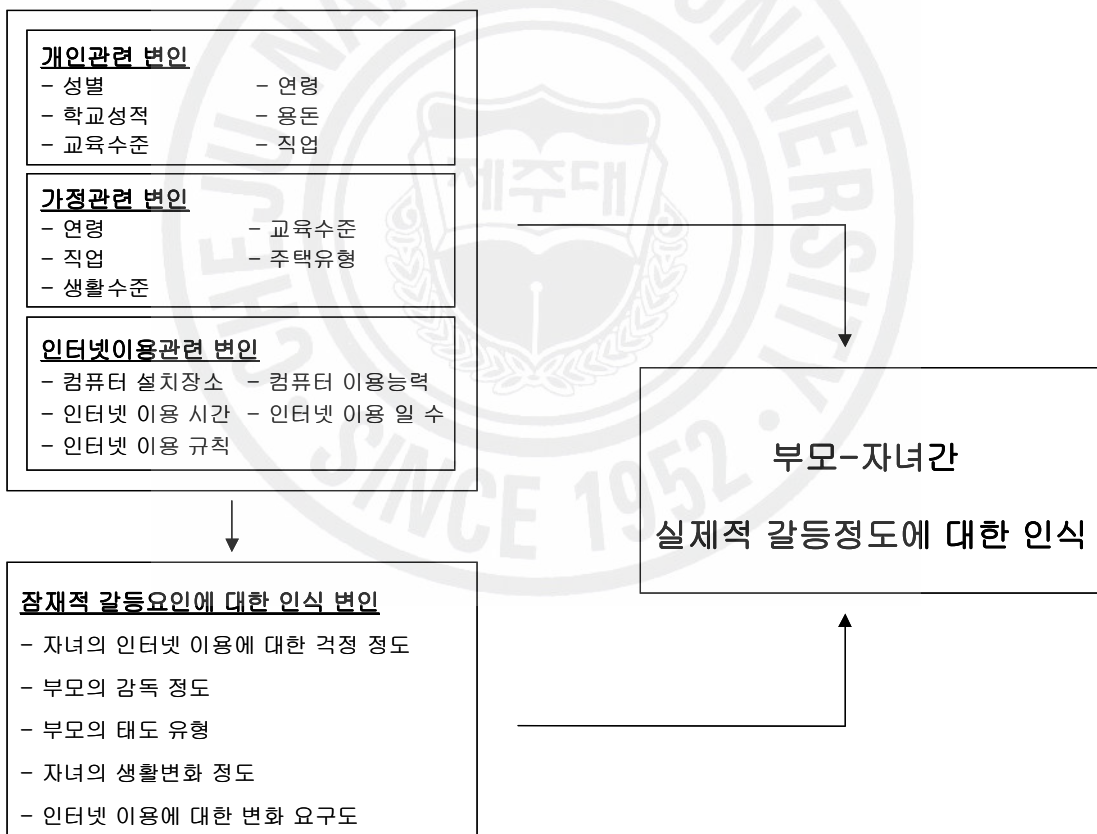
모델 1-4 :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이 인식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 f (개인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모델 2 :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모델 2-1 : 자녀집단이 인식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 f (개인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

모델 2-2 : 부모집단이 인식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 f (개인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

연구모델을 바탕으로 한 연구모형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연구모형



## 2. 척도의 구성

### 1) 종속변인

종속변인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 시 부모-자녀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분야들로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 사이트, 부모의 감독 및 규제, 자녀의 신체 및 생활변화, 인터넷 언어 사용 등 선행연구(권재환, 2005; 김도형, 2003; 김명애, 2002; 남현주, 1996; 박해정, 2003; 정진태, 2003; 조춘범, 2001; 황미영, 2001; 허정미, 2004; Turow, 1999)를 바탕으로 하여 11문항으로 구성하였고, 11문항 중 부모-자녀간 갈등이 한번이라도 있는 경우는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4>와 같다.

<표4>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변인

영역	내용	Cronbach $\alpha$ 값 (자녀집단/부모집단)
인터넷이용 시간갈등	· 인터넷 이용 시간 및 시간대에 관한 갈등	0.648 / 0.5358
인터넷이용 사이트갈등*	· 인터넷 이용 사이트에 관한 갈등	-
가족과의 갈등	· 부모 및 가족원과의 갈등(부모감독, 규칙, 대화시간 감소)	0.7367 / 0.7833
자녀의 변화에 대한 갈등	·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신체·생활·행동 변화에 관한 갈등	0.6953 / 0.7543
자녀의 언어사용갈등*	· 인터넷 언어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것에 관한 갈등	-
전체	· 전체적인 실제적 갈등정도	0.853 / 0.884

\* 는 한 문항으로 Cronbach  $\alpha$  값을 측정할 수 없음.

## 2) 독립변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관련 독립변인들은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개인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연구모델의 설명변인은 비교를 위해 동일한 변인들을 고려하였다.

### (1) 개인관련 변인

개인관련 변인에는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 연령과 함께 학교 성적, 개인 용돈을 포함하였으며, 학교성적은 자녀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학교성적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또한 부모집단의 경우는 자신의 인터넷 이용 및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본인의 교육수준과 직업변인을 고려하였다.

### (2) 가정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에는 자녀집단의 경우 부모의 일반적 특성인 부모의 연령, 교육수준, 직업을 선택하였다. 이때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자녀를 주로 감독하기 쉬운 어머니의 변인으로 직업유무를 포함하였고, 가계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는 생활수준과 주택유형 변인을 선택하였다. 이때 생활수준은 조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생활수준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부모집단의 경우는 배우자 관련 특성 이외에 자녀 용돈의 문항을 고려하였다.

### (3)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는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일 수 등 개인의 인터넷이용 특성과 함께 컴퓨터 설치장소, 인터넷 이용 규칙 유무 등 가정의 인터넷이용 특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부모집단의 경우 부모자신의 컴퓨터 이용 능력을 고려하였다.

### (4)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

마지막으로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에는 부모의 감독 정도, 부모의

태도 유형,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를 하위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걱정 정도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5>와 같다.

<표5>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

영역	구체적 내용	Cronbach $\alpha$ 값 및 누적분산값(%) (자녀집단/부모집단)
부모의 감독정도	·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감독하거나 통제하는 정도 - 인터넷 이용시간 감독 - 인터넷 이용시간대 감독 - 인터넷 이용사이트 감독 - 인터넷 이용장소 감독 - 인터넷 접촉대상 감독	0.789 / 0.838
부모의 태도 유형	·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 방임형, - 민주형, - 권위형	58.610% / 59.659%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 자녀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 - 긍정적 생활요인의 변화 - 부정적 생활요인의 변화	50.644% / 44.165%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요구도	· 인터넷을 건전하게 이용하도록 변화하려는 요구도 - 인터넷이용시간 변화요구도 - 인터넷이용사이트 변화요구도 - 가족과의 갈등 변화요구도 - 자녀의 변화에 대한 변화요구도 - 자녀의 언어사용 변화요구도	0.9849 / 0.9842

부모의 감독 정도는 5개의 하위영역에 대해 단일 문항으로 질문하였다. 부모의 태도 유형은 Baumrind(1991)와 Schaefer(1965)의 양육태도 유형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 맞도록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9문항으로 설문구성하고 배리맥스(varimax) 직각 회전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 한 결과 방임형, 민주형, 권위형으로 구분하였다. 각 요인의 요인적재량 값은 0.9 이상이었다.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는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가장 변화하기 쉬운 생활시간과 활동들을 고려하여 10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배리맥스(varimax) 직각 회전방법을 이용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긍정적 생활요인의 변화와 부정적 생활요인의 변화로 구분하였다. 이때 각 요인의 요인적재량 값은 0.9 이상이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는 5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누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구체적인 변인의 정의 및 측정방법은 <표6>과 같다.

<표6> 변인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인	정의 및 측정방법
<b>종속변인</b>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에 대한 인식 - 인터넷이용 시간갈등(2) - 인터넷이용 사이트갈등(1) - 가족과의 갈등(4) - 자녀의 변화에 대한 갈등(3) - 자녀의 언어사용갈등(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 1=있음 0=없음
<b>개인관련 변인</b> 성 별 연 령 학교성적** 본인교육수준* 본인의 직업* 형제수(자녀수) 월평균 용돈(자녀용돈)	1=남성 0=여성 세 1=상위권 2=중위권 3=하위권 1=고졸이하 0=전문대졸이상 1=전문.사무직 2=판매.서비스직 3=기타 명 월평균 개인 용돈(자녀의 월평균 용돈)(원)
<b>가족관련 변인</b> 부연령(배우자연령) 부교육수준(배우자교육수준) 모의 직업(배우자직업) 주택유형 생활수준	1=42세이하 0=43세이상 1=고졸이하 0=전문대졸이상 1=관리.사무직 2=판매.서비스직 3=기타 1=단독 0=기타 1=하 2=중 3=상
<b>인터넷이용관련 변인</b> 컴퓨터 설치 장소 컴퓨터 이용 능력*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일 수 인터넷 이용 규칙(6)	1=본인방(자녀방) 0=기타 본인의 컴퓨터 이용능력 1=하 3=중 5=상 1일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분) 일주일 평균 인터넷 이용 일 수(일) 1=있음 0=없음
<b>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b>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걱정 정도(9)* 부모의 감독 정도(5) 부모의 태도 유형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10)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걱정되는 정도***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정도*** 1=방임형(2) 2=민주형(3) 3=권위형(4) 인터넷 이용에 따른 자녀의 생활의 변화정도*** 1=있음 0=없음

( )안의 숫자는 문항수임

\* : 부모세대 응답유형

\*\* : 자녀세대 응답유형

\*\*\* : 1: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5: 정말 그렇다

### 3.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자는 청소년인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으로 구분된다. 우선 자녀집단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에서부터 중학생까지로 청소년 자녀집단의 대상을 한정하고 부모집단은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아직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성인 이전의 단계를 의미하며 학령적으로는 주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로 한정짓고 있으나 초등학교 고학년-5,6학년-의 경우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한 초보적인 지식이 이미 형성되어 있으며, TV보다 인터넷에 더 재미를 느끼고 인터넷 구매욕구, 채팅의 생활화, 컴퓨터 게임의 이용 증가 등이 나타나는 시기이기 때문에(서화신, 2003; Tapscott, 1998) 조사대상에 포함하였다. 반면 2000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도 컴퓨터 관련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컴퓨터 이용률은 높아졌으나, 초등학교 저학년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컴퓨터 이용에 있어 자기 통제가 어렵고 부모들의 통제와 감독을 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입시 위주의 학교생활로 인해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힘들 것으로 보아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제주도의 지역적 조건을 고려하여 PC방 보급률이 높고 초고속 인터넷 이용이 비교적 용이하고 정보화 지수가 높은 제주시 지역(제주의 소리, 2005)으로 한정하여 비확률표본추출 방법으로 유의표집 하였다. 이때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각각 300명을 남학생과 여학생을 동률로 선정하여 설문 조사하였다. 부모집단은 아버지, 어머니 각각 250명씩 500명을 확률표본추출 방법으로 단순 무작위 표집하여 조사하였다.

2005년 3월 2일에서 8일까지 자녀집단과 부모집단 각각 3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였고, 2005년 3월 28일에서 4월 9일까지 직접 학교들을 방문하여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녀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600부, 부모집단을 대상으로 500부 총 1,100부 배포하여 회수하였



고, 부실응답 등 적합하지 않은 조사대상자를 제외한 자녀집단 566부, 부모집단 463부 총 1,02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 4. 분석방법

자료의 분석방법은 PC SAS Program(Ver 9.1)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적 변인,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잠재적 갈등요인관련 변인 등 일반적인 경향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을 통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문항간의 내적 일치도를 파악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산출하거나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련 변수들에 따른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연속형 변인인 부모의 감독 정도와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는 t-test와 ANOVA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범주형 변인인 부모의 태도 유형과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는 교차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여 분석을 하였다.

또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갈등 존재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이항변인이므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2문항 이상으로 구성된 문항들은 내용에 따라 역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계산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개인관련 특성과 인터넷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개인관련 특성

자녀집단의 개인관련 특성은 <표7>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학생 48.6%, 여학생 51.4%로 여학생이 약간 많았다. 연령은 13세 이하와 14세 이상으로 나누어 교육수준과 범주가 같았고 초등학생 48.8%, 중학생 51.2%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14.5세였다. 학교성적은 상위권 37.3%, 중위권 29.1%, 하위권 33.6%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용돈은 약 2만원 정도였다.

자녀집단의 가정관련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버지의 연령은 40세 이하 14.3%, 41-45세 50.9%, 46세 이상 34.8%였고, 평균 연령은 44.4세였다. 어머니 연령은 40세 이하 37.3%, 41-45세 46.1%, 46세 이상은 16.6%였으며, 평균 연령은 42.0세로 나타났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각 51.6%, 64.5%로 고졸이하가 전문대졸 이상보다 높았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아버지의 교육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은 관리·사무직 45.2%, 판매·서비스직 42.6%, 기타직 12.2%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직업은 있는 경우 56.5%, 없는 경우 43.5%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직업이 있는 경우가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형제 수는 본인을 포함하여 2명 이하가 63.4%, 3명 이상이 36.6%이며, 평균 2.4명으로 나타났다.

<표7> 자녀집단의 개인관련 특성(N=566)

범주형 변인		빈도	백분율(%)
<b>개인관련 변인</b>			
본인성별	남	275	48.6
	여	291	51.4
본인연령	13세 이하	276	48.8
	14세 이상	290	51.2
본인 교육수준	초등학생	276	48.8
	중학생	290	51.2
학교 성적	상위권	211	37.3
	중위권	165	29.1
	하위권	190	33.6
<b>가정관련 변인</b>			
아버지연령	40세 이하	81	14.3
	41-45세	288	50.9
	46세 이상	197	34.8
어머니연령	40세 이하	211	37.3
	41-45세	261	46.1
	46세 이상	94	16.6
아버지교육수준	고졸 이하	292	51.6
	전문대졸 이상	274	48.4
어머니교육수준	고졸 이하	366	64.5
	전문대졸 이상	200	35.5
아버지 직업	관리·사무직	256	45.2
	판매·서비스직	241	45.6
	기타	69	12.2
어머니직업	있음	320	56.5
	없음	246	43.5
형제 수(본인 포함)	2명 이하	359	63.4
	3명 이상	207	36.6
주택유형	단독	201	35.5
	기타	365	64.5
생활수준	상	202	35.7
	중	280	49.5
	하	84	14.8
<b>연속형 변인</b>		<b>평균</b>	<b>표준편차</b>
본인 연령(세)		14.5	1.5
월평균 용돈(원)		20612.7	17082.3
형제 수(명)		2.4	0.8
아버지 연령(세)		44.4	3.8
어머니 연령(세)		42.0	3.7
생활수준(1-10점)		5.5	1.5

주택유형은 단독 35.5% 기타 64.5%로 나타나 단독주택보다 집합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많았다. 자녀집단이 지각하는 가정의 생활수준은 상집단 35.7%,

중집단 49.5%, 하집단 14.8%로 85% 정도가 중집단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특성은 <표8>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아버지) 48.4%, 여성(어머니) 51.6%로 여성이 약간 많았다. 본인의 연령은 40세 이하 34.1%, 41-45세 39.3%, 46세 이상 26.6%로 나타났으며 평균 연령은 42.8세였다. 배우자의 연령은 40세 이하 37.6%, 41-45세 24.4%, 46세 이상은 38.0%였으며 평균 연령은 42.6세로 나타나 연령의 분포는 비교적 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49.7%, 전문대졸 이상 50.3%로 전문대졸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배우자 교육수준은 고졸이하 47.5%, 전문대졸 이상은 52.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직업은 관리·사무직 36.5%, 판매·서비스직 35.0%, 기타직 28.5%였고, 배우자 직업은 관리·사무직 34.6%, 판매·서비스직 30.8%, 기타가 34.6%로 직업군이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다.

자녀수는 2명 이하 74.1%, 3명 이상 25.9%로 나타났으며 평균 자녀수는 2.1명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월평균 용돈은 약 2만8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관심정도는 3.1점으로 보통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를 위한 희생은 가치 있는 일’ 2.3점으로 그렇다고 생각하며,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함으로써 기쁨을 느낄 수 있다’와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이나 애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 자녀뿐이다’가 각 2.7점으로 나타났다.

주택유형은 단독 47.3%, 기타 52.7%로 기타인 집합주택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지각하는 가정의 생활수준은 상집단 25.7% 중집단 54.2%, 하집단 20.1%로 나타났으며, 평균 생활수준도 5.1수준으로 과반수 이상이 중집단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계소득은 약 31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가계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가계생활비는 약 18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8>부모집단의 개인관련 특성(N=463)

범주형 변인		빈도	백분율(%)
<b>개인관련 변인</b>			
본인성별	남	224	48.4
	여	239	51.6
본인연령	40세 이하	158	34.1
	41-45세	182	39.9
	46세 이상	123	26.6
본인교육수준	고졸 이하	230	49.7
	전문대졸 이상	233	50.3
본인 직업	관리·사무직	169	36.5
	판매·서비스직	162	35.0
	기타	132	28.5
<b>가정관련 변인</b>			
배우자연령	40세 이하	174	37.6
	41-45세	113	34.4
	46세 이상	176	38.0
배우자교육수준	고졸 이하	220	47.5
	전문대졸 이상	243	52.5
배우자직업	관리·사무직	160	34.6
	판매·서비스직	143	30.8
	기타	160	34.6
자녀수	2명 이하	343	74.1
	3명 이상	120	25.9
주택유형	단독	219	47.3
	기타	244	52.7
생활수준	상	119	25.7
	중	251	54.2
	하	93	20.1
<b>연속형 변인</b>		<b>평균</b>	<b>표준편차</b>
본인 연령(세)		42.8	4.8
배우자 연령(세)		42.6	4.7
자녀수(명)		2.1	0.8
자녀의 월평균 용돈(원)		27980.6	18383.7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		3.1	0.5
생활수준(1-10점)		5.1	1.3
월평균 가계소득(만원)		310.5	158.6
월평균 가계생활비(만원)		180.4	87.8

2) 인터넷관련 특성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9>와 같다. 인터넷 이용 장소는 자신의 집 91.3%, PC방 5.5%, 기타 3.2%로 대부분의 자녀집단



이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화신(2003)과 정재민(1999)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써 광통신망 개발로 인해 가정에서도 빠른 속도의 인터넷을 월 일정액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자녀집단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가 이용 장소를 제한하여 자기 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컴퓨터 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컴퓨터 설치 장소에 대해 자녀집단의 경우 본인방 34.8%, 거실 32.2%, 기타 33.0%(다른 형제방, 15.0%, 부모님방 9.0% 등)로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자녀방 41.9%, 거실 39.1%, 기타 19.0%(부모님방 9.9%, 다른 형제자매방 6.7%)로 나타나 두 집단간의 비율의 차이는 있으나 본인방(자녀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거실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집에서의 컴퓨터 설치 장소와 관련한 이세형(2004)·서화신(2003)·홍경희(2001)의 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때 컴퓨터가 가족공동의 공간보다 자기방(자녀방)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자녀집단이 개인공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컴퓨터 이용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도가 요청된다.

가정의 인터넷 이용 규칙에 대해 자녀집단의 경우 있음 77.7%, 없음 22.3%로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규칙이 있음 80.8%, 없음 19.2%로 나타나 대부분의 가정에서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규칙이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집단의 연령이 어릴수록 규칙을 더 많이 정해주며, 방문사이트 및 온라인 접속 시간에 대해 84%의 부모가 규칙이 있는 것으로 밝힌 Turow(1999)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과 관련한 교육을 받을 의사가 있는가에 대해 자녀집단의 경우 있다 60.6%, 없다 39.4%로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있다 83.4%, 없다 16.6%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 관련 교육을 받을 의사는 부모집단이 자녀집단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자녀집단의 경우 처음 인터넷을 이용한 시기는 9.9세로 약 10세 정도인 초등학교 3학년으로 볼 수 있었다. 인터넷은 일주일 평균 5일 정도 이용하고 1일 인터넷 이용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부모집단이 인식하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약 2시간으로 나타나 자녀집단이 인식한 인터넷 이용시간과 부모집단이 인식한 인터넷 이용시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해 조사한 한국청소년개발원(1999)은 하

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44.8%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1-2시간 사용하는 청소년들이 35.3%로 나타났고 이기일(2002)의 연구에서는 일주일 평균 이용 시간은 9.97시간으로 약 10시간이며, 1회 이용 평균 시간은 2.14시간으로 약 2시간정도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시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가 인식하는 자녀의 인터넷 적정 이용시간에 대해 자녀 집단은 1시간, 부모집단은 1시간 14분 정도로 나타나 실제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시간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실제 이용시간과 적정 이용시간에 대한 시간의 차와 부모-자녀간 인식의 차는 부모-자녀간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부모집단의 컴퓨터 사용능력은 상 26.4%, 중 33.9%, 하 39.7%로 나타나 부모 스스로 컴퓨터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통계청정보시스템(2003)에서도 40대 이상 연령층은 14% 정도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청소년보호위원회(2000)가 부모 모두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가정은 24.5%인데 반해 부모 모두 이용능력을 갖추지 못한 가정은 46.7%라고 발표한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컴퓨터 사용능력은 자녀와 큰 차이가 나타나며 이는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활동에 관해 부모들의 통제나 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주로 감독하는 사람은 부부 공동 25.3%로 함께 감독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어머니 20.3%, 아버지 10.1%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컴퓨터 게임 감독자로 어머니(58.8%)가 가장 높게 나타난 한경아(200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인터넷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39.1%, 없다 60.9%로 인터넷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정보화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가 21.8%인 통계청(2002) 결과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부모집단의 인터넷 이용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집단의 경우 인터넷을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비율은 36.3%, 1시간 미만은 55%로 나타난 황상민(2000)의 연구와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2000년 하루 평균 인터넷 접속시간이 81분으로 나타난 Katherine & Lee(2002)의 연구와 비슷한 결과였다.

<표9>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관련 특성

자녀집단(N=566)				부모집단(N=463)			
범주형 변인		빈도	백분율 (%)	범주형 변인		빈도	백분율 (%)
<b>인터넷 관련 변인</b>				<b>인터넷 관련 변인</b>			
인터넷 이용 장소	집	517	91.3	본인 컴퓨터 사용 능력	상	122	26.4
	PC방	31	5.5		중	157	33.9
	기타	18	3.2		하	184	39.7
컴퓨터 설치 장소	자기방	197	34.8	컴퓨터 설치 장소	자녀방	194	41.9
	거실	182	32.2		거실	181	39.1
	기타	187	33.0		기타	88	19.0
인터넷 이용 시간대	오전	15	2.7	자녀 인터넷 이용시 주 감독자	아버지	47	10.1
	오후	266	46.9		어머니	94	20.3
	저녁	285	50.4		부부공동	117	25.3
인터넷 이용 규칙	있음	440	77.7	인터넷 이용 규칙	있음	374	80.8
	없음	126	22.3		없음	89	19.2
인터넷관련 교육 요구도	있음	343	60.6	인터넷관련 교육 경험	있음	181	39.1
	없음	223	39.4		없음	282	60.9
				인터넷관련 교육 요구도	있음	386	83.4
					없음	77	16.6
<b>연속형 변인</b>		<b>평균</b>	<b>표준 편차</b>	<b>연속형 변인</b>		<b>평균</b>	<b>표준 편차</b>
처음 인터넷 이용 시기(세)		9.9	1.9	본인의 인터넷 이용시간(분)		95.9	63.0
인터넷 이용 일 수(일)		4.6	2.1	자녀의 인터넷 이용 시간(분)		114.9	75.2
인터넷 이용 시간(분)		91.9	56.1	부모님이 인식하는 자녀의 적정 인터넷 이용 시간(분)		74.1	47.4
부모님이 인식하는 자녀의 적정 인터넷 이용 시간(분)		63.5	49.4	자녀의 인터넷 이용시 걱정 정도 (1-5점)		3.4	0.9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부모-자녀간에 실제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

적 요인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등 4개 하위요인에 대한 인식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개인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및 인터넷이용관련 변인 중 선택된 설명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t-test, ANOVA 분석, 교차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였다.

###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

####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 실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 실태를 살펴보면 <표10>과 같다. 부모의 감독 정도에 대한 전체 평균값은 자녀집단 2.51점, 부모집단 3.12점으로 나타나 자녀집단보다 부모집단이 부모의 감독 정도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집단의 경우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 5개 하위영역에 대해 60% 이상 감독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나, 자녀집단의 경우는 인터넷 이용시간 영역에 대해서만 60% 이상 부모의 감독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부모-자녀간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를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균값을 살펴보면 자녀집단은 ‘그렇지 않다’의 보통이하 수준이었으며, 부모집단은 ‘그저 그렇다’의 보통 수준으로 나타나 부모의 감독 정도를 자녀집단과 부모집단 모두 강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를 자녀집단 2.98점, 부모집단 3.53점으로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 이용 아동의 50%가 인터넷 접속시간 및 접속분야를 부모로부터 통제 받고 있다고 한 황상민(2000)의 연구와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시 인터넷 이용시간과 이용시간대를 80% 이상 감독한다고 한 박소라 외(2004)의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 이용 시간대에 대한 인식이 자녀집단 2.62점, 부모집단 3.36점이어서 자녀들이 늦은 밤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을 부모가 감독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등학생이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가 오후 9시에서 밤 12시가 40.4%로 가장 많았고 밤 12시 이후도 10%나 된다고 한 정인선(2004)의 연구에서도 뒷받침되는 결과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인터넷관련 지식이 부족한 부모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감독으로 인터넷 이용 시간과 이용 시간대에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인터넷 이용 장소에 대한 인식에서 자녀집단 2.31점, 부모집단 2.80점으로 나타났고 온라인에서 접촉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 2.27점, 부모집단 2.71점으로 나타나 자녀집단과 부모집단 모두 부모 감독이 가장 적다고 인식했다. 이는 청소년들의 주 인터넷 이용 장소가 주로 가정이기 때문에 이용 장소에 대한 부모의 감독이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10>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 실태

변인	자녀집단(N=566)			부모집단(N=463)		
	평균 (SD)	없음 (%)	있음 (%)	평균 (SD)	없음 (%)	있음 (%)
인터넷 이용 시간	2.98 (1.23)	179 (31.6)	387 (68.4)	3.53 (0.92)	56 (12.1)	407 (87.9)
인터넷 이용 시간대	2.62 (1.17)	250 (44.2)	316 (55.8)	3.36 (0.94)	75 (16.2)	388 (83.8)
인터넷 이용 사이트	2.36 (1.16)	311 (55.0)	255 (45.0)	3.19 (1.00)	108 (23.3)	355 (76.7)
인터넷 이용 장소	2.31 (1.14)	324 (57.2)	242 (42.8)	2.80 (0.94)	175 (37.8)	288 (66.2)
온라인 접촉 대상	2.27 (1.20)	335 (59.2)	231 (40.8)	2.71 (0.93)	185 (40.0)	278 (60.0)
전체	2.51 (0.87)	351 (62.0)	215 (38.0)	3.12 (0.74)	140 (30.2)	323 (69.8)

주) 5점 Likert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5: 정말 그렇다

##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의 인식 차이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라 부모의 감독정도 5개 하위영역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집단의 인터넷이용시간 감독에 대한 인식은 성별, 연령, 학교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이 남학생일 때, 연령이 14세 이상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영역과는 달리 학교성적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집단은 학교성적이 하위권에 비해 중위권 및 상위권일수록 부모가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해 감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하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더 자주 인터넷을 이용하여(김명애, 2002; 박해정, 2003; 안은경, 2006) 부모의 감독을 더 많이 인식할 뿐만 아니라 부모와 갈등도 높게 인식(박희경, 2004) 한다고 한 선행연구들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권 성적을 가진 학생일수록 부모가 인터넷 이용 시간을 감독하여 공부에 몰입하도록 지도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시간 감독의 인식 차이를 가져온 변인은 연령과 교육수준이었다. 부모집단의 연령이 낮아질수록,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인터넷이용시간 감독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연령별로 보면, 40세 이하의 집단이 부모의 감독정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였고, 다른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0세 이하의 집단이 부모의 감독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은 인터넷 이용률(한국인터넷진흥원, 2006)과 인터넷 이용 관련 지식을 갖고 있어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인터넷이용시간대 감독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일 때 인터넷이용시간대 감독을 높게 인식했다. 이는 주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평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하며(김명애, 2002; Gross, 2004) 늦은 밤까지 게임(이세용, 2000; Griffiths, 1991)을 하거나 음란물에 접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시간대 감독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본인의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본인의 직업이 관리·전문직일 때 인터넷이용시간대 감독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관심을 갖고 감독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11>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감독 정도

변인	구분	빈도	이용시간 감독		이용시간대 감독		이용사이트 감독		이용장소 감독		접촉대상 감독		전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자녀 집단의 개인 관련 변인	성별	남	275	3.01		2.63		2.25		2.35		2.12		2.52	
		여	291	2.67		2.34		2.19		2.02		2.14		2.30	
	T값			-3.38***		-3.14***		-0.61		-3.74***		0.03		-2.94***	
	연령	13세이하	276	2.71		2.39		2.25		2.29		2.14		2.39	
		14세이상	290	2.95		2.57		2.19		2.07		2.11		2.42	
	T값			2.13*		1.67		-0.94		-2.51**		-0.44		0.01	
	성적	상위권	211	3.09	A	2.58		2.33		2.28		2.21		2.50	
		중위권	165	3.03	AB	2.62		2.38		2.29		2.35		2.53	
		하위권	190	2.81	B	2.66		2.37		2.36		2.26		2.49	
	F값			2.83*		0.21		0.10		0.30		0.57		0.12	
개인용돈	1만원이하	244	2.97		2.60		2.42		2.35		2.27		2.52		
	1-2만원	121	2.93		2.55		2.37		2.31		2.17		2.51		
	2만원이상	201	3.02		2.69		2.26		2.26		2.32		2.50		
F값			0.21		0.56		1.05		0.37		0.59		0.15		
부모 집단의 개인 관련 변인	성별	남	224	3.35		3.21		3.05		2.65		2.55		2.99	
		여	239	3.46		3.27		3.08		2.71		2.63		3.06	
	T값			-1.22		-0.72		-0.14		-0.69		-0.86		-0.92	
	연령	40세이하	158	3.63	A	3.45		3.34	A	2.89		2.70		3.20	A
		41-45세	182	3.55	AB	3.37		3.20	AB	2.82		2.79		3.15	A
		46세이상	123	3.36	B	3.24		3.00	B	2.67		2.62		2.98	B
	F값			3.31*		1.92		4.25**		2.09		1.32		3.67**	
	교육수준	고졸이하	230	3.24		3.08		2.90		2.55		2.50		2.88	
		전문대졸이상	233	3.58		3.41		3.23		2.82		2.68		3.17	
	T값			-3.91***		-3.77***		-3.54***		-3.29***		-2.19**		-4.32***	
직업	관리·사무직	169	3.63		3.51	A	3.37	A	2.92	A	2.83		3.25	A	
	판매서비스직	162	3.52		3.28	B	3.12	B	2.80	AB	2.67		3.06	B	
	기타	132	3.43		3.28	B	3.06	B	2.66	B	2.62		3.03	B	
F값			1.95		3.42*		4.58**		3.01		2.15		4.59**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또한 인터넷이용사이트 감독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개인관련 변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전문대졸이상일 때, 직업이 관리·사무직일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교육정도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분야에 영향을 미친다는 김유미(2000)의 연구와 같이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이용분야와 이용사이트를 감독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이용장소 감독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고 연령이 13세 이하일 때 인터넷이용장소 감독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연령이 낮은 학년일수록 부모의 사용장소 제한으

로 인해 자기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정재민(1999)의 연구와 같이 연령이 낮을수록 가정 이외의 장소 특히, PC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부모가 감독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장소 감독에 대한 인식은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직업이 관리·사무직일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인터넷이용접촉대상 감독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개인관련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에 대해 자녀집단은 성별이, 부모집단은 본인의 교육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전문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인터넷을 자주 이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부모가 인터넷을 자주 이용하며 다양한 이용행태를 가질 때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독하기 쉬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감독, 지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김명애, 2002)과는 달리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부모의 성별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라 부모의 감독정도 5개 하위영역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인터넷이용시간 감독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아버지 교육수준이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으로 고졸이하에 비해 전문대졸이상일 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터넷을 이용하고 자료검색을 더 많이 하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김유미, 2000)를 볼 때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능력이 있을 때 자녀의 인터넷이용시간을 감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집단의 경우 생활수준이 상집단일 때 인터넷이용시간 감독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집단이 인식한 생활수준이 상집단일 때 자녀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지도하고 생활수준이 하집단일 때 부모의 말을 잘 들도록 엄격히 교육시키거나 혹은 방임해둔다고 한 연구결과(김미영,

2004)와는 상반된 결과였다.

<표12>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감독 정도

변인	구분	빈도	이용시간 감독		이용시간대 감독		이용사이트 감독		이용장소 감독		접촉대상 감독		전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자녀 집단의 가정 관련 변인	아버지연령	40세이하	81	2.93		2.51		2.33		2.21	A	2.40		2.47	
		41-45세	288	2.92		2.62		2.45		2.42	B	2.29		2.54	
		46세이상	197	3.08		2.67		2.23		2.20	A	2.18		2.47	
	F값			1.06		0.53		2.13		2.51*		1.07		0.45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292	2.69		2.40		2.22		2.21		2.12		2.36	
		전문대졸이상	274	3.00		2.58		2.22		2.14		2.13		2.45	
	T값			-3.22***		-2.02*		-0.12		0.45		-0.13		-1.40	
	아버지직업	관리·사무직	256	3.05		2.64		2.32		2.30		2.19	B	2.50	
		판매·서비스직	241	2.86		2.55		2.34		2.30		2.29	AB	2.47	
		기타	69	3.13		2.81		2.55		2.41		2.49	A	2.68	
	F값			2.14		1.41		1.15		0.27		1.81		1.61	
	어머니직업	있음	320	2.80		2.51		2.23		2.24		2.12		2.42	
		없음	246	2.88		2.45		2.20		2.10		2.13		2.39	
	T값			-0.84		0.55		0.17		1.30		-0.24		0.23	
	주택유형	단독	201	2.80		2.62		2.22		2.29		2.06		2.44	
기타		365	2.86		2.41		2.22		2.12		2.17		2.39		
T값			-0.20		2.39**		0.27		2.04*		-0.70		0.99		
생활수준	상	202	3.08		2.76		2.35		2.38		2.31		2.58		
	중	280	2.88		2.52		2.29		2.22		2.24		2.43		
	하	84	3.06		2.61		2.57		2.46		2.24		2.59		
F값			1.88		2.49*		1.88		2.01		0.22		2.10		
부모 집단의 가정 관련 변인	자녀용돈	1만원이하	110	3.54		3.42		3.39	A	2.88		2.86		3.22	A
		1-2만원	122	3.42		3.29		3.04	B	2.69		2.71		3.03	B
		2만원이상	231	3.58		3.38		3.18	AB	2.83		3.64		3.12	AB
	F값			1.30		0.65		3.76*		1.40		2.15		2.01*	
	주택유형	단독	219	3.37		3.12		3.02		2.66		2.63		2.96	
		기타	244	3.45		3.35		3.10		2.70		2.79		3.08	
	T값			-0.85		-2.45**		-0.80		-0.39		-1.81		-1.61	
	생활수준	상	119	3.71	A	3.53	A	3.27		2.90		2.71		3.22	A
		중	251	3.52	AB	3.38	A	3.20		2.80		2.71		3.12	AB
하		93	3.32	B	3.11	B	3.08		2.69		2.73		2.98	B	
F값			4.75***		5.68***		1.05		1.35		0.03		2.90*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인터넷이용시간대 감독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아버지 교육수준, 주택유형,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보다 전문대졸이상일 때, 주택유형이 단독일 때, 생활수준이 상집단일 때 인터넷이용시간대 감독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부모집단의 경우 주택유형,

생활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주택유형이 단독이고 생활수준이 상집단일 때 인터넷이용시간대 감독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인터넷이용사이트 감독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가정관련 변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자녀용돈이 1만원 이하인 경우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용장소 감독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아버지 연령, 주택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이 41-45세 집단인 경우, 주택유형이 단독인 경우 인터넷이용장소 감독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집단은 가정관련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이용접촉대상 감독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경우 가정관련 변인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5개 하위영역 모두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변인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라 부모의 감독정도 5개 하위영역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13>과 같다.

인터넷이용시간 감독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인터넷 이용규칙이 있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집단의 경우는 본인의 컴퓨터 이용능력이 중집단 이상이며 가정에 인터넷 이용규칙이 있을 때 인터넷이용시간 감독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인터넷이용시간대 감독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인터넷 이용 규칙이 있는 집단일 때 부모감독이 많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부모집단의 경우는 컴퓨터 이용능력이 중 이상일 때, 컴퓨터 설치장소가 기타일 때, 인터넷 이용규칙이 있을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집단의 경우 인터넷이용사이트 감독에 대한 인식은 가정에 인터넷 이용규칙이 있을 때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음란물 사이트 등 청소년의 금지 사이트에 대한 접촉 빈도는 부모의 통제 및 감독이 많을수록 높다고 한 윤영민(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부모집단의 경우는 부모가 어느



정도의 컴퓨터 이용능력을 가지고 있고 컴퓨터가 자녀방 이외의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가정에 인터넷 이용규칙이 있을 때 감독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부모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이용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인터넷 이용 행태를 통제하고 감독한다고 한 김명애(2002)의 연구와는 달리 컴퓨터 이용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감독함으로써 인터넷 지식 없이 무조건적인 통제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부모-자녀간 갈등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13>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감독 정도

변인	구분	빈도	이용시간 감독		이용시간대 감독		이용사이트 감독		이용장소 감독		접촉대상 감독		전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자녀 집단의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	컴퓨터 설치장소	본인방	197	2.68		2.42		2.18		2.13		2.11		2.35	
		기타	369	2.92		2.52		2.24		2.20		2.14		2.44	
	T값			-1.79		-0.46		-0.15		-0.33		-0.04		-0.77	
	인터넷 이용시간	60분이하	389	2.85		2.49		2.17		2.16		2.13		2.39	
		61분이상	177	2.82		2.49		2.34		2.23		2.12		2.45	
	T값			-0.28		-0.48		-2.21**		-1.19		-0.36		-1.21	
	인터넷 이용일수	3일이하	203	2.73		2.34		2.08		2.11		2.01		2.30	
		4일이상	363	2.90		2.56		2.30		2.21		2.19		2.47	
	T값			-1.12		-1.79		-1.83		-0.55		-1.33		-1.80	
	인터넷 이용규칙	없음	126	2.51		2.17		1.95		1.78		1.91		2.10	
있음		440	2.94		2.58		2.31		2.31		2.20		2.50		
T값			-2.76***		-2.88***		-2.43**		-4.65***		-1.96*		-3.76***		
부모 집단의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	컴퓨터 이용능력	하	184	3.39	B	3.20	B	3.03	B	2.73		2.61		2.99	B
		중	157	3.61	A	3.55	A	3.35	A	2.91		2.82		3.25	A
		상	122	3.62	A	3.36	AB	3.24	AB	2.77		2.73		3.14	AB
	F값			3.46*		6.36***		4.66***		1.65		2.26		6.07***	
	컴퓨터 설치장소	자녀방	194	3.36		3.27		2.92		2.60		2.51		2.93	
		기타	269	3.44		3.43		3.17		2.74		2.65		3.09	
	T값			-0.54		-1.86		-2.33**		-1.50		-1.44		-1.99*	
	인터넷 이용시간	60분이하	331	3.48		3.24		3.08		2.69		2.60		3.02	
		61분이상	132	3.65		3.25		3.03		2.67		2.58		3.04	
	T값			-1.84		-0.78		-0.03		-0.54		-0.43		-0.91	
인터넷 이용규칙	없음	89	2.80		2.71		2.52		2.29		2.23		2.54		
	있음	374	3.56		3.38		3.21		2.79		2.69		3.15		
T값			-6.25***		-5.22***		-4.98***		-3.64***		-3.51***		5.51***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마지막으로 인터넷이용장소 감독에 대한 인식과 인터넷이용접촉대상 감독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과 부모집단 모두 가정에 인터넷 이용규칙이 있는 경우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감독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인은 자녀집단과 부모집단 모두 인터넷 이용 규칙이었다. 특히, 모든 부모의 감독 정도 5개 하위영역에서 인터넷 이용규칙이 있을 때 부모의 감독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부모가 인터넷 이용 규칙을 정하는 것이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감독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

###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은 Schaefer(1965)의 양육태도를 분류기준으로 참고하여 13문항을 요인분석 한 결과로 다음 <표14>와 같다. 요인 분석한 결과 부모의 태도 유형은 방임형(2문항), 민주형(3문항), 권위형(4문항)으로 나뉘었으며 요인적재량값은 모두 0.90이상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집단이 인식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은 민주형이 40.1%로 가장 높았으며, 권위형 37.9%, 방임형 22.0%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집단이 인식한 부모의 태도 유형은 권위형이 70.1%로 가장 높았으며, 민주형 21.0%, 방임형 8.9%로 나타났다. 부모의 태도유형에 대해 자녀 집단은 민주형, 부모집단은 권위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태도유형에 대한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식 차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자녀집단과 부모집단 모두 방임형 태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을 조사한 결과 아버지의 태도는 방임형이 가장 높았으며, 권위형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이시형(2004)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별 차이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15>와 같다.

<표14>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

태도 유형(자녀/부모)		자녀집단(N=566)			부모집단(N=463)		
		평균	표준 편차	빈도 (%)	평균	표준 편차	빈도 (%)
방 임 형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다(않는다)	2.54	0.96	115	2.27	0.88	40
	인터넷을 잘 몰라서 그냥 두신다(둔다)	2.14	0.96	(22.0)	2.12	0.89	(8.9)
요인적재량 값		0.93814			0.95812		
고유치		1.476			1.669		
분산값		16.400			18.540		
민 주 형	인터넷 이용에 대해 믿고 맡겨주신다(준다)	3.18	1.10	210 (40.1)	3.17	0.95	95 (21.0)
	자율적이지만 책임을 갖도록 하신다(한다)	3.33	0.98		3.64	0.77	
	인터넷을 할 때 격려를 해 주신다(준다)	2.28	0.96		2.70	0.86	
요인적재량 값		0.98159			0.93346		
고유치		1.755			1.652		
분산값(%)		19.500			18.350		
권 위 형	인터넷 이용에 대해 규칙을 정해주신다(정해준다)	2.11	1.01	198 (37.9)	2.91	0.99	317 (70.1)
	인터넷을 이용할 때 항상 감독하신다(감독한다)	1.71	1.09		2.29	0.82	
	인터넷 이용시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다(받도록 한다)	2.15	1.23		2.81	1.08	
	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편이시다(편이다)	2.45	1.09		3.38	0.94	
요인적재량 값		0.95647			0.95549		
고유치		2.044			2.049		
분산값(%)		22.710			22.769		
누적분산값(%)		58.610			59.659		

주) 5점 Likert 척도: 1: 전혀 그렇지 않다 3: 그저 그렇다 5: 정말 그렇다

자녀집단이 인식한 부모의 태도 유형은 연령과 학교 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령의 경우 13세 이하일 때 부모의 태도를 권위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4세 이상 일 때 방임형 또는 민주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성적은 상위권일 때 부모의 태도를 권위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하위권일수록 방임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5>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태도 유형별 차이

변인			방임형		민주형		권위형		$\chi^2$
			빈도	%	빈도	%	빈도	%	
자녀 집단의 개인 관련 변인	성별	남	#61	11.7	89	17.0	#101	19.3	4.55
		여	54	10.3	#121	23.1	97	18.6	
	연령	13세 이하	52	9.9	83	15.9	#114	21.8	13.65***
		14세 이상	#63	12.0	#127	24.3	84	16.1	
성적	상위권	30	5.7	75	14.3	#91	17.4	14.78***	
	중위권	#37	7.1	59	11.3	56	10.7		
	하위권	#48	9.2	#76	14.5	51	9.8		
용돈	1만원이하	#56	10.7	85	16.3	83	15.9	2.83	
	1-2만원	21	4.0	44	8.4	#46	8.8		
	2만원이상	38	7.3	#81	15.5	69	13.2		
부모 집단의 개인 관련 변인	성별	남	#20	4.4	#50	11.0	149	33.0	0.96
		여	#20	4.4	45	10.0	168	37.2	
	연령	40세 이하	5	1.1	24	5.3	#125	27.7	18.39***
		41-45세	#21	4.7	73	8.2	121	26.8	
46세 이상		#14	3.1	#34	7.5	71	15.7		
교육수준	고졸 이하	#30	6.6	#58	12.8	136	30.1	20.99***	
	전문대졸 이상	10	2.2	37	8.2	#181	40.1		
직업	관리·사무직	9	2.0	#36	8.0	#121	26.8	5.13	
	판매·서비스직	#20	4.4	#34	7.5	107	23.7		
	기타	#11	2.4	25	5.5	#89	19.7		

주) # 기대치 < 관찰치 \*p<.05 \*\*p<.01 \*\*\*p<.001

부모집단이 인식한 부모의 태도 유형은 본인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연령이 40세 이하일 때 권위형으로 인식하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방임형 또는 민주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본인 교육수준이 고졸 이하일 때 방임형 또는 민주형으로 인식하였으며 전문대졸 이상일 때 권위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 자녀교육과 관련한 인터넷 이용경험이 많으며 권위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고현숙(2001)의 연구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태도 유형은 자녀집단과 부모집단 모두 연령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집단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집단의 연령이 낮아지며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일수록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감독할 가능성이 높아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태도 유형을 권위형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부의 연령이 높을수록

부모-자녀간 친밀감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한 이현아(2001)의 연구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부모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의 연령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그럴수록 부모-자녀간 대화가 늘고 대화의 내용도 다양해질 가능성이 커져 부모의 태도 유형을 민주형 또는 방임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16>과 같다.

자녀집단이 인식한 부모의 태도 유형은 아버지 교육수준과 아버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일 때 방임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전문대졸 이상일 때 권위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직업은 관리·사무직일 때 권위형으로 인식하였으며 판매·서비스직 및 기타직일 때 방임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가 전문·기술적인 경우 다른 직업을 가진 아버지에게 비해 성취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가예진(2006)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로써,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직업이 전문직 일수록 인터넷 이용관련 지식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부모가 인터넷 이용관련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의 인터넷에 이용에 대해서는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집단이 인식한 부모의 태도 유형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17>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집단이 인식한 부모의 태도 유형은 인터넷 이용 일수와 인터넷 이용 규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태도 유형에 대해 인터넷 이용 일 수가 3일 이하인 경우는 권위형으로 4일 이상인 경우는 방임형 또는 민주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부모의 태도가 권위적일 때 청소년들은 반항적이며 비행을 일으키는 외면적 문제행동이 발생한다고 한 연구와는 차이가 있었다(황미영, 2001). 그리고 인터넷 이용 규칙이 있는 경우 권위형으로 규칙이 없는 경우 방임형 또는 민주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6>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태도 유형별 차이

변인			방임형		민주형		권위형		$\chi^2$
			빈도	%	빈도	%	빈도	%	
자녀 집단의 가정 관련 변인	아버지 연령	40세이하	15	2.9	26	5.0	#32	6.1	2.56
		41-45세	55	10.5	#113	21.6	101	19.3	
		46세이상	#45	8.6	71	13.6	65	12.4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74	14.2	#109	20.9	88	16.8	11.54***
		전문대졸이상	41	7.8	#101	19.3	#110	21.0	
	아버지직업	관리·사무직	37	7.1	#96	18.4	#103	19.7	16.31***
		판매·서비스직	#54	10.3	#92	17.6	76	14.5	
기타		#24	4.6	22	4.2	19	3.6		
어머니직업	있음	#71	13.6	110	21.0	108	20.7	2.70	
	없음	44	8.4	#100	19.1	#90	17.2		
주택유형	단독	38	7.3	68	13.0	#77	14.7	2.14	
	기타	#77	14.7	#142	27.2	121	23.1		
생활수준	상	33	6.3	#76	14.5	#78	14.9	5.08	
	중	#60	11.5	101	19.3	96	18.4		
	하	#22	4.2	#33	6.3	24	4.6		
부모 집단의 가정 관련 변인	자녀용돈	1만원이하	5	1.1	21	4.7	#81	17.9	3.91
		1-2만원	#12	2.7	#28	6.2	80	17.7	
		2만원이상	#23	5.1	46	10.2	156	34.5	
주택유형	단독	#18	4.0	43	9.5	#152	33.6	0.29	
	기타	#22	4.9	#52	11.5	165	36.5		
생활수준	상	4	0.9	22	4.9	#91	20.1	6.99	
	중	#26	5.8	#53	11.7	166	36.7		
	하	#10	2.2	#20	4.4	60	13.3		

주) # 기대치 < 관찰치 \*p<.05 \*\*p<.01 \*\*\*p<.001

부모집단이 인식한 부모의 태도 유형은 본인의 컴퓨터 이용 능력과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규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컴퓨터 이용능력이 하인 경우 방임형으로 컴퓨터 이용능력이 중 이상인 경우 권위형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부모가 인터넷을 이용한 후 부모-자녀간 대화가 증가하고 대화내용이 풍부해져 부모-자녀간 친밀감이 증가한다는 이현아(2001)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이다. 인터넷 이용시간이 60분 이하인 경우 방임형과 민주형으로 61분 이상인 경우 권위형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가정에 인터넷이용 규칙이 있는 경우 부모집단은 부모 태도 유형을 권위형으로 규칙이 없는 경우 방임형 또는 민주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자녀집단과 부모집단 모두 부모의 태도 유형에 대해 부모의 인터넷 이용

능력이 높고 인터넷을 오랜시간 이용하며 가정에 인터넷 규칙이 있을 때 권위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모의 태도 유형에는 개인적 변인 중 연령과 인터넷이용 변인 중 인터넷 이용능력 및 시간 그리고 가정의 인터넷 이용 규칙이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표17>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의 태도 유형별 차이

변인			방임형		민주형		권위형		$\chi^2$
			빈도	%	빈도	%	빈도	%	
자녀 집단의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	컴퓨터 설치장소	본인방 기타	#44 71	8.4 13.6	#75 135	14.3 25.8	63 #135	12.1 25.8	1.46
	인터넷이용 일 수	3일이하 4일이상	33 #82	6.3 15.7	61 #149	11.7 28.5	#95 103	18.1 19.7	
부모 집단의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	인터넷이용 시간	60분이하 61분이상	70 #45	13.4 8.6	#146 64	27.9 12.3	#144 54	27.5 10.3	4.85
	인터넷이용 규칙	없음 있음	#29 86	5.6 16.5	#55 155	10.5 29.6	31 #167	5.9 31.9	7.48*
자녀 집단의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	컴퓨터 이용능력	하 중 상	#26 11 3	5.8 2.4 0.7	#43 #32 20	9.5 7.1 4.4	110 #109 #98	24.3 24.1 21.7	18.45***
	컴퓨터 설치장소	자녀방 기타	14 #26	3.1 5.8	#45 50	10.0 11.1	129 #188	28.5 41.6	2.13
부모 집단의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	인터넷이용 시간	60분이하 61분이상	#35 5	7.8 1.1	#76 19	16.8 4.2	213 #104	47.1 23.0	11.32***
	인터넷이용 규칙	없음 있음	#13 27	2.9 6.0	#36 59	8.0 13.0	39 #278	8.6 61.5	35.29***

주) # 기대치 < 관찰치 \*p<.05 \*\*p<.01 \*\*\*p<.001

### 3)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실태

자녀의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자녀집단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10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긍정적 생활 요인과 부정적 생활 요인으로 나누었다. 이때 긍정적 생활 요인은 하위 요인들이 증가할수록 생활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아지며 부정적 생활 요인은 하위 요인들이 증가할수록 생활에 부정적인 요소가 많아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에서 긍정적 생활 요인은 긍정적인 측면이 적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부정적 생활 요인은 부정적인 측면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 실태를 살펴보면 <표18>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위항목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은 생활의 변화를 증가나 감소보다는 무변화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김명선(2002)의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변화 중 긍정적 생활 요인을 살펴보면 자녀집단은 독서와 취미 활동시간 43.8%, 운동 시간 및 활동 시간 39.9%,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31.8%, TV 시청시간 28.8%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부모집단은 독서와 취미활동시간 59.8%, 운동 시간 및 활동시간 50.7%, 가족과의 대화 42.1%, 수면시간 40.6%, TV 시청시간 39.5%,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38.4%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이용 후 TV시청 시간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났고 그 외 독서시간이나 가족과의 대화시간에 대한 감소 인식 정도는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김명애, 2002; 빌게이츠, 1999; 이시형, 2004; 허정미, 2004; Turow, 1999).

한편 생활변화 중 부정적 생활 요인에 대해서 자녀집단은 오락과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해 47.4%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으며, 부모님의 간섭이 32.3%가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부모 집단은 오락과 게임 이용 시간에 대해 74.1%, 부모님의 간섭에 대해 49.0%,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해 47.5%가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게임이며 실제 청소년들의 73.4%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주목적이 온라인게임(전자신문, 2004. 8. 3)이라고 응답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정보추구가 아니라 게임, 채팅 등의 오락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생각할 때 자녀집단의 바람직한 여가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은 자녀의 생활변화 중 독서와 취미활

동시간을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오락과 게임 시간을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이 비슷한 결과를 보이나 부모집단의 경우 자녀의 생활변화를 무변화로 인식하기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좀 더 부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다.

<표18>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실태

변인		자녀집단(N=566)				부모집단(N=463)			
		평균 (SD)	감소 (%)	무변화 (%)	증가 (%)	평균 (SD)	감소 (%)	무변화 (%)	증가 (%)
긍정적 생활 요인	운동 시간 및 활동 시간	2.68 (0.91)	226 (39.9)	267 (47.2)	73 (12.9)	2.45 (0.74)	235 (50.7)	206 (44.5)	22 (4.8)
	독서, 취미 활동	2.62 (0.94)	248 (43.8)	245 (43.3)	73 (12.9)	2.38 (0.77)	277 (59.8)	154 (33.3)	32 (6.9)
	TV시청	2.89 (0.93)	163 (28.8)	301 (53.2)	102 (18.0)	2.65 (0.66)	183 (39.5)	250 (54.0)	30 (6.5)
	가족과의 대화	2.91 (0.84)	140 (24.8)	333 (58.8)	93 (16.4)	2.60 (0.70)	195 (42.1)	233 (50.3)	35 (7.6)
	공부, 학교 숙제	3.09 (0.90)	113 (20.0)	301 (53.2)	152 (26.8)	3.00 (0.83)	130 (28.1)	217 (46.9)	116 (25.0)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2.84 (0.98)	180 (31.8)	282 (49.8)	104 (18.4)	2.66 (0.64)	178 (38.4)	254 (54.9)	31 (6.7)
	수면시간	2.86 (0.87)	150 (26.5)	348 (61.5)	68 (12.0)	2.62 (0.69)	188 (40.6)	249 (53.8)	26 (5.6)
요인적재량 값		0.99967				0.90241			
고유값		2.399				3.014			
분산값(%)		23.989				30.141			
부정적 생활 요인	혼자 있는 시간	3.02 (0.80)	96 (17.0)	356 (62.9)	114 (20.1)	3.41 (0.80)	48 (10.4)	195 (42.1)	220 (47.5)
	부모님의 간섭	3.26 (0.87)	60 (10.6)	323 (57.1)	183 (32.3)	3.39 (0.81)	59 (12.8)	177 (38.2)	227 (49.0)
	오락, 게임	3.46 (1.09)	84 (14.8)	214 (37.8)	268 (47.4)	3.82 (0.82)	37 (8.0)	83 (17.9)	343 (74.1)
요인적재량 값		0.99967				0.90241			
고유값		2.665				1.402			
분산값(%)		26.655				14.024			
누적분산값(%)		50.644				44.165			

주) \* 5점 Likert 척도: 1: 매우 감소 3: 보통 5: 매우 증가

##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변화 정도의 인식 차이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변화 정도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19>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집단이 인식한 긍정적 생활 요인에 대한 인식은 연령과 학교성적, 개인 용돈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때 자녀집단의 연령이 어리고 학교성적이 중위권이며 개인 용돈이 적을수록 긍정적 생활 요인을 높게 인식하였다. 부모집단의 경우는 연령이 40세 이하일 때 긍정적 생활 요인을 높게 인식하였다. 부모집단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집단의 연령도 낮을 확률이 높다. 이러한 경우 부모집단은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독하기 쉬우며 자녀의 일상생활과 친구 및 가족과의 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변화를 인식하기 쉽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부정적 생활 요인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 연령, 개인 용돈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었으며 성별이 여학생일 때, 연령이 13세 이하일 때, 학교성적이 중·상위권일 때, 개인용돈이 1만원 이하일 때 부정적 생활 요인을 높게 인식하였다. 이는 오히려 남학생의 경우 폭력적인 게임을 더 하고 인터넷에서 혼자 시간을 보낸다고 한 Gross(2004)의 연구와 컴퓨터 게임으로 인해 남학생이 가족과의 대화시간이 감소했다고 한 김명선(2002)의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로써 여학생보다 남학생들이 생활변화를 인식하지 못할 만큼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과 비행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인 용돈이 적은 경우 부정적 생활변화를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흥미로움과 재미를 제공하는 놀이의 장으로서(조남근·양돈규, 2001)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여가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인터넷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집단의 경우 연령과 교육수준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의 연령이 46세일 때, 교육수준이 고졸이하일 때 부정적 생활 요인을 높게 인식하였다. 부모연령이 46세 이상의 집단은 자녀집단이 고학년일 경우가 많아 부모의 규제를 벗어나 자율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면서



부모집단은 자녀집단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정적 생활 요인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19>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변인	구분	빈도	긍정적 생활 요인의 변화		부정적 생활 요인의 변화		전체 생활변화		
			평균	D	평균	D	평균	D	
자녀 집단의 개인 관련 변인	성별	남	275	2.75		2.51		2.69	
		여	291	2.81		2.84		2.83	
	T값			1.17		6.05***		3.71***	
	연령	13세이하	276	2.90		2.76		2.88	
		14세이상	290	2.67		2.61		2.66	
	T값			-5.73***		-3.29***		-6.70***	
	성적	상위권	211	2.84	AB	2.80		2.83	AB
		중위권	165	2.90	A	2.74		2.85	A
		하위권	190	2.78	B	2.70		2.76	B
	F값			2.32*		1.34		2.81*	
용돈	1만원이하	244	2.90	A	2.81	A	2.87	A	
	1-2만원	121	2.87	A	2.79	AB	2.85	A	
	2만원이상	201	2.74	B	2.66	B	2.72	B	
F값			5.25***		3.49*		8.58***		
부모 집단의 개인 관련 변인	성별	남	224	2.56		2.42		2.53	
		여	239	2.57		2.35		2.51	
	T값			0.08		1.22		0.60	
	연령	40세이하	158	2.70	A	2.46	AB	2.63	A
		41-45세	182	2.55	B	2.40	B	2.50	B
		46세이상	123	2.64	AB	2.55	A	2.61	A
	F값			4.77***		2.46*		4.83***	
	교육수준	고졸이하	230	2.57		2.44		2.54	
		전문대졸이상	233	2.56		2.33		2.50	
	T값			0.55		2.21**		1.41	
직업	관리·사무직	169	2.62		2.45		2.57		
	판매·서비스직	162	2.64		2.50		2.60		
	기타	132	2.61		2.43		2.55		
F값			0.21		0.52		0.46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이와 같이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연령과 개인 용돈이 부모집단의 경우 연령이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변화 정도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20>과 같다.

<표20>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변인	구분	빈도	긍정적 생활 요인의 변화		부정적 생활 요인의 변화		전체 생활변화		
			평균	D	평균	D	평균	D	
자녀 집단의 가정 관련 변인	아버지연령	40세이하	81	2.82		2.79		2.81	
		41-45세	288	2.86		2.79		2.84	
		46세이상	197	2.81		2.68		2.77	
	F값			0.53		2.19		1.61	
	아버지교육수준	고졸이하	292	2.77		2.71		2.76	
		전문대졸이상	274	2.79		2.65		2.77	
	T값			-0.51		0.93		-0.04	
	아버지직업	관리·사무직	256	2.86		2.77	A	2.83	A
		판매·서비스직	241	2.85		2.77	A	2.83	A
		기타	69	2.72		2.58	B	2.68	B
	F값			2.12		3.19*		4.55**	
	어머니직업	있음	320	2.80		2.66		2.77	
		없음	246	2.75		2.71		2.75	
	T값			1.16		-0.94		0.61	
주택유형	단독	201	2.78		2.66		2.77		
	기타	365	2.77		2.69		2.76		
T값			0.62		-0.09		0.52		
생활수준	상	202	2.85	A	2.74	AB	2.82	A	
	중	280	2.87	A	2.79	A	2.85	A	
	하	84	2.71	B	2.64	B	2.69	B	
F값			3.32*		2.04				
부모 집단의 가정 관련 변인	자녀 용돈	1만원이하	110	2.63		2.40		2.56	
		1-2만원	122	2.62		2.54		2.60	
		2만원이상	231	2.62		2.44		2.57	
	F값			0.02		1.77		0.29	
	주택유형	단독	219	2.52		2.39		2.49	
		기타	244	2.61		2.37		2.55	
	T값			-2.25**		0.43		-1.57	
	생활수준	상	119	2.63		2.36	B	2.55	
		중	251	2.64		2.51	A	2.60	
		하	93	2.56		2.45	AB	2.53	
F값			1.10		2.69*		1.46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긍정적 생활 요인에 대해 자녀집단은 생활수준이 중집단 이상일 때 부모집단은 주택유형이 기타일 때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시간과 친구 및 가족과의 생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낮다고 한 Christopher et al(2000)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결과로써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이 높아지고 몰입하는 경향이 높아 생활의 변화를 높게 인식한다고 할 수 있다.

부정적 생활 요인에 대해 자녀집단은 아버지 직업이 기타직에 비해 관리·사무직과 판매·서비스직일 때 부모집단은 생활수준이 중집단일 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일수록 인터넷 이용 능력이 높고 인터넷 관련 지식을 갖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부모집단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부정적 생활 요인을 인식하기 쉽기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변화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21>과 같다.

긍정적 생활 요인에 대해 자녀집단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컴퓨터 이용능력과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컴퓨터 이용 능력이 중 집단에 비해 상 집단일 때, 인터넷 이용 시간이 61분 이상 일 때 긍정적 생활 요인을 높게 인식하였다.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생활의 변화는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많아질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Kraut et al, 1998; SIQSS, 2000)과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터넷에 몰입하여 이용하게 되며 생활의 긍정적 측면이 감소하고 문제점이 많아질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부정적 생활 요인에 대해서는 자녀집단의 경우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 규칙이 없을 때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상공간인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일상 생활공간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줄어들고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이 사람들을 '비사회적 인간'으로 바꾸고 있다고 지적한 SIQSS(2000)의 연구와 같이 부정적인 측면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집단의 경우 인터넷 이용 규칙이 없을 때 부정적 생활 요인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인터넷 이용 규칙이 없을 때 자녀집단은 부모집단

의 제재나 감독 없이 인터넷을 자율적으로 이용하며 무분별하게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부정적 생활 요인을 높게 인식하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Suler(1996)와 Young(1998)은 인터넷 중독집단의 대부분이 통제력 상실로 인한 시간조절 상실의 이유만으로도 생활에서 심각한 변화를 호소한다고 했으며 Brenner(1997)와 권구영·이혜자(2002)도 학업, 대인관계,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한 것과 같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표21>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변인	구분	빈도	긍정적 생활 요인의 변화		부정적 생활 요인의 변화		전체 생활변화		
			평균	D	평균	D	평균	D	
자녀 집단의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	컴퓨터 설치장소	본인방	197	2.77		2.67		2.77	
		기타	369	2.78		2.69		2.78	
	T값			0.18		0.20		0.18	
	인터넷 이용 시간	60분이하	389	2.80		2.50		2.80	
		61분이상	177	2.72		2.76		2.72	
	T값			1.14		3.97***		1.14	
	인터넷 이용 일 수	3일이하	203	2.76		2.63		2.76	
		4일이상	363	2.79		2.77		2.79	
	T값			-0.02		2.84***		-0.02	
	인터넷 이용 규칙	없음	126	2.72		2.78		2.75	
있음		440	2.80		2.66		2.77		
T값			-0.87		2.72***		0.26		
부모 집단의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	컴퓨터 이용 능력	하	184	2.63	AB	2.51		2.60	
		중	157	2.57	B	2.43		2.53	
		상	122	2.69	A	2.41		2.60	
	F값			2.55*		1.30		1.76	
	컴퓨터설치장소	자녀방	194	2.54		2.40		2.51	
		기타	269	2.59		2.37		2.53	
	T값			-0.71		1.04		-0.09	
	인터넷이용시간	60분이하	331	2.54		2.37		2.50	
		61분이상	132	2.63		2.42		2.59	
	T값			-2.80***		-1.28		-2.76***	
인터넷 이용 규칙	없음	89	2.56		2.49		2.56		
	있음	374	2.57		2.36		2.52		
T값			0.98		2.63***		1.93*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전체적으로 볼 때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변화에 대한 인식은 가정관련 변인보다 개인 및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이

었다. 특히, 개인의 연령과 인터넷 이용 시간, 가정의 인터넷 이용 규칙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 4)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실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실태를 살펴보면 <표22>와 같다.

<표22>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실태

변인		자녀집단(N=566)		부모집단(N=463)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인터넷이용시간 변화요구도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	277 (48.9%)	289 (51.1%)	245 (52.9%)	218 (47.1%)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밤이나 새벽	268 (47.4%)	298 (52.6%)	192 (41.5%)	271 (58.5%)
Cronbach $\alpha$ 계수		0.9388		0.9334	
인터넷 이용사이트 변화요구도	인터넷 이용 사이트가 오락위주	230 (40.6%)	336 (59.4%)	235 (50.8%)	228 (49.2%)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감독	184 (32.5%)	382 (67.5%)	151 (32.6%)	312 (67.4%)
가족과의 갈등 변화요구도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칙이나 벌칙이 많음	178 (31.5%)	388 (68.5%)	124 (26.8%)	339 (73.2%)
	가족간의 대화시간 감소, 함께하는 활동 감소	263 (46.5%)	303 (53.5%)	205 (44.3%)	258 (55.7%)
	부모님과 자신의 컴퓨터 관련 지식 차이	220 (38.9%)	346 (61.1%)	191 (41.3%)	272 (58.7%)
	Cronbach $\alpha$ 계수		0.9603		0.9559
자녀의 변화에 대한 변화요구도	인터넷으로 인한 신체변화(시력저하, 어깨아픔)	250 (44.2%)	316 (55.8%)	210 (45.4%)	253 (54.6%)
	인터넷으로 인한 생활변화(낮과 밤이 바뀐, 늦잠)	239 (42.2%)	327 (57.8%)	186 (40.2%)	277 (59.8%)
	인터넷으로 인한 행동변화(폭력적, 욕을 자주함)	249 (44.0%)	317 (56.0%)	184 (39.7%)	279 (60.3%)
Cronbach $\alpha$ 계수		0.9696		0.9569	
자녀의 언어사용 변화요구도	인터넷 언어를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	242 (42.8%)	324 (57.2%)	187 (40.4%)	276 (59.6%)
전체 Cronbach $\alpha$ 계수		0.9849		0.984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자녀집단의 48.9%, 부모집단의 52.9%가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에 대해 있음으로 응답하여 가장 변화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집단의 경우 두 번째 순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대의 변화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간의 대화 시간, 함께하는 활동, 인터넷으로 인한 신체변화 및 행동변화 순으로 변화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인터넷 이용 시간대의 변화 요구도는 자녀 스스로 밤 늦은 시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변화 요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모집단의 경우 두 번째 순으로 오락위주의 인터넷 이용 사이트에 대한 변화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집단은 인터넷 이용 시간대보다도 자녀가 인터넷을 정보추구가 아니라 오락위주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변화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가족간의 대화시간 감소, 함께하는 활동 감소, 인터넷으로 인한 신체변화와 생활변화, 인터넷 언어 사용 순으로 변화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차이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5개 하위 영역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23>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녀집단이 인식한 인터넷이용시간 변화 요구도는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이 14세 이상일 때 변화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집단의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이용시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나강환, 2004)와 같이 평소 인터넷 이용시간이 적기 때문에 인터넷이용시간 변화 요구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님의 감독하에 인터넷을 적정 시간 이용하기가 쉬워 변화 요구도가 없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부모집단이 인식한 인터넷이용시간 변화 요구도는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령이 41-45세 집단일 때 교육수준이 전문대졸 이상일 때 변화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용사이트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 연령, 개인 용돈에 따

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이고 연령이 높으며 개인 용돈이 많은 경우 변화 요구도가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자녀집단이 고학년인 경우 부모의 감독을 피해 음란물 사이트 등 역기능적 사이트를 이용하기 쉽기 때문에 인터넷이용사이트 변화 요구도가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집단의 경우 연령이 41-45세인 경우 변화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과의 갈등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여학생일 때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일 때 인터넷 관련 비행이 더 많이 보고되어 있으며 부모와의 갈등을 더 심각하게 지각한다고 한 연구들(라민오, 2000; 임은미·이은숙, 2002; Kandell, 1998)과는 달리 오히려 변화 요구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의 경우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거나(진연주·김혜연, 2006)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문제를 갖고 있고 인터넷 비행을 경험하면서도 변화를 원치 않을 가능성이 있다. 부모집단의 경우 연령이 41-45세일 때 직업이 기타직일 때 가족과의 갈등 변화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집단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자녀집단의 인터넷 이용을 감독하기는 하나 자녀집단이 가족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인식하고 갈등이 낮아(박희경, 2004; 양성순, 2003) 변화 요구도가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자녀의 변화에 대한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 학교성적, 개인 용돈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학생일 때 학교성적이 중·하위권일 때, 개인 용돈이 2만원 이상일 때 변화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이 양호한 자녀집단의 성적이 높으며(안은경, 2006) 인터넷 비중독자의 비율로 높은 것으로 조사된 연구의 결과(조춘범, 2001; 허정미, 2004)와 같이 학교성적이 높은 경우 인터넷을 적정수준 이용하여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거나 적게 경험하기 때문에 요구도가 없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23> 자녀 집단과 부모 집단의 개인 관련 변인에 대한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 차이

변인			인터넷이용시간 변화요구도				인터넷이용사이트 변화요구도				가족과의 갈등변화요구도					자녀의 변화에 대한 변화요구도					자녀의 언어사용 변화요구도					전체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녀 집단의 개인 관련 변인	성별	남	#121	21.4	154	27.2	0.01	100	17.7	#175	30.9	4.05 *	48	8.5	#227	40.1	3.73 *	95	16.8	#180	31.8	1.71 *	115	20.3	#160	28.3	0.19	34	6.0	#240	42.5	3.26 *	
		여	127	22.4	#164	29.0		#130	23.0	161	28.5		#70	12.4	221	39.0		#116	20.5	175	30.9		#127	22.4	164	29.0		#52	9.2	239	42.3		
	연령	13세이하	109	19.3	#167	29.5	4.09 *	98	17.3	#178	31.5	5.87 **	#62	11.0	#234	41.3	0.85	97	17.1	#179	31.6	1.05	111	19.6	#165	29.2	1.42	#47	8.3	229	40.5	1.37	
		14세이상	#139	24.6	151	26.7		#132	23.3	158	27.9		56	9.9	214	37.8		#114	20.1	176	31.1		#131	23.1	159	28.1		39	6.9	#250	44.3		
	성적	상위권	84	14.8	#127	22.4	2.67	82	14.5	#129	22.8	1.71	#44	7.8	167	29.5	0.13	66	11.7	#145	25.6	5.30 *	84	14.8	#127	22.4	1.20	#34	6.0	176	31.1	0.95	
		중위권	#73	12.9	92	16.3		#74	13.1	91	16.1		33	5.8	#132	23.3		#69	12.2	96	17.0		#73	12.9	92	16.3		#27	4.8	138	24.4		
		하위권	#91	16.1	99	17.5		74	13.1	#116	20.5		#41	7.2	149	26.3		#76	13.4	114	20.1		#85	15.0	105	18.6		25	4.4	#165	29.2		
	용돈	1만원이하	94	16.6	#150	26.5	5.07	85	15.0	#159	28.1	7.63 *	#52	9.2	192	33.9	0.06	81	14.3	#163	28.8	6.55 *	98	17.3	#146	25.8	5.67 *	#39	6.9	205	36.3	0.25	
		1-2만원	#56	9.9	65	11.5		49	8.7	#72	12.7		25	4.4	#96	17.0		0.06	41	7.2	#80		14.1	45	8.0	#76		13.4	17	3.0	#104		18.4
		2만원이상	#98	17.3	103	18.2		#96	17.0	105	18.6		41	7.2	#160	28.3		#89	15.7	112	19.8		#99	17.5	102	18.0		30	5.3	#170	30.1		
부모 집단의 개인 관련 변인	성별	남	#93	20.1	131	28.3	0.23	#114	24.6	110	23.8	0.00	35	7.6	#189	40.8	0.32	#74	16.0	150	32.4	0.23	89	19.2	#135	29.2	0.08	25	5.4	#199	43.0	0.11	
		여	94	20.3	#145	31.3		121	26.1	#118	25.5		#42	9.1	197	42.6		74	16.0	#165	35.6		#98	21.2	141	30.5		#29	6.3	210	45.3		
	연령	40세이하	51	11.0	#107	23.1	10.98 ***	68	14.7	#90	19.4	7.91 **	21	4.5	#137	29.6	4.99 *	42	9.1	#116	25.1	4.08	62	13.4	#96	20.7	0.24	16	3.5	#142	30.7	3.02	
		41-45세	#90	19.4	92	19.9		#106	22.9	76	16.4		#39	8.4	143	30.9		#67	14.5	115	24.8		#76	16.4	106	22.9		#27	5.8	155	33.5		
		46세이상	46	9.9	#77	16.6		61	13.2	#62	13.4		17	3.7	#106	22.9		39	8.4	#84	18.1		49	10.6	74	16.0		11	2.4	#112	24.2		
	교육 수준	고졸이하	82	17.7	#148	32.0	4.26 *	113	24.4	#117	25.3	0.48	36	7.8	#194	41.9	0.32	67	14.5	#163	35.2	1.69	#93	20.1	137	29.6	0.00	24	5.2	#206	44.5	0.67	
		전문대졸이상	#105	22.7	128	27.7		#122	26.3	111	24.0		#41	8.9	192	41.5		#81	17.5	152	32.8		94	20.3	#139	30.0		#30	6.5	203	43.8		
	직업	관리,사무직	#76	16.4	93	20.1	3.84	#91	19.7	78	16.9	3.23	28	6.1	#141	30.5	8.03 **	#62	13.4	107	23.1	4.56	#71	15.3	98	21.2	3.02	#20	4.3	149	32.2	3.00	
판매,서비스직		56	12.1	#106	22.9	73		15.8	#89	19.2	18		3.9	#144	31.1	42		9.1	#120	25.9	57		12.3	#105	22.7	14		3.0	#148	32.0			
	기타	#55	11.9	77	16.6		#71	15.3	61	13.2		#31	6.7	101	21.8		#44	9.5	88	19.0		#59	12.7	73	15.8		#20	4.3	112	24.2			

주) # 기대치<관찰치 \*p<.05 \*\*p<.01 \*\*\*p<.001

자녀의 인터넷 언어사용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개인 용돈이 2만원 이상일 때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은 개인관련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개인 용돈이 많을 때 채팅시 언어폭력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진연주, 2001)와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자녀집단은 용돈을 이용하여 PC방 등에서 오랜 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습관적으로 채팅용 언어를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성별과 학년, 학교성적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일상생활에서 인터넷 언어사용이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는 자녀의 성별과 개인 용돈, 부모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이용에 있어 남학생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기 쉽고 비행을 경험하나 변화 요구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5개 하위 영역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24>와 같다.

인터넷이용시간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어머니 직업이 있을 때 변화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직업이 있을 때 가정에서 자녀집단의 인터넷 이용을 감독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부모집단의 경우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인터넷이용사이트 변화 요구도는 생활수준이 중 집단일 때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수준이 상집단과 하집단은 요구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수준이 상인 집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는 등 부모와의 접촉 빈도가 높으며 생활수준이 하인 집단은 부모의 적절한 감독을 받지 못하여 방치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변화 요구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부모집단의 경우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과의 갈등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자녀 용돈이 1만원 이하일 때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4>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대한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 차이

변인		인터넷이용시간 변화요구도					인터넷이용사이트 변화요구도					가족과의 갈등 변화요구도					자녀의 변화에 대한 변화요구도					자녀의 언어사용 변화요구도					전체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자녀 집단의 가정 관련 변인	아버지 연령	40세이하	33	5.8	#48	8.5		29	5.1	#52	9.2		#17	3.0	64	11.3		24	4.2	#57	10.1		31	5.5	#50	8.8		11	2.0	#70	12.4	
		40-45세	#129	22.8	159	28.1	0.42	#121	21.4	167	29.5	1.01	#64	11.3	224	39.6	0.84	#121	21.4	167	29.5	5.99*	#130	23.0	158	27.9	1.55	#52	9.2	235	41.6	3.96
		46세이상	86	15.2	111	19.6		80	14.1	#117	20.7		37	6.5	#160	28.3		66	11.7	#131	23.1		81	14.3	#116	20.5		23	4.1	#174	30.8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131	23.1	161	28.5		#125	22.1	167	29.5		60	10.6	#232	41.0		#116	20.5	176	31.1		#129	22.8	163	28.8		44	7.8	#247	43.7	
		전문대졸이상	117	20.7	#157	27.7	0.27	105	18.6	#169	29.9	1.18	#58	10.3	216	38.2	0.03	95	16.8	#179	31.6	1.54	113	20.0	#161	28.5	0.50	#42	7.4	232	41.1	0.00
	아버지 직업	관리.사무직	103	18.2	#153	27.0		96	17.0	#160	28.3		51	9.0	#205	36.2		83	14.7	#173	30.6		101	17.8	#155	27.4		#39	6.9	217	38.4	
		판매.서비스직	#108	19.1	133	23.5	4.13	#104	18.4	137	24.2	1.91	#57	10.1	184	32.5	2.97	#100	17.7	141	24.9	4.74*	#110	19.4	131	23.1	2.09	#42	7.4	199	35.2	4.17*
		기타	#37	6.5	32	2.7		#30	5.3	39	6.9		10	1.8	#59	10.4		#28	5.0	41	7.2		#31	5.5	38	6.7		5	0.9	#63	11.2	
	어머니 직업	있음	#150	26.5	170	30.0	2.80*	#132	23.3	188	33.2	0.12	#71	12.5	249	44.0	0.80	#125	22.1	195	34.5	1.00	#140	24.7	180	31.8	0.30	#53	9.4	266	47.1	1.10
		없음	98	17.3	#148	26.2		98	17.3	#148	26.2		47	8.3	#199	35.2		86	15.2	#160	28.3		102	18.0	#144	25.4		33	5.8	#213	37.7	
	주택유형	단독	#95	16.8	106	18.7		#89	15.7	112	19.8		#45	8.0	156	27.6		#84	14.8	117	20.7	2.71*	#98	17.3	103	18.2	4.58*	30	5.3	#171	30.3	0.02
		기타	153	27.0	#212	37.5	1.50	141	24.9	#224	39.6	1.71	73	12.9	#292	51.6	0.45	127	22.4	#238	42.0	*	14	25.4	#221	39.1	*	#56	9.9	308	54.5	
생활수준	상	87	15.4	#115	20.3		25	4.4	#59	10.4		14	2.5	#70	12.4		75	13.3	#127	22.4		85	15.0	#117	20.7		#32	5.7	170	30.1		
	중	#126	22.3	154	27.2	0.36	#124	21.9	156	27.6	5.69*	#60	10.6	220	38.9	1.05	#108	19.1	172	30.4	0.76	#123	21.7	157	27.7	0.37	#46	8.1	233	41.2	2.52	
	하	35	6.2	#49	8.7		81	14.3	#121	21.4		#44	7.8	158	27.9		28	5.0	#56	9.9		34	6.0	#50	8.8		8	1.4	#76	13.5		
부모 집단의 가정 관련 변인	자녀용돈	1만원이하	#47	10.2	63	13.6		#58	12.5	52	11.2		#28	6.1	82	17.7		#38	8.2	72	15.6		#50	10.8	60	13.0		#20	4.3	90	19.4	
		1-2만원	40	8.6	#82	17.7	3.99	54	11.7	#68	14.7	2.80	17	3.7	#105	22.7	8.10**	33	7.1	#89	19.2	1.89	43	9.3	#79	17.1	2.52	14	3.0	#108	23.3	6.57*
		2만원이상	#100	21.6	131	28.3		#123	26.6	108	23.3		32	6.9	#199	43.0		#77	16.6	154	33.3		#94	20.3	137	29.6		20	4.3	#211	45.6	
	주택유형	단독	87	18.8	#132	28.5		109	23.5	#110	23.8		36	7.8	#183	39.5		68	14.7	#151	32.6	0.16	#94	20.3	125	27.0	1.11	#27	5.8	192	41.5	0.18
		기타	#100	21.6	144	31.1	0.08	#126	27.2	118	25.5	0.16	#41	8.9	203	43.8	0.01	#80	17.3	164	35.4		93	20.1	#151	32.6		27	5.8	#217	46.9	
	생활수준	상	#55	11.9	64	13.8		#61	13.2	85	12.5		19	4.1	#100	21.6		#43	9.3	76	16.4		48	10.4	#71	15.3		#15	3.2	104	22.5	
중		100	21.6	#151	32.6	3.09	#128	27.7	123	26.6	0.08	39	8.4	#212	45.8	1.22	78	16.9	#173	37.4	1.41	#105	22.7	146	31.5	0.78	27	5.8	#224	48.4	0.44	
하	32	6.9	#61	13.2		46	9.9	#47	10.2		#19	4.1	74	16.0		27	5.8	#66	14.3		34	7.3	#59	12.7		#12	2.6	81	17.5			

주) # 기대치<관찰치 \*p<.05 \*\*p<.01 \*\*\*p<.001



자녀의 변화에 대한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아버지 연령, 아버지 직업, 주택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연령이 40-45세일 때, 아버지 직업이 판매·서비스직과 기타직일 때, 주택유형이 단독일 때 변화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사무직과 같은 전문직일 때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인터넷 이용에 대한 통제와 올바른 이용법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미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녀를 통제하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가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의 인터넷 언어사용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주택유형이 단독일 때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5개 하위 영역에 대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교차분석( $\chi^2$ -test)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표25>와 같다.

인터넷이용시간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집단은 컴퓨터 이용능력이 중 집단일 때 변화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집단이 컴퓨터 이용이 가능할 때 대화가 풍부해지고 가족간의 유대 강화(조춘범, 2001)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같이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문제가 적거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화 요구도가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인터넷이용사이트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인터넷 이용 일 수가 4일 이상일 때, 인터넷 이용 규칙이 없을 때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이용 일 수가 많을수록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역기능을 경험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기가 쉽다. 그러므로 인터넷 이용 일수가 많을수록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가족과의 갈등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인터넷 이용 규칙이 없을 때, 부모집단의 경우 컴퓨터 이용능력이 중 집단일 때 변화 요구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의 인터넷 이용 규칙이 없을 때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경우 아무런 죄의식없이 인터넷을 이용하기가 쉽고 무절제하게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면서 가족과의 갈등을 경험하기 쉬울 것으로 해석된다.

<표25>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대한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 차이

변인			인터넷이용시간변화요구도				인터넷이용사이트변화 요구도				가족과의 갈등변화요구도				자녀의 변화에 대한 요구도				자녀의 언어사용 변화요구도				전체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있음		없음		$\chi^2$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chi^2$	빈도	%	빈도	%	$\chi^2$	빈도	%	빈도	%	$\chi^2$	빈도	%	빈도	%	$\chi^2$	빈도	%	빈도	%	$\chi^2$					
자녀 집단의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	컴퓨터 설치장소	본인방	#87	15.4	110	19.4	0.01	80	14.1	#117	20.7	0.00	41	7.2	#156	27.6	0.00	68	12.0	#129	22.8	0.99	76	13.4	#121	21.4	2.15	#30	5.3	166	29.4	0.00
		기타	161	28.5	#208	36.8		#150	26.5	219	38.7		#77	13.6	292	51.6		#143	25.3	226	39.9		#166	29.3	203	35.9		56	9.9	#313	55.4	
	인터넷 이용일수	3일이하	#91	16.1	112	19.8	0.13	73	12.9	#130	23.0	2.87 *	#44	7.8	159	28.1	0.13	#80	14.1	123	21.7	0.61	#89	15.7	114	20.1	0.15	#35	6.2	#311	55.0	1.00
		4일이상	157	27.7	#206	36.4		#157	27.7	206	36.4		74	13.1	#289	51.1		131	23.1	#232	41.0		153	27.0	#210	37.1		51	9.0	168	29.7	
	인터넷 이용시간	60분이하	167	29.5	#222	39.2	0.40	155	27.4	#234	41.3	0.32	#88	15.6	301	53.2	2.37	142	25.1	#247	43.6	0.32	164	29.0	#225	39.8	0.18	#64	11.3	324	57.4	1.56
		61분이상	#81	14.3	96	17.0		#75	13.3	102	18.0		30	5.3	#147	26.0		#69	12.2	108	19.1		#78	13.8	99	17.5		22	3.9	#155	27.4	
	인터넷 이용규칙	없음	55	9.7	#71	12.5	0.00	#59	10.4	67	11.8	2.57 *	#34	6.0	92	16.3	3.70 *	#51	9.0	75	13.3	0.71	#54	9.5	72	12.7	0.00	#25	4.4	101	17.9	2.68 *
		있음	#193	34.1	247	43.6		171	30.2	#269	47.5		84	14.8	#356	62.9		160	28.3	#280	49.5		188	33.2	#252	44.5		61	10.8	#378	66.9	
부모 집단의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	컴퓨터 이용능력	하	62	13.4	#122	26.4	10.22 ***	91	19.7	#93	20.1	3.04	28	6.1	#156	33.7	7.90 **	49	10.6	#135	29.2	6.65 *	69	14.9	#115	24.8	6.63 *	19	4.1	#165	35.6	8.07 **
		중	#79	17.6	78	16.9		#88	19.0	69	14.9		#36	7.8	121	26.1		#62	13.4	95	20.5		#76	16.4	81	17.5		#27	5.8	130	28.1	
		상	46	9.9	#76	16.4		56	12.1	#66	14.3		13	2.8	#109	23.5		37	8.0	#85	18.4		42	9.1	#80	17.3		8	1.7	#114	24.6	
	컴퓨터 설치장소	자녀방	72	15.6	#122	26.4	1.49	91	19.7	#103	22.3	1.98	#35	7.6	159	34.3	0.48	57	12.3	#137	29.6	1.03	74	16.0	#120	25.9	0.70	#24	5.2	170	36.7	0.16
		기타	#115	24.8	154	33.3		#144	31.1	125	27.0		42	9.1	#227	49.0		#91	19.7	178	38.4		#113	24.4	156	33.7		30	6.5	#239	51.6	
	인터넷 이용시간	60분이하	#134	28.9	197	42.6	0.00	#170	36.7	161	34.8	0.17	#60	13.0	271	58.5	1.87	103	22.3	#228	49.2	0.38	129	27.9	#202	43.6	0.97	#39	8.4	292	63.1	0.02
		61분이상	53	11.5	#79	17.1		65	14.0	#67	14.5		17	3.7	#115	24.8		#45	9.7	87	18.8		#58	12.5	74	16.0		15	3.2	#117	25.3	
	인터넷 이용규칙	없음	32	6.9	#57	12.3	0.90	41	8.9	#48	10.4	0.97	12	2.6	#77	16.6	0.79	26	5.6	#63	13.6	0.38	31	6.7	#58	12.5	1.41	9	1.9	#80	17.3	0.26
있음		#155	33.5	219	47.3	#194		41.9	180	38.9	#65		14.0	309	66.7	#122		26.4	252	54.4	#156		33.7	218	47.1	#45		9.7	329	71.1		

주) #기대치<관찰치 \*p<.05 \*\*p<.01 \*\*\*p<.001

자녀의 변화에 대한 변화 요구도와 자녀의 인터넷 언어사용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부모의 컴퓨터 능력이 중집단일 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인터넷 이용 규칙에 따라 2개의 하위영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컴퓨터 이용능력이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집단의 컴퓨터 이용능력에 따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독하거나 오히려 방임하게 되어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3.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 1)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실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실태를 살펴보면 <표26>과 같다. 자녀집단의 65.7%, 부모집단의 90.9%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으며, 전체적으로 자녀집단에 비해 부모집단이 갈등을 더 높게 인식했다. 이는 부모의 약 40%가 인터넷 이용에 대해 자녀들과 갈등이 있다고 밝힌 황미영(2001)과 Lenhart(2001)의 연구보다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자녀집단의 68.9%, 부모집단의 88.5%가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있다고 응답했다. 두 번째로는 인터넷 주 이용 사이트가 오락 위주일 때, 자녀집단의 60.1%, 부모집단의 83.2%가 실제적 갈등이 있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 가족간의 대화시간, 함께하는 활동 감소에 대해 부모집단의 경우 73.0%가 실제적 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자녀집단의 경우는 44.4%로 실제적 갈등을 높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6>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실태

변인		자녀집단(N=566)			부모집단(N=463)		
		평균 (SD)	갈등 없다	갈등 있다	평균 (SD)	갈등 없다	갈등 있다
인터넷이용 시간갈등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	2.98 (1.18)	176 (31.1%)	390 (68.9%)	3.51 (0.87)	53 (11.5%)	410 (88.5%)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밤이나 새벽	2.61 (1.45)	274 (48.4%)	292 (51.6%)	2.77 (1.11)	200 (43.2%)	263 (56.8%)
Cronbach $\alpha$ 계수		0.6408			0.5358		
인터넷이용 사이트갈등	인터넷 이용 사이트가 오락위주	2.75 (1.23)	266 (39.9%)	300 (60.1%)	3.41 (0.97)	78 (16.8%)	385 (83.2%)
가족과의 갈등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감독	2.21 (1.11)	346 (61.1%)	220 (38.9%)	2.93 (0.90)	134 (28.9%)	329 (71.1%)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칙이나 벌칙 많음	1.95 (1.05)	412 (72.8%)	154 (27.2%)	2.66 (0.88)	184 (39.7%)	279 (60.3%)
	가족간의 대화시간, 함께하는 활동 감소	2.24 (1.09)	315 (55.6%)	251 (44.4%)	2.95 (0.90)	125 (27.0%)	338 (73.0%)
	부모님과 자신의 컴퓨터 관련 지식 차이	2.36 (1.10)	295 (52.1%)	271 (47.9%)	2.88 (0.93)	157 (33.9%)	306 (66.1%)
Cronbach $\alpha$ 계수		0.7367			0.7833		
자녀의 변화에 대한 갈등	인터넷으로 인한 신체변화(시력저하, 어깨아픔)	2.38 (1.24)	304 (53.7%)	262 (46.3%)	3.08 (1.02)	136 (29.4%)	327 (70.6%)
	인터넷으로 인한 생활변화(늦잠, 학교결석)	1.86 (1.10)	416 (73.5%)	150 (26.5%)	2.73 (1.09)	211 (45.5%)	252 (54.5%)
	인터넷으로 인한 행동변화(폭력적, 욕을 자주함)	2.05 (1.13)	387 (68.4%)	179 (31.6%)	2.69 (1.02)	202 (43.6%)	261 (56.4%)
Cronbach $\alpha$ 계수		0.6953			0.7543		
자녀의 언어사용갈등	인터넷 언어를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	2.33 (1.09)	297 (52.5%)	269 (47.5%)	2.78 (0.98)	165 (35.6%)	298 (64.4%)
전체		2.34 (0.74)	194 (34.3%)	372 (65.7%)	2.95 (0.66)	42 (9.1%)	421 (90.9%)
Cronbach $\alpha$ 계수		0.8547			0.8841		

주) \* 5점 Likert 척도: 1: 전혀 갈등이 없다 3: 그저 그렇다 5: 정말 갈등이 있다

또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신체변화는 부모집단의 경우 70.6%, 자녀집단의 경우 46.3%로 실제적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생활변화에 대해 자녀집단의 26.5%, 부모집단의 54.5%가 실제적 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여 생활변화에 대한 실제적 갈등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컴퓨터의 보급과 가정정보화로 가족간 친밀감이나 유대가 증가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자녀의 컴퓨터 통신과

다 이용으로 인한 세대간의 갈등이 증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선행연구들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이다(조정문, 1997).

## 2)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라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5개 하위영역에 대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27>과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터넷이용시간에 대한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일 때, 연령이 14세 이상일 때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부모집단의 경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40세 이하 집단에 비해 41세 이상 집단일 때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집단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집단의 감독하에 인터넷을 이용하기가 쉬우며 자녀집단의 연령이 높을수록 오랜 시간 인터넷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있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자녀집단의 연령과 부모집단의 연령이 상관관계가 높아 부모집단의 경우 41세 이상일 때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인터넷이용사이트에 대한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이 남학생일 때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연구에서(라민오, 2000; 임은미·이은숙, 2002)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폭력적인 게임, 음란물 접촉, 폭탄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부모집단의 경우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다른 집단에 비해 41-45세 집단이 실제적 갈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원과의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성별 변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의 변화에 대한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이 남학생이고 개인용돈이 1만원 이하일 때, 부모집단의 경우 연령이 41-45세 집단



일 때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7>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변인	구분	빈도	인터넷이용 시간갈등		인터넷이용 사이트갈등		가족원과의 갈등		자녀의 변화에 대한 갈등		인터넷언어 사용 갈등		전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자녀 집단의 개인 관련 변인	성별	남	275	2.80		2.98		2.23		2.08		2.29		2.40	
		여	291	2.54		2.27		1.97		1.90		2.11		2.11	
	T값			-2.89***		-7.30***		-3.81***		-2.53**		-2.05*		-4.55***	
	연령	13세이하	276	2.49		2.63		2.09		2.01		2.12		2.22	
		14세이상	290	2.83		2.58		2.10		1.97		2.27		2.28	
	T값			3.34***		0.36		-0.12		-0.84		1.44		0.83	
	성적	상위권	211	2.76		2.64		2.16		2.06		2.21	B	2.29	
		중위권	165	2.79		2.83		2.14		2.11		2.36	AB	2.33	
		하위권	190	2.91		2.86		2.28		2.16		2.48	A	2.43	
	F값			0.93		1.75		1.52		0.62		2.88*		1.87	
개인용돈	1만원이하	224	2.73		2.75		2.20		2.18	A	2.38	A	2.36		
	1-2만원	121	2.78		2.62		2.09		1.93	B	2.11	B	2.22		
	2만원이상	201	2.94		2.88		2.25		2.12	AB	2.44	A	2.41		
	F값			1.93		1.57		1.53		2.87*		3.41*		2.46	
부모 집단의 개인 관련 변인	성별	남	224	3.04		3.34		2.79		2.77		2.68		2.89	
		여	239	3.04		3.23		2.75		2.68		2.64		2.84	
	T값			0.15		1.02		0.58		1.21		0.23		0.85	
	연령	40세이하	158	2.96	B	3.30	B	2.76		2.71	B	2.73		2.83	B
		41-45세	182	3.22	A	3.55	A	2.91		2.92	A	2.82		3.02	A
		46세이상	123	3.25	A	3.37	AB	2.89		2.87	AB	2.76		2.98	A
	F값			6.74***		3.24*		2.45		3.43*		0.49		4.79***	
	교육수준	고졸이하	230	3.02		3.24		2.80		2.73		2.67		2.87	
		전문대졸이상	233	3.05		3.33		2.73		2.71		2.65		2.85	
	T값			-0.17		-0.95		1.13		0.33		0.35		0.43	
직업	관리·사무직	169	3.15		3.49		2.82		2.84		2.77		2.94		
	판매·서비스직	162	3.07		3.33		2.84		2.78		2.75		2.90		
	기타	132	3.22		3.42		2.93		2.89		2.82		3.00		
F값			1.46		1.32		1.06		0.72		0.21		1.12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자녀의 인터넷언어 사용에 대한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개인관련 변인 중 성별이 남학생일 때, 학교성적이 하위권일 때, 개인용돈이 2만원 이상일 때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성적이 하위권

인 경우 인터넷중독자의 비율이 높고 부모와의 갈등을 높게 인식한다고 한 연구(안은경, 2006; 조준범, 2001)와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부모집단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개인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녀집단의 성별과 부모집단의 연령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결과와 같이 여학생보다 남학생일 때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5개 하위영역에 대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28>과 같다.

인터넷이용시간에 대한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모집단은 자녀용돈이 2만원 이상일 때 실제적 갈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용사이트에 대한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아버지 직업과 주택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 직업이 기타직일 때 주택유형이 단독일 때 실제적 갈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희경(2004)과 양성순(2003)의 연구와 같이 아버지의 직업이 기타일 때 청소년들이 아버지와의 갈등을 높게 인식한다고 한 것과 같은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족원과의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아버지 연령과 주택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아버지 연령은 40세 이하일 때, 주택유형이 단독일 때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변화에 대한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아버지 연령이 40세 이하일 때 부모집단의 경우 자녀용돈이 2만원 이상일 때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대한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주택유형이 단독일 때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였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28>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변인	구분	빈도	인터넷이용 시간갈등		인터넷이용 사이트갈등		가족원과의 갈등		자녀의 변화에 대한 갈등		인터넷언어 사용 갈등		전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자녀 집단의 가정 관련 변인	아버지 연령	40세이하 40-45세 46세이상	81 288 197	2.95 2.80 2.78		2.92 2.76 2.72		2.47 2.14 2.16	A B B	2.33 2.08 2.05	A B B	2.42 2.28 2.41		2.55 2.32 2.32	A B B	
	F값			0.57		0.67		5.09***		2.70*		0.99		3.37*		
	아버지 교육수준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292 274	2.69 2.64		2.63 2.59		2.12 2.06		2.06 1.91		2.19 2.21		2.28 2.22		
	T값			0.30		0.19		0.61		1.79		-0.38		0.90		
	아버지 직업	관리·사무직 판매·서비스직 기타	256 241 69	2.77 2.80 3.03		2.64 2.83 3.05	B AB A	2.10 2.27 2.27		2.03 2.13 2.31		2.33 2.35 2.38		2.27 2.39 2.50	B AB A	
	F값			1.42		3.27*		2.85		2.67		0.06		3.00*		
	어머니 직업	있음 없음	320 246	2.69 2.63		2.63 2.58		2.10 2.08		2.05 1.92		2.19 2.20		2.27 2.22		
	T값			0.43		0.32		0.26		1.58		-0.16		0.78		
	주택유형	단독 기타	201 365	2.69 2.66		2.79 2.51		2.19 2.04		2.04 1.96		2.34 2.12		2.34 2.20		
	T값			0.58		2.94***		2.34**		1.35		2.72***		2.44**		
	생활수준	상 중 하	202 280 84	2.80 2.87 2.68		2.74 2.76 2.87		2.17 2.23 2.16		2.00 2.13 2.27		2.35 2.35 2.32		2.31 2.38 2.36		
	F값			0.81		0.34		0.46		2.67		0.03		0.54		
	부모 집단의 가정 관련 변인	자녀용돈	1만원이하 1-2만원 2만원이상	110 122 231	3.05 2.97 3.27	B B A	3.41 3.28 3.49		2.81 2.84 2.88		2.71 2.81 2.90	B AB A	2.75 2.69 2.83		2.88 2.88 3.01	
		F값			7.88***		2.21		0.53		2.36*		1.06		2.94	
		주택유형	단독 기타	219 244	3.04 3.03		3.32 3.25		2.79 2.75		2.71 2.74		2.63 2.68		2.87 2.85	
T값			0.06		0.64		0.62		-0.37		-0.54		0.14			
생활수준		상 중 하	119 251 93	3.12 3.15 3.12		3.50 3.40 3.36		2.82 2.85 2.92		2.95 2.81 2.75		2.91 2.76 2.66		2.98 2.93 2.92		
F값			0.09		0.79		0.57		2.17		2.21		0.34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5개 하위영역에 대한 인식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29>와 같다.

자녀집단의 경우 5개 하위영역에서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일 수, 인터넷 이용 규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인터넷 이용 시간이 61분 이상일 때, 인터넷 이용 일 수가 4일 이상일 때, 인터넷 이용 규칙이 있을 때 실제적 갈등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집단이 인터넷을 오랜 시간 빈번히 이용하며 가정에 인터넷 이용 규칙이 있을 때 실제적 갈등을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부모집단의 경우 인터넷이용시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가족원과의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자녀의 변화에 대한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자녀의 인터넷 언어 사용에 대한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등 4개의 하위 영역에서 본인의 컴퓨터 이용 능력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이용 능력이 중집단일 때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컴퓨터 이용 능력이 낮을수록 자녀와 갈등이 있다고 한 대부분의 연구(조명옥, 2002; 조춘범, 2001)와는 다른 결과이다. 이는 부모의 컴퓨터 이용 능력이 높을수록 인터넷 이용시 자녀들과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기 쉬우며, 부모의 컴퓨터 이용 능력이 낮을수록 자녀집단의 인터넷 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61분 이상일 때, 가족원과의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인터넷 이용시간이 61분 이상일 때와 인터넷 이용 규칙이 있을 때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일 수, 인터넷 이용 규칙이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컴퓨터 이용능력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표29>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변인	구분	빈도	인터넷이용 시간갈등		인터넷이용 사이트갈등		가족원과의 갈등		자녀의 변화에 대한 갈등		인터넷언어 사용 갈등		전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자녀 집단의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	컴퓨터 설치장소	본인방	197	2.62		2.62		2.11		2.01		2.19		2.25	
		기타	369	2.69		2.60		2.09		1.98		2.20		2.25	
	T값			-0.44		0.58		0.84		0.65		0.16		0.54	
	인터넷 이용 시간	60분이하	389	2.59		2.51		2.04		1.92		2.16		2.18	
		61분이상	177	2.86		2.82		2.21		2.16		2.30		2.42	
	T값			-3.06***		-3.34***		-2.70***		-3.62***		-2.03*		-3.93***	
	인터넷 이용 일 수	3일이하	203	2.51		2.43		1.96		1.83		2.06		2.10	
		4일이상	363	2.75		2.71		2.17		2.08		2.28		2.34	
	T값			-1.98*		-2.17*		-2.67***		-2.95***		-1.85		-3.18***	
	인터넷 이용 규칙	없음	126	2.30		2.17		1.80		1.77		1.89		1.95	
	있음	440	2.78		2.74		2.18		2.06		2.30		2.34		
T값			-3.48***		-3.95***		-3.93***		-2.42**		-3.07***		-4.37***		
부모 집단의 인터넷 이용 관련 변인	컴퓨터 이용 능력	하	184	3.09	B	3.41		2.89	A	2.82	B	2.74	B	2.94	B
		중	157	3.36	A	3.43		2.94	A	3.05	A	2.96	A	3.09	A
		상	122	2.94	B	3.41		2.70	B	2.58	C	2.60	B	2.76	C
	F값			11.56***		0.02		4.88***		13.19***		6.14***		10.69***	
	컴퓨터 설치장소	자녀방	194	3.06		3.31		2.80		2.72		2.67		2.88	
		기타	269	3.02		3.26		2.75		2.73		2.65		2.85	
	T값			0.81		0.76		0.99		0.12		0.57		0.79	
	인터넷 이용시간	60분이하	331	3.18		3.31		2.61		2.76		2.66		2.90	
		61분이상	132	3.05		3.22		2.83		2.64		2.67		2.76	
	T값			1.47		0.20		2.38**		0.90		-0.68		1.50	
인터넷 이용규칙	없음	89	2.94		3.02		2.56		2.61		2.43		2.70		
	있음	374	3.06		3.35		2.82		2.76		2.72		2.90		
T값			-0.16		-1.45		-2.11*		-0.24		-1.54		-1.25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  
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5개 하위영역에 대해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집단간 차이 분석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30>과 같다.

자녀집단의 경우 모든 하위영역에서 부모의 감독과 생활의 변화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모든 하위영역에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



시 걱정정도, 부모의 감독, 생활의 변화, 인터넷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30>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차이

변인	구분	빈도	인터넷이용 시간갈등		인터넷이용 사이트갈등		가족원과의 갈등		자녀의 변화에 대한 갈등		인터넷언어 사용 갈등		전체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평균	D
자녀 집단의 잠재적 갈등에 대한 인식 변인	부모의 감독	없음	351	2.45		2.45		1.88		1.86		2.05		2.07
		있음	215	3.02		2.87		2.46		2.20		2.45		2.56
	T값			-6.30***		-4.24***		-9.29***		-4.75***		-4.85***		-8.44***
	부모태도	방임형	115	2.80	AB	2.92		2.24	AB	2.21		2.25		2.40
	유형	민주형	210	2.69	B	2.68		2.07	B	2.05		2.36		2.26
		권위형	198	2.96	A	2.78		2.31	A	2.10		2.38		2.42
	F값			2.87*		1.52		4.78***		1.24		0.55		2.81*
	생활의 변화	없음	354	2.26		2.26		1.84		1.71		1.92		1.95
		있음	212	2.92		2.82		2.25		2.16		2.37		2.44
	T값			6.54***		4.97***		5.58***		5.44***		4.51***		7.14***
부모 집단의 잠재적 갈등에 대한 인식 변인	인터넷이용 변화요구도	없음	255	2.49		2.55		1.97		1.89		2.12		2.13
		있음	311	2.81		2.65		2.20		2.07		2.26		2.35
	T값			3.16***		0.71		3.19***		2.15*		1.38		3.12***
	자녀 인터넷 이용시 걱정 정도	없음	118	2.71	B	2.97	B	2.52	C	2.29	B	2.11	C	2.50
		보통	218	3.27	A	2.57	A	2.90	B	2.99	A	2.92	B	3.05
		많음	116	3.34	A	3.58	A	3.11	A	3.09	A	3.17	A	3.19
	F값			28.11***		18.41***		24.55***		41.15***		49.09***		49.71***
	부모의 감독	없음	140	2.73		2.91		2.38		2.29		2.29		2.49
		있음	232	3.17		3.45		2.94		2.92		2.82		3.03
	T값			-4.84***		-4.40***		-6.97***		-7.07***		-4.73***		-7.86***
자녀 집단의 잠재적 갈등에 대한 인식 변인	부모태도	방임형	40	3.50	A	3.70	A	2.86		3.16	A	3.13	A	3.16
	유형	민주형	95	3.27	AB	3.23	B	2.72		2.92	B	2.77	B	2.92
		권위형	317	3.05	B	3.44	AB	2.89		2.77	B	2.73	B	2.92
	F값			8.63***		3.87**		2.56		5.54***		3.59**		3.15*
	생활의 변화	없음	389	2.41		2.42		2.35		2.22		2.24		2.45
		있음	74	3.17		3.46		2.85		2.83		2.75		3.00
	T값			6.45***		7.84***		4.50***		4.50***		3.01***		7.01***
	인터넷이용 변화요구도	없음	199	2.80		3.11		2.57		2.50		2.43		2.65
		있음	264	3.22		3.41		2.92		2.90		2.83		3.02
	T값			5.32***		3.16***		5.08***		4.76***		4.20***		5.89***

주) 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5 \*\*p<.01 \*\*\*p<.001

구체적으로 자녀집단의 경우 부모의 감독이 있을 때, 생활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였다. 부모집단의 경우 자녀가 인터넷 이용할 때 걱정을 많이 할수록, 부모의 감독이 있을 때, 자녀에게 생활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가 있을 때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즉, 부모집단이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감독하면서 자녀집단은 불만을 갖게 되며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자녀집단의 생활의 변화를 부모집단이 인식하게 되면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3)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분석

자녀집단이 인식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개인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인터넷 이용관련 변인,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의 영향을 Logistic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31>과 같다.

분석결과 자녀집단이 인식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개인관련 변인에서는 성별이었고, 가정관련 변인에서는 아버지 직업과 주택유형이었다.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서는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일 수, 인터넷 이용 규칙이,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에서는 부모의 감독, 생활의 변화, 부모의 태도 유형이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가 남학생일 때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오랜 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며(Christopher et al, 2000), 게임과 오락 채팅을 많이 한다는 선행연구들(김동인, 2002; 이기일, 2001)과 여학생의 사이버 윤리의식이 남학생보다 높아 비윤리적 행위를 적게한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31> 자녀집단이 인식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u>개인관련 변인</u>		
성별 (여)	0.3981*	0.2226
연령	-0.0314	0.0941
성적	0.0280	0.0846
용돈	-4.13E-6	6.477E-6
<u>가정관련 변인</u>		
아버지 연령	0.0411	0.0305
아버지 교육수준	0.0249	0.0639
아버지 직업 (판매·서비스직)		
관리·사무직	-0.4961*	0.2503
기타	-0.0207	0.3702
어머니 직업 (없음)	0.3100	0.2271
주택유형 (기타)	0.4815*	0.2256
생활수준	-0.0175	0.0766
<u>인터넷이용관련 변인</u>		
컴퓨터 설치 장소 (기타)	-0.0991	0.2322
인터넷 이용 시간 (61분 이상)	-0.4919*	0.2602
인터넷 이용 일 수	0.1256*	0.0579
인터넷 이용 규칙 (없음)	0.6447**	0.2609
<u>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관련 변인</u>		
부모의 감독 정도	1.1366***	0.1459
부모의 태도 유형 (민주형)		
방임형	0.6843**	0.2763
권위형	0.0923	0.2506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0.9798***	0.2968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없음)	0.2262	0.1686
상수	-1.8039	2.2191
Log Likelihood	175.6577***	

주) 갈등 있음: 1, 갈등 없음: 0(기준집단) \*p<.05 \*\*p<.01 \*\*\*p<.001

또한 아버지의 직업이 관리·사무직보다 판매·서비스직 일 때, 주택유형이 단독일 때, 인터넷 이용 시간이 61분 이상일 때, 인터넷 이용 일 수가 많을수록, 인터넷 이용 규칙이 있을 때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부모와의 관계가 좋지 않

다고 한 Christopher et al(2000)의 연구와 같은 결과로써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수록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집단은 부모의 감독 정도가 많을수록,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가 증가할수록, 부모의 태도 유형이 민주형에 비해 방임형일 때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부모의 태도유형이 방임형인 경우 자녀 혼자서 방치되는 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인터넷을 몰입하여 이용하게 되면서 인터넷 중독의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 조춘범의 연구(2001)와 부모의 태도가 과잉적이거나 방치적일수록 인터넷 중독 성향이 강해지고 부모와의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 이지항의 연구결과(2005)와 같이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적절한 관심과 개입이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자녀집단이 인식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은 청소년 개인 및 가정관련 변인보다 인터넷이용관련 변인과 잠재적 갈등 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이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집단이 인식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 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개인관련 변인, 가정관련 변인, 인터넷 이용관련 변인,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의 영향을 Logistic 회귀분석한 결과는 <표32>와 같다.

분석결과 연령, 주택유형, 컴퓨터 설치장소,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걱정 정도, 부모의 감독 정도, 부모의 태도 유형,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관련 변인으로는 부모집단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성인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이용률이 높고(한국인터넷진흥원, 2006) 인터넷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관심을 갖기 쉬우며 자녀와의 대화의 폭이 넓어질 수 있으나, 오히려 부모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아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감독이나 제재를 하기가 쉽기 때문에 부모-자녀간 갈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32> 부모집단이 인식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인	Parameter Estimate	Standard Error
<u>개인관련 변인</u>		
성별 (여)	-0.0971	0.4522
연령	-0.1704***	0.0528
교육수준 (전문대졸이상)	0.1091	0.4550
직업 (기타)		
관리·사무직	0.6315	0.6206
판매·서비스직	0.8635	0.5588
<u>가정관련 변인</u>		
자녀용돈	-0.0000	0.0000
주택유형 (기타)	-0.7198*	0.4349
생활수준	0.0644	0.1652
<u>인터넷이용관련 변인</u>		
컴퓨터 사용 능력	-0.0898	0.1907
컴퓨터 설치 장소 (기타)	-0.9925**	0.4516
인터넷 이용 시간	-0.1460	0.4588
인터넷 이용 규칙	-0.1143	0.5053
<u>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관련 변인</u>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걱정 정도	0.6235***	0.2089
부모의 감독 정도	1.1620***	0.3189
부모의 태도 유형 (방임형)		
민주형	-1.0546*	0.5656
권위형	0.8773*	0.5210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1.9382***	0.6538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없음)	-0.1235	0.3157
상수	5.6395*	3.3844
Log Likelihood	93.5980***	

주) 갈등 있음: 1, 갈등 없음: 0(기준집단) \*p<.05 \*\*p<.01 \*\*\*p<.001

가정관련 변인으로는 주택유형이 단독에 비해 기타일 때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으로는 컴퓨터 설치 장소가 기타일 때에 비해 자녀방일 때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는 컴퓨터가 가족공동의 공간보다 자녀방에 설치되어 있어 자녀들이 개인공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적절



히 통제나 감독을 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으로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걱정 정도가 많을 때, 부모의 감독 정도가 많을수록, 부모의 태도 유형이 민주형에 비해 방임형일 때와 방임형에 비해 권위형일 때,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가 많을 때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는 부모가 지나치게 자녀의 행동을 감독 및 통제할 때 인터넷에 몰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김경동, 2000; 조춘범, 2001)고 한 것과 같이 부모의 감독이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가져와 자녀가 인터넷에 몰입하거나 인터넷 중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가 나타나게 되기 쉽기 때문에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일어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V. 결론 및 제언

청소년들의 인터넷 이용이 증가하면서 인터넷 이용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터넷 비행과 인터넷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생활로 받아들이고 있는 청소년 자녀와 사회생활을 위한 도구로 받아들이는 부모와의 세대간 격차로 인해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개인 및 가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 연구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갈등 정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가정의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조사대상자는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는데 자녀집단은 제주시 지역의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 566명이었으며, 부모집단은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생을 자녀로 둔 463명이었다.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은 부모의 감독 정도, 부모의 태도 유형,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로 구성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에 따른 관련 변인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ANOVA analysis,  $\chi^2$ -test를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은 인터넷이용 시간갈등에 대한 인식, 인터넷이용 사이트갈등에 대한 인식, 가족원과의 갈등에 대한 인식, 자녀의 변화에 대한 갈등에 대한 인식, 인터넷 언어 사용 갈등에 대한 인식이었다.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갈등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이항변인이었으므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Logistic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에는 개인관련 특성, 가정관련 특성 및 인터넷이용관련 특성,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관련 특성 등이 포함되었다.

이 연구의 주요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감독정도는 전체적으로 자녀집단에 비해 부모집단이 약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녀집단은 2.51점, 부모집단은 3.12점으로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 수준으로 부모의 감독정도를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이용 시간, 이용시간대, 이용사이트, 이용장소, 접촉대상 등 5개의 하위영역 중 자녀집단과 부모집단 모두 인터넷 이용시간에 대한 감독 정도를 가장 높게 인식했으며, 온라인에서의 접촉 대상에 대해서는 감독 정도를 낮게 인식했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 유형에 대해 자녀집단의 경우 민주형, 권위형, 방임형 순으로 부모집단의 경우 권위형, 민주형, 방임형 순으로 인식하고 있어 부모-자녀간 부모의 태도유형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었다. 특히, 부모집단의 경우 2/3가 부모 자신의 태도 유형을 권위형으로 인식하고 있어 부모-자녀간 인식의 차가 크게 나타났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변화 정도에 대해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은 독서와 취미활동 시간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오락과 게임 시간이 가장 증가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부모집단이 자녀집단에 비해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생활변화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부모-자녀간 인식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서 인터넷 이용에 따른 자녀의 생활변화로 TV시청 시간이 가장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는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하는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순으로는 자녀집단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대의 변화 요구도로 나타나 자녀 스스로 밤 늦은 시간에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변화 요구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집단의 경우 오락위주의 인터넷 이용 사이트에 대한 변화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부모집단은 인터넷 이용 시간대보다도 자녀의 인터넷 이용용도에 대해 변화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가족간의 대화 시간, 함께하는 활동, 인터넷으로 인한 신체 변화 및 행동변화 순으로 변화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특성에 따른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감독 정도의 인식 차는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과 인터넷 이용규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따라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터넷과 관련한 지식을 갖고 있기가 쉬우며, 실제 오랜 시간 인터넷을 이용하고 늦은 밤까지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거나 금지 사이트인 음란물에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남학생일 때 부모의 감독을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부모집단의 경우 본인의 교육수준과 인터넷 이용규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감독 정도에 대해 자녀집단과 부모집단 모두 5개의 하위영역에서 인터넷 이용규칙이 있을 때 부모의 감독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이용규칙을 정하는 것 자체가 부모의 감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의 태도유형은 자녀집단의 경우 본인의 연령, 아버지 교육수준과 직업, 인터넷 이용 규칙이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었으며, 부모집단은 본인의 연령과 교육수준, 컴퓨터 이용능력, 인터넷 이용 규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자녀집단의 연령과 부모집단의 연령이 부모의 태도유형을 인식하는데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자녀의 연령이 낮고 부모집단의 연령이 낮으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권위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집단의 연령과 부모집단의 연령이 상관관계가 높고 자녀집단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집단이 감독하고 교육할 가능성이 높아 부모의 태도 유형을 권위형으로 인식하기 쉬운 것에서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부모집단의 교육수준이 높고 전문직일 경우 부모의 태도유형을 권위형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부모집단이 인터넷에 대한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 자녀집단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감독하고 규제하기가 쉽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녀의 생활변화는 자녀집단의 경우 본인 연령과 개인 용돈, 인터넷 이용시간이 중요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었으며, 부모집단은 본인 연령과 인터넷 이용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녀집단의 연령이 낮을수록 자녀집단의

생활변화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부모집단의 경우 40세 이하일 때 생활변화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자녀집단의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감독이 많으며 자녀집단의 작은 변화에도 부모집단이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할수록 생활의 변화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같이 청소년은 가상공간인 인터넷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통제력 상실로 인한 시간 조절의 상실을 경험하게 되고 생활시간 및 친구와 가족관계에서 심각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는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 연령, 개인 용돈, 인터넷 이용 규칙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들에 대한 부정적 연구결과들과는 대조적이었다. 이는 남학생들이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어도 변화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부모집단이 인식한 변화 요구도는 본인 연령, 본인의 컴퓨터 이용 능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집단의 경우 컴퓨터 이용능력이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집단의 컴퓨터 이용능력에 따라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독하거나 오히려 방임하게 되어 인터넷 이용 변화 요구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부모의 컴퓨터 이용능력이 높을수록 자녀와의 대화가 풍부해지고 인터넷 이용을 교육할 수 있으며 올바른 통제가 가능하나 부모의 컴퓨터 이용능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무조건 감독 및 제재를 하거나 방임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의 가정관련 특성보다 개인관련 특성 및 인터넷이용관련 특성이 부모-자녀간 갈등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준다.

셋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 상태를 살펴보면 자녀집단의 65.7%, 부모집단의 90.9%가 갈등이 있다고 응답하여 전체적으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이 자녀집단보다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할 때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를 가장 높게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 주 이용 사이트가 오락위주일 때 실제적 갈등이 있다고 했다. 반면, 자녀의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신체변화 및 생활변화로 인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자녀집단의 경우 성별,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일 수, 인터넷 이용 규칙, 부모감독, 생활변화가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집단은 연령, 본인의 컴퓨터 이용 능력, 자녀 인터넷 이용시 걱정 정도, 부모감독, 생활변화, 인터넷에 이용 변화 요구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은 개인, 가정 및 인터넷이용관련 변인에 비해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인 부모의 감독 정도, 부모의 태도 유형,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인터넷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가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집단과 부모집단 모두 부모감독이 있고 생활변화를 인식하게 될 때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집단이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감독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자녀의 인터넷 이용으로 인한 자녀집단의 생활변화가 크고 복잡한 비행이나 범죄적 행동변화가 아닌 작은 신체적 통증이나 생활시간 배분 등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넷째, 자녀집단이 인식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별, 아버지 직업, 주택유형, 인터넷 이용 시간, 인터넷 이용 일 수, 인터넷 이용 규칙, 부모의 감독 정도, 부모의 태도 유형, 자녀의 생활변화였다. 반면 부모집단이 인식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주택유형, 컴퓨터 설치 장소,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걱정 정도, 부모의 감독 정도, 부모의 태도 유형, 생활변화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나 자녀집단과 마찬가지로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이 큰 영향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 변인이 영향력 있는 중요한 변인들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거나 감독하게 되면서 오히려 인터넷에 몰입하거나 인터넷 중독, 문제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같이 부모의 감

독으로 인해 자녀의 생활변화 및 문제행동이 발생하면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부모의 태도 유형이 방임형과 권위형일 때 자녀들은 반항적이며 오히려 비행을 일으킬 수 있고 무절제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소지가 있게 되면서 민주형에 비해 방임형과 권위형일 때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은 부모의 감독 중 인터넷 이용 시간을 가장 감독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이용 시간이 많을 때 생활의 변화를 높게 인식하였고,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인터넷 이용 시간은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 갈등정도와의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인터넷 이용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써 적절한 수준으로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녀 스스로 적정한 인터넷 이용시간을 결정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중요한 일을 마치고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인터넷 이용 시간 일지 및 평상시 생활시간 성찰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자녀 스스로 자신의 시간 사용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즉,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을 줄이고 가정의 인터넷문화 형성을 위해 자녀 스스로 인터넷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부모와 자녀의 노력이 필요하겠다.

둘째, 부모집단은 자녀집단에 비해 부모-자녀간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과 실제적 갈등정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생활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모집단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의 당위성을 인정하면서도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을 걱정하는 이중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 뿐만 아니라 부모집단은 자녀집단에 비해 낮은 인터넷 지식으로 인하여 인터넷문화의 주변인에 머물게 되면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부모집단의 인터넷 이용 능력이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잠재적 갈등요인을 제거하고 부모-자

녀간 실제적 갈등정도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가 인터넷에 관심을 갖고 인터넷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부모는 지역사회 의 컴퓨터교육 강좌를 활용한 인터넷 이용 능력의 신장이 요구된다. 그리고 부모 들은 자녀의 인터넷 이용 및 인터넷 역기능과 관련한 정보를 주로 매스컴을 통 해서 획득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면 서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이해하고 지역사회 내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형성을 위 한 부모 모임을 결성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인터넷 이용규칙이 잠재적 갈등요인에 대한 인식의 하위영역인 부모의 감독, 부모의 태도 유형, 자녀의 생활변화 정도, 인터넷 이용에 대한 변화 요구도 에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인이었으며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 인터넷 이용규칙을 정하 는 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인터넷 이용을 감독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잉르반적인 방법이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인터넷 이용규칙을 정하는 것이 인터넷 지식이 부족한 부모들이 손쉽게 자녀의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통제는 오히려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정도를 증가시켜 가정의 인터넷문화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 정에서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해 부모-자녀간 의견을 수렴한 인터넷 이용 수칙을 세우고 부모-자녀가 함께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외에 부모와 자녀 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sup>6)</sup>을 모색하여 자유롭게 인터넷을 이용하면 서도 부모-자녀간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에게 인터넷은 가장 이용하기 쉬운 문화매체이며 인터넷 이용을 통해 여가를 즐기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이용 용도보다 오락용도로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과도한 인터넷 이용으로 인해 생활의 변화 를 겪게 되고 가족 및 친구관계에 변화를 겪으면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 요 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교육 의 궁극적 목적이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확립이라고 할 때 청소년들이 정보사회

---

6) 예를 들면 e-mail 주고 받기, 메신저, 가족홈페이지 만들기, 가족 대화방 개설, 네티켓 준수 일 기 쓰기 등

를 이해하고 인터넷 내용을 비판하고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며 네티켓을 준수하거나 사이버 윤리의식에 중점을 둔 내용의 인터넷 윤리교육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의 인터넷 윤리교육은 학교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학교 교과과정에는 인터넷 기술 관련 교육이 대부분이었으나 급격한 정보화에 따른 역기능 발생에 대응하는 인터넷 윤리교육의 부족을 개선하고자 초·중등학교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의 내용을 개정하였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2007년 초등학교 1-4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정지침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신규 지침은 정보통신윤리의 내용을 다양화한 것인데, 앞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수준별<sup>8)</sup>로 더 세분화된 인터넷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컴퓨터교과 시간 뿐만 아니라 전교과 수업과 연계하여 수업시간에 인터넷 언어사용 및 언어폭력을 지도하는 등의 인터넷 윤리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터넷 윤리교육 및 올바른 인터넷 이용에 관한 통신문을 가정에 발송하여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다섯째,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실제적 갈등은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부에서 서민들의 인터넷문화확산을 위해 PC보급, 주부들을 위한 인터넷 교육 정책 등을 실시하여 전국민의 인터넷 이용률을 높이는데 일조하였으나, 인터넷상에서의 세대간 통합과 관련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2005년 정보통신부는 청소년, 학부모, 교원 등 50만 명을 대상으로 정보윤리교육을 실시하여 정보이용자의 정보윤리의식 함양 및 대응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에서의 정보윤리 교육 및 상담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보통신부, 2006).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무조건 감독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인터넷 이용 감소화 전략이나 예방책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부기관에서는 부모가 가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감독 요령이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7) 사이버 공간의 윤리와 필요성, 올바른 네티즌 의식, 사이버 공간의 올바른 예절, 네티켓과 대인 윤리, 사이버 폭력과 피해 예방, 인터넷과 게임중독의 예방, 저작권의 보호와 필요성 등의 내용 포함.

8) 초보사용, 숙련사용, 인터넷 중독사용 등



설치 방법, 컴퓨터 설치장소, 사용시간 등을 매뉴얼화<sup>9)</sup>해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터넷 윤리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 및 인터넷 이용 매뉴얼화 작업을 담당할 인력의 부족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터넷문화진흥원이 인터넷 윤리교육과 관련한 전문기관으로 유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각 시도의 우체국에서 정보통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정도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과 가정의 인터넷문화 형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연구와 조사 기관 및 센터 설립이 지원되어야 하며, 전문적 인력의 개발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형성에 있어서 가정이 그 출발점이며, 자녀와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가정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과 관련변수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자녀집단과 부모집단을 동시에 고려하며 각 집단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갈등요인과 실제적 갈등정도를 제시함으로써 인터넷 이용에 관한 개인, 가정 및 사회적 함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연구의 제한점을 갖고 있어 이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는 연구상의 제약과 조사상의 편의를 위해 한 가정의 부모-자녀가 아니라 독립된 부모·자녀 집단을 조사하였다. 또한 부모의 경우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구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적 관점이나 부모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한 가정내의 부모-자녀 구성원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는 보다 심층적인 질적 연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연구자가 직접 자녀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자녀간 갈등요인을 구성하고 척도화하여 실증분석을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잠재적 갈등요인과 실제적 갈등요인에 대한 구분은 연구자의 의도적 구분이라는 한계를 가지며, 또한 자녀의 인터넷이용에 따른 부모-자녀간

---

9) 예를 들면, 컴퓨터 거실에 놓기 운동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부작용 및 문제점이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컴퓨터를 혼자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를 가족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 공동의 공간에 옮겨놓도록 한다.-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자료를 제공하는데 목표를 두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보다 정교하고 구체화된 척도를 개발하고 후속연구를 진행하며, 그에 따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형성을 위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가예진(200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컴퓨터 사용 환경이 컴퓨터게임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신임(1999), 정보화사회의 문화현상과 교육과정의 과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고금수(2002), 청소년의 사이버 문화에 관한 연구-사이버공간 이용실태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고선주(2002), 네티즌의 가족/친족관련 가치관과 태도, 대한가정학회지, 40(5), 159-177.
- 고현숙(2001), 학부모의 인터넷 활용에 대한 조사연구-제주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연상(2002), 디지털 콘텐츠와 사이버 문화, 인문학연구, 7집, 165-192, 한국외국어대학교.
- 국립국어연구원(2005), 2005년 신어 보고서 발간. www.korean.go.kr.
- 권구영·이혜자(2002),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정신건강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3(6), 59-86.
- 권오문(2001), 디지털문화읽기, 서울: 새미.
- 권재환(2005), 심리적·환경적 변인과 인터넷 게임중독간 관계: 대인관계기술의 매개효과 검증,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경동(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 청소년보호위원회.
- 김도형(2003), 인터넷에 의한 청소년 범죄와 법교육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동윤·조준형 역(2000), 사이버문화: 유럽의회 보고서-뉴테크놀로지와 문화협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울: 문예출판.
- 김동인(2002), 사이버문화에 관한 청소년들의 인식,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선(2002), 청소년의 컴퓨터 게임 이용실태와 생활변화 관계 연구, 금오공과대

- 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명애(2002), 부모의 통제정도와 중학생의 PC/인터넷 이용행태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청주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논문.
- 김미영(2004), 가정환경과 아동의 컴퓨터 게임중독과의 관계,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승권(2002), 사이버 시대의 가정생활변화와 대응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신(2004),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과 건강관련 생활습관의 관련성,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지(2000), 청소년 웹진 활동의 실태와 의미에 관한 연구, 청소년생활실태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유미(2000), 아동의 생활환경이 인터넷 경험에 미치는 영향-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겸(2005), 사이버문화 관련 10대 청소년의 주체성 정립 방안에 대한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석(2002), 사이버문화 정착을 통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방지,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미(1999), 정보혁명·생활혁명·의식혁명-가정정보화와 사이버 가족-,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편, 서울: 백산서당.
- 김정수(1997), 부자간 갈등에서 나타나는 비양립 지각과 비행,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원·조옥귀(2002), 중·고등학생의 자기통제력, 사회환경적 요인 및 인터넷, 게임 중독과의 관계, **교육이론과 실천**, 12(2), 477-500.
- 김지형(2002)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경향에 따른 부모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비교, 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향숙(1999), 부모-청소년 자녀간 갈등관리를 위한 인지재구성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미(2002), 한국의 N세대와 인터넷문화, **사회발전연구**, 19-51.
- 김혜수·허혜경(2003), **청소년발달 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혜원(2001),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 인터넷 중독의 현황과약과 관련변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8(2), 91-117.
- 나강환(2004), 농촌지역 중학생들의 인터넷 이용실태 및 중독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나미수(2002),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의 문화적 의미: 전업주부의 인터넷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16(3), 260-293.
- 남화정(2001),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청소년의 인터넷 활용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현주(1996),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논리 사고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라민오(2001), 충동성, 인터넷 중독 경향과 청소년의 사이버 관련 비행의 관계,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진아(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민경배(2001), 사이버 현상과 새로운 문화 형성의 과제, 서울: 사이버문화연구소.
- 박동근(2001), 통신언어의 유형에 따른 언어학적 기능 연구, **어문학 연구 11집**, 상명대 어문학연구소.
- 박미정(2004),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이용실태와 생활양식의 변화 분석, 금오공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부진·이해영(2000), 인터넷의 생활화와 가족문화의 변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5-34.
- 박소라·윤성옥·양지운(2004), 어린이와 인터넷 미디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성근(2002), 가정에서의 컴퓨터 활용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인터넷활용 실태를 중심으로-, 인천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호(2002), 정보사회의 가족관계변화와 불교적 가족가치관의 검토, **동양사회사상**, 6, 47-79.
- 박영신·김이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교육학연구**, 38(2), 109-147.

- 박은정(2000), 맞벌이 가정의 가족상호작용과 부모의 양육태도간의 관계,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해정(2003),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과 일상생활에 관한 연구-부산시 중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희경(2004), 가족간의 갈등과 인성특성이 청소년의 내면적·외면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경희(2000), 청소년들의 사이버 문화 수용 연구-컴퓨터 게임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미숙(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화신(2003), 부모양육태도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윤숙(2000), 인터넷시대의 자녀양육방식과 부모자녀관계, **한국가족복지학**, 5(1), 105-120.
- 신상우(2001), 초등학생의 컴퓨터 게임 활용 실태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심수민(2000), PC통신과 인터넷에 대한 가족구성원의 태도와 부모자녀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미리(2001),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위한 노인 정보화 교육과 사이버 문화의 확산-세대간의 차이와 정보소외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이론**, 19, 147-172.
- 안은경(2006), 자녀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연구-방송대학교 재학생 중 학부모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진환 역(1999), **빌게이츠 @ 생각의 속도**, 서울: 청림출판.
- 양돈규(1997), 부모갈등과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성순(2003), 가정환경이 사이버중독 현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도구 개발-초등학교 5·6학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명용(2001), 아동학대와 청소년 비행간의 관계: 가족 내 부모지지 및 감독의 완충효과 검증, **한국가족복지학**, 8, 149-178.



- 오현화(2002),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태용(1999), 문화란 무엇인가, 서울: 학연문화사.
- 윤영민(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보호위원회 제 2차 정책 포럼.
- 윤영지(2000), 인터넷상의 청소년비행 실태분석과 대책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옥경(2000), 사이버시대의 세대차이와 세대갈등에 대한 전망, 한국청소년연구, 11(2), 55-75.
- 윤지영(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효능감이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광선(2005), 인터넷 통신언어에 반영된 초등학교 고학년의 문화 특성,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계원(2001),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일(2002), 사이버문화가 청소년의 의식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광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선이(1999), 정보혁명·생활혁명·의식혁명-21세기의 새로운 주역 넷세대-,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편, 서울: 백산서당.
- 이세용(2000), 청소년 인터넷 활용에 관한 실태 조사, 서울: 사회건강연구소.
- 이시형(2004),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자녀교육, 서울: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영분(2003),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부모의 역할, 사회과학연구, 16, 187-203.
- 이주옥(1994),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갈등에 관한 연구: 갈등의 유형, 해석 및 그 해결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향(2005), 인터넷 환경변인과 중재변인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성향에 미치는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해영·박부진(2000), 인터넷의 이용과 가족관계-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리서치 아카데미논총, 3권, 225-248.
- 이현아(2001), 주부의 인터넷사용으로 인한 가족체계의 하위요소 변화,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혜진(2001), 청소년 인터넷 중독과 개인, 가족, 학교 및 또래 환경요인과의 관계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호영(2004), 일상 언어에 통신 언어가 미친 영향 연구-춘천지역 여중생의 어휘를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성재(2003), 초등학생 컴퓨터 게임과다사용과 관련된 가정환경 변인,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은미·이숙영(2002), 청소년의 컴퓨터/인터넷 사용과 부모-자녀 갈등, **교육심리연구**, 16(2), 243-258.
- 전경수(1994), **문화의 이해**, 서울: 일지사.
- 정보통신부(1999), **정보문화 확산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정보통신부 정책연구.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6), **정보통신윤리**, vol 67, 6-7.
- 정인선(2004), 인터넷 중독수준이 청소년의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서울시 일부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재민(1998), PC통신내의 청소년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진태(2003),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인터넷 중독정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정(2004), 사이버 시대의 가족생활 변화에 관한 고찰, **한국가족복지학**, 9(2), 135-159.
- 조남근·양돈규(2001),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인터넷 중독 경향 및 인터넷 관련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14(1), 91-111.
- 조동기·김병준·조희경(2001), **사이버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보고서.
- 조명옥(2002), 초등학생의 컴퓨터사용과 부모의 태도에 관한 연구, 진주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연(2003), 부모양육방식과 태도 및 부모와의 대화시간에 따른 청소년 인터넷 사용시간, **청소년복지연구**, 5(2), 47-59.
- 조영란(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예측모형,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정문(1997), 정보사회에서의 가족 및 세대공동체, *사회조사연구*, 12(1), 45-70.
- 조정문·임정덕·김성국·이대식·김영삼·조영복·신종국(1999), 정보화시대의 공동체-가족규범의 변화-, *한국사회학*, 33, 389-415.
- 조준범(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가정 및 학교환경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연주(2001), 제주지역 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실태와 정보윤리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연주·김혜연(2003),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영향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17(1), 103-118.
- \_\_\_\_\_ (2006),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따른 문제점 인식과 인터넷교육 의사에 관한 연구-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 44(12), 79-91.
- 차성란·문숙재·정영금(2003), 가정에서의 인터넷활용과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인터넷정보센터.
- 청소년보호위원회(2000), 인터넷 환경이 청소년의 사회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청소년연구.
- \_\_\_\_\_ (2001), 청소년사이버문화 정책의 수립 필요성과 방안, 청소년 보호 2001-10.
- 최병호(2004), 초등학생의 인터넷 사용이 학교 및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 춘천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통계청(2002), 정보 통신 부문 조사 결과, 통계청. <http://kosis.nso.go.kr/>
- 한경아(2002), 초등학생의 컴퓨터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 부모의 통제간의 관계,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2006), 2006년 상반기 정보화실태조사 요약보고서, 서울: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isis.nida.or.kr/>
- 한국정보문화센터(1998), PC통신 이용실태 및 이용자 만족에 관한 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연구보고.
- \_\_\_\_\_ (2000a), 정보문화지수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연구보고.
- \_\_\_\_\_ (2000b), 2000 정보화 실태 및 정보화인식 조사, 서울: 한국정보

- 문화센터 연구보고.
- 한국정보문화진흥원(2004), **선생님과 함께하는 깨끗한 정보세상, 깨끗한 정보세상 만들기 시리즈**,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_\_\_\_\_ (2005), **2005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_\_\_\_\_ (2006), **2006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서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9), **청소년 인터넷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4), **컴퓨터와 청소년문화**, 서울: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 하중원·백옥인(1998), **컴퓨터와 청소년 문화-현황과 전망-**, **정보화시대의 미디어문화**, 447-469.
- 황미영(2001), **청소년의 사이버공간 경험과 관련된 개인특성 및 부모통제**,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상민(2000), **사이버 공간의 경험에서 나타난 부모세대와 청소년 세대집단 간의 의식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2), 145-158.
- 황상민·김현정(1996), **사회적 표상의 개념으로 분석한 청소년 자녀와 부모의 인식차이 : 일상생활의 문제행동 빈도와 중요성 지각에 나타난 의사소통의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1), 229-250.
- 허묘연(199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허윤정(2004), **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인터넷 이용 차이**,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정미(2004), **아동과 청소년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과 부모의 인터넷에 대한 인식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철규(2001), **인터넷 세대의 청소년 문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형열(2002). **청소년의 사이버 공간 이용실태와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여수지역 중학생을 중심으로-**, 여수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경희(2001), 중학생들의 인터넷 과다사용과 가정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설화(2006), 청소년기 스트레스가 인터넷 중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부  
모관련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성태(1997), 사이보그, 사이버컬처, 서울: 문화과학사.

Anderson, K. 1999. *Internet use among college students : an exploratory study*. <http://www.rpi.edu/~ander4/research.html>.

Barnes, Grace M & Farrell, Micheael P. 1992. Parental support and control as predictors of adolescent drinking, delinquency, and related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4). 763-776.

Baumrind, D. 1991. *Effective parenting during the early adolescent transition*. In P.A. Cowan & M. Hetherington, Family Transitions. New Jersey: Lawrence Erlbaum. 111-165.

Bonfadelli H. 2002. The internet and knowledge gap,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17(1), 65-84.

Brenner, V, 1997. Psychology of computer use: XLV II. parameters of internet use, abuse and addiction: the first 90 days of the internet usage survey. *Psychology Reports*, 80, 879-882.

Castells, M. 1989.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Basil Blackwell Inc.

Christopher, M., Tiffany, M., Miguel, D., & Michele, K. 2000.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use to depression and social isolation among adolescents. *Adolescence: Roslyn Heights*, 35(138), 237-242.

Dishion, T., Patterson, G. R., & Reid, J. B. 1992. *Antisocial boys : a social learning approach*. Eugene : ORF Castalia.

Donohue, W. A. & Kolt, R. 1992. *Managing interpersonal conflict*. Sage Publications Inc.



- Forester, Tom & Morrison, Perry. 1995. *Computer ethics*. Mit Press.
- Galvin, K. M. & Brommel, B. J. 1988. 가족관계와 의사소통 : 응집성과 변화, 서동인 · 원효종 · 노영주 역. 서울 : 하우.
- Giddens, A. 1994. *Sociology*. 2nd edition. 현대사회학, 김미숙 역. 서울 : 을유문화사.
- Gross. E. F. 2004. Adolescent internet use: what we expect, what teens report.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5. 633-649.
- Hoffman, L. W. 1979. Maternal employment. *American Psychologist*, 34, 859-886.
- Janis W., Kimberly J. Mitchell., & David Finkelhor. 2002. Close online relationships in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Adolescence*, 37(147). 441-455.
- John A. Bargh & Katelyn Y.A. McKenna. 2004. The internet and social lif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5. 573-590.
- Katherine Allen. & Lee Rainie. 2002. *Parents online*.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Washington D.C.
- Kaver Subrahmanyam., Kraut R. E., Greenfield P. M., & Gross E. F. 2000. The impact of home computer use on children's activities and development. *The Future of Children*, 10(2). 123-144.
- Kiesler. S., Lundmark. V., Zdaniuk. B., Kraut. R. 2000. Troubles with the internet: the dynamics of help at home. *Human Computer Interaction*, 15. 323-351.
- King, J. L., & Kraemer, K. L. 1995. Information infrastructure, national policy, and global competitiveness.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olicy*, 4, 5-28.
- Kraut. R, Patterson, M., Lundmark, L., Kiesler, S., Mukopadhyay, T., & Scherlis, W. 1998. Internet paradox -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Lenhart Amanda. 2001. *Teenage life online : the rise of the instant-message generation and the Internet's impact on friendships and family relationships*.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Washington D.C.
- Mussen, P. H. 1979. *The psychological development of the child*. New York: Practice-Hall, 76-77.
- Nie, N. & Erbring, L. 2000. *Internet and society: a preliminary report*. Stanford Institute for the Quantitative study of Society.
- Norman H. Nie & Sunshine Hillygus D. 2002. The impact of internet use on sociability : time-diary findings. *IT & Society*, 1(1), 1-20.
- Osborne, L. N. & Fincham, F. D. 1994.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their children*. In D.D. Cahn(Ed), Conflict in personal relationships. Hillsdale,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Peterson, G. W., & Rollins, B. C. 1987. *Parent-child socialization*. In M.B. Sussman & S. K. Steinmetz(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Plenum.
- Rheingold, Howard. 2000. *The virtual community: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Cambridge : The MIT Press.
- Saunders, D. E., Field, T. M., Diego, M., & Kaplan, M. 2000.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use to depression and social isolation among adolescents. *Adolescence*, 35(138), 237-242.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 417-424.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Knopf.
- SIQSS(Stanford Institute for the Quantitative Study of Society). 2000. *Study offers early look at how internet is changing daily life*. [www.stanford.edu/group/siqss](http://www.stanford.edu/group/siqss).
- Smetana, J. G. 1988. *Concepts of self and social convention: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hypothetical and actual family conflict*. In W.A. Collins, & M.R. Gunnar(Eds), 21st Minnesota symposium on

- child psychology : Develop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adolescence.  
Hillsdale, NJ: Erlbaum.
- Smetana, J. G. 1989. Adolescent's and parents' reasoning about actual family conflict. *Child Development*, 60, 1052-1067.
- Suler, J. 1996. *Computer and cyberspace addiction*.  
<http://www.rider.edu/~suler/psyber/cybaddict.html>
- Suler, J. 1998. *Psychology of cyberspace*.  
<http://www.rider.edu/~suler/psyber/psyber.html>
- Stanger, J.D. & Gridina, N. 1999. *Media in the home 1999: the fourth annual survey of parents and children*. Philadelphia: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University of Pennsylvania.
- Steinberg, L., Lamborn, S., Darling, N., Mounts, N. S., & Dornbusch, S. M. 1994. Over-time changes in adjustment and competence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5. 754-770.
- Tapscoot, D. 1998. *Growing up digital : the rise of the net generation*. New York : McGraw-Hill.
- Thomson, S. 1996. *Internet addiction. Mc Survey Results*. <http://caa.psu.edu>.
- Turow, J. 1999. The Internet and the family : the view from parents, the view from the press. *The Annenberg Public Policy Center of the University of Pennsylvania, Report Series., No.27*.
- Wilson, H. (1987). Parental supervision re-examined.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27, 275-301.
- Whitley, B. E. Jr. 1997. Gender differences in computer-related attitudes and behavior: a meta-analysi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1), 1-22.
- Young, K. S. 1996. Internet addiction: the emergence of a new clinical disorder.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versa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16 August 1996, Toronto,

Canada.

Young, K. S. 1998. *Caught in the net : how to recognize the signs of internet addiction and a winning strategy for recovery*.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Young, K. S. 2000. *Tangled in the web*. Understanding Cybersex from Fantasy to Addiction.

Zhiyong, M., Matti, N., & Jouko, S. 2004. Neck and shoulder pain related to computer use. *Pathophysiology*, 11, 51-56.

<http://www.time.com/time/asia/magazine/2000/1211/cover1.html>(2000.12)

강원일보(2006. 1. 26), 인터넷 중독 ‘아들이 두렵다’.

동아일보(2001. 3. 5.), 인터넷 중독 중학생 친동생 살해.

\_\_\_\_\_ (2005. 2. 2.- 2. 12.), 디지털 키즈 세계 시리즈.

미디어제주(2006. 4. 11), 리니지중독 30대 컴퓨터 앞에 앉은채로 숨져.

전자신문(2004. 8. 3.), 청소년 20% 인터넷 중독 위험.

제민일보(2007. 3. 15), 인터넷 중독, 초등학교 ‘난 아니야’ 교사·학부모 ‘너 맞아’.

제주의 소리(2005. 9. 20), 정보화 섬 제주 정보화수준 ‘평균 이하’.

한라일보(2006. 8. 22), 장애인·노인 인터넷 이용률 낮다.

헤럴드 경제(2005. 12. 20), ‘전자마약’ 중독...아이가 거칠어졌어요.

\_\_\_\_\_ (2005. 12. 20), 이렇다면, 당신도 ‘게임중독’ 환자.

야후꾸러기 한표. [www.kr.kids.yahoo.com](http://www.kr.kids.yahoo.com)

코리아 클릭 통계. [Koreanclick.com](http://Koreanclick.com)

<Abstract>

**Internet Culture at Home :**  
**Focused on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about Adolescent**  
**Internet Usage**

**Jin, Yeon-ju**

Department of Home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 Kim, Hye-yeon, Ph. 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erception of potential conflict among parents and adolescents and perception of realistic conflict between them, and then, would offer data based on the investigation for formation of internet culture at home in near future.

The study was conducted on 566 students in the 5th and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middle school students and 463 parents whose children are in the 5th and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and in middle schools in Jeju.

Perception of potential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consisted of levels of parental control, types of parental attitude, changes in their lives resulting from internet usage and demands for change in internet usage, and they were analyzed using t-tests, ANOVA analysis, DMR tests and  $\chi^2$ -tests. Also, in regards to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a dependent variable was used for perception of realistic conflict, and for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confirm whether or not conflict exist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aken as a whole, the parental group was found to have a higher



level of perception of potential conflict than the adolescent group. Specifically, in both groups, of adolescents and parents, the perception of levels of parental control was less than average. In the adolescent group, types of parental attitude were in turn democratic, authoritative, and neglectful. On the other hand, in the parental group, perception was of, in turn, an authoritative style, democratic style and neglectful style. 2/3 of the group recognized their own attitude as an authoritative style. Both the parental and adolescent group perceived the decrease of time spent on reading and leisure activities and the increase of time spent on entertainment and games in terms of changes in their lives. Finally, both the parental and adolescent group had a high perception of demands for a change in the amount of time of internet usage.

Second, looking into the perception of potential conflict on each sub-sphere, the perception level of the parental control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all sub-spheres according to the family's rules regarding internet usage. Also, individual variables such as gender and level of education had a meaningful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level of parental control.

In the adolescent group, the type of parental attitude regarding children's internet usag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the level of father's education, and employment. In the parental group, the type of parental attitude regarding children's internet usag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level of education, ability of computer usage, and household rules on internet usage.

In the adolescent group, changes in their lives resulting from internet usag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age, allowance, and the average usage time of the internet. In the parental group, changes in their lives resulting from internet usag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age and the average usage time of the internet.

In the adolescent group, demands for change in all aspects of internet

usag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gender, age, allowance, and household rules of internet usage. In the parental group, demands for change in all aspects of internet usage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ge and ability of computer usage.

Third, the perception of realistic conflict due to internet usage of children was high.

The perception of realistic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adolescents showed a more meaningful difference in regards to internet-related variables and potential conflict-related variables than in regards to demographic variables. More concretely, in the adolescent group, the perception of realistic conflic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erms of gender, average use time of the internet, average number of days of use of the internet, household rules of internet usage, parental control, and changes in their lives. In the parental group, the perception of realistic conflict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regards to age, ability of internet usage, level of parents' worry, parental control, changes in their lives, and demands for change in all aspects of internet usage.

Forth, for both groups the perception of realistic conflict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nternet-related variables and potential conflict-related variables. Concretely, in the adolescent group, the perception of realistic conflic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in regards to gender, the father's job, the type of house, the average usage time of the internet, average number of days of usage of the internet, household rules of the internet, parental control, the types of parental attitude, and changes in their lives. In the parental group, the perception of realistic conflic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in terms of age, the type of house, the emplacement of the computer, level of parents' worry, parental control, the types of parental attitude, and changes in their lives.

<부록> 설문지

조사번호	
------	--

질문지(자녀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가정의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자녀 갈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5. 3. .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김혜연 교수 064-754-3570  
 조 사 자 :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진연주 016-505-2389

\* 본 설문지의 저작권은 진연주에게 있다.

조사일	
응답자	
연락처	

※ 다음을 읽으시고 귀하께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거나 알맞은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1. 개인관련 질문입니다.(번호를 써 넣거나, 해당하는 곳에 V표 해주세요)**

1. 현재 몇 학년 인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_\_\_\_\_ 학년
2. 본인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본인의 형제관계는? \_\_\_\_\_ 남 \_\_\_\_\_ 녀 중 \_\_\_\_\_ 몇째
4. 부모님의 연령은? 아버지( \_\_\_\_\_ 세), 어머니( \_\_\_\_\_ 세)
5.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아버지( \_\_\_\_\_ ), 어머니( \_\_\_\_\_ )(보기에서 번호를 기입하세요)

<b>보기</b>	① 초등학교재	② 초등학교졸	③ 중학교재	④ 중졸	⑤ 고등학교재
	⑥ 고졸	⑦ 대학교재	⑧ 전문대졸	⑨ 대졸	⑩ 대학원 이상

6. 부모님의 직업은? 아버지( \_\_\_\_\_ ), 어머니( \_\_\_\_\_ )(보기에서 번호를 기입하세요)
7. 월평균 용돈은 얼마를 받으니까? 약 \_\_\_\_\_ 원  
(필요할 때마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 경우도 월평균 얼마정도인지를 적어주십시오)
8. 본인의 성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  
 ①최상위권 ②상위권 ③중상위권 ④중위권 ⑤중하위권 ⑥하위권 ⑦최하위권
9.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의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 \_\_\_\_\_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 빌라 ④ 기타
10. 현재 본인 가정의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_\_\_\_\_ )

①최하	②	③	④	⑤보통	⑥	⑦	⑧	⑨	⑩최상
-----	---	---	---	-----	---	---	---	---	-----

- (보기) 1. 전문. 기술직 : 대학교수, 교사, 판사, 의사, 기자, 언론인, 방송인, 회사나 관청의 연구원 등  
 2. 경영. 관리직 : 종업원 10인 이상의 기업이나 가계의 경영자, 회사나 관청의 과장 이상인 사람  
 3. 사무직 : 회사나 관청의 과장 이하 사무원, 은행원, 경찰관, 기타 사무관련직 종사자  
 4. 상공자영업 : 종업원 9명 이하의 기업이나 가계의 경영자, 개인택시 경영  
 5. 자유업 : 작가, 종교가, 사회 운동가,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점술가  
 6. 판매. 서비스직 :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또는 가게의 점원, 외판원, 수금원, 배달원 등  
 7. 기능직 : 운전기사, 기능공, 전화교환수, 이·미용사, 조리사 등  
 8. 노무직 : 일반직공, 식당종업원, 환경미화원, 건물관리인, 잡역부 등  
 9.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10. 전업주부      11. 학생      12. 은퇴. 무직

**II. 인터넷 사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재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본인이 처음 인터넷을 이용한 때는 몇 살 때 입니까? \_\_\_\_\_ 살
- 일주일에 평균 며칠 인터넷을 이용합니까? \_\_\_\_\_ 일
- 인터넷은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평일 : \_\_\_\_\_ 시간 토요일 : \_\_\_\_\_ 시간 일요일 : \_\_\_\_\_ 시간
- 숙제(공부)를 제외하면 인터넷은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평일 : \_\_\_\_\_ 시간 토요일 : \_\_\_\_\_ 시간 일요일 : \_\_\_\_\_ 시간
- 인터넷을 하루 중 언제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까?(오전, 오후를 선택하고 시간을 적어주세요)  
 (오전, 오후): \_\_\_\_\_ 시 \_\_\_\_\_ 분 ~ \_\_\_\_\_ 시 \_\_\_\_\_ 분
-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기타 장소에서 이용하는 경우 적어주세요)  
 ①집 ②학교 ③PC방 ④친구집 ⑤공공기관 ⑥기타( )
- 본인의 집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기타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적어주세요)  
 ①부모님 방 ②자기 방 ③거실 ④서재 ⑤다른 형제 방(누나, 형) ⑥기타( )
- 다음은 인터넷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 본인이 이용하는 정도를 각 문항별로 V표 해주십시오.

	이용하지 않음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가끔 이용한다	보통	자주 이용한다	매우 자주 이용한다
①자유롭게 관심 있는 부분 정보검색						
②학교 숙제, 온라인 강의 듣기(ebs, 학원)						
③학교홈페이지, 선생님 홈페이지 방문						
④오락 : 게임, TV다시보기, 만화보기						
⑤사교생활 : 카페(등호회),						
⑥의사소통 : 채팅, 메신저(버디버디, 세이)						
⑦미니홈피 관리(블로그)						
⑧취미 : 음악감상, 영화감상						
⑨통신수단 : e-메일						
⑩상거래 : 옥션, 공동구매, 인터넷구매						
⑪음란물 및 폭력물(성인사이트, 폭탄물)						

- 다음은 인터넷에 접속하게 되는 동기들입니다.  
 본인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동기를 각 문항별로 V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정말 그렇다
①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숙제)					
②심심해서(그냥)					
③갈등(스트레스) 해소					
④현실을 피하는 것(회피), 간섭 받지 않는 것					
⑤기분전환(외로움, 화 등)					
⑥재미나 흥미가 있어서					
⑦새로운 세계(정보)를 접하려고					
⑧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⑨습관적으로					

※ 인터넷 이용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본인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V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정말 그렇다
①실제 생활과 인터넷에서 생활이 헛갈린다					
②인터넷에 접속하고 나면 인터넷을 끝내기가 어렵다					
③인터넷에 접속하고 싶은 마음을 참기가 어렵다					
④인터넷 사이트의 내용에 따라 기분이 좌우된다					
⑤인터넷을 이용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하게 된다					
⑥인터넷을 오래 이용해서 자주 피곤하고 수면부족을 느낀다					
⑦인터넷 이용으로 눈, 어깨, 허리가 아픈 경우가 많다(VDT증후군)					
⑧인터넷에 나왔던 행동들을 모방해서 하고 싶은 적이 많다(모방육구)					
⑨인터넷에 봤던 행동 중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해 본 적이 있다(비행)					
⑩인터넷에서 봤던 폭력 행동이나 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욕설, 비방, 폭행 등)					
⑪다른 사람의 정보를 훔쳐서 사용한 경험이 있다(타인의 id, 부모님의 주민번호 등)					

2. 본인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생활의 변화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V표 해주십시오.

	매우 감소	감소	변화 없음	증가	매우 증가
혼자 있는 시간					
운동 시간이나 활동					
독서, 취미 활동					
TV시청					
가족과의 대화					
부모님의 간섭					
오락, 게임					
공부, 학교 숙제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수면시간					

※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님과 갈등에 관한 문제입니다.

1. 본인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부모님과 갈등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①갈등이 전혀 없다    ②갈등이 없는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갈등이 있는 편이다    ⑤갈등이 아주 많다

2. 본인이 인터넷을 이용할 때 부모님과의 사이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입니다.

각 문항별로 V표 해주십시오.

	갈등이 전혀 없다	갈등이 없다	보통	갈등이 있다	갈등이 아주 많다
1.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					
2.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밤이나 새벽					
3. 인터넷 이용 사이트가 오락위주					
4.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감독					
5.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칙이나 벌칙이 많음					
6. 가족간의 대화시간 감소, 함께하는 활동 감소					
7. 부모님과 자신의 컴퓨터 관련 지식 차이					
8. 인터넷으로 인한 신체변화(시력저하, 어깨아픔)					
9. 인터넷으로 인한 생활변화(늦잠, 학교 결석 )					
10. 인터넷으로 인한 행동변화(폭력적, 욕을 자주함)					
11. 인터넷 언어를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					





3. 앞으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받아보겠습니까? (      )  
 ①예      ②아니오
4.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교육 내용이 무엇이었던 좋겠습니까?(순서대로 적어주세요)  
 ①불건전물(폭력물, 음란물) 신고방법 및 퇴치방법 (      )  
 ②부모님과의 갈등해결방법 (      )  
 ③인터넷 이용시(게임, 채팅) 주의사항 (      )  
 ④인터넷 중독방지 (      )  
 ⑤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      )  
 ⑥바이러스 대처방법 (      )  
 ⑦기타(이 밖에 다른 내용이 있으면 자세히 기입해주세요 :      )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사번호

**질 문 지(부모용)**

안녕하십니까?  
 본 질문지는 가정의 바람직한 인터넷문화 형성을 위한 부모-자녀 갈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05. 3. .

지도교수 :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김혜연 교수 064-754-3570  
 조 사 자 :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박사과정 진연주 016-505-2389

\* 본 설문지의 저작권은 진연주에게 있다.

조사일	
응답자 연락처	

※ 다음을 읽으시고 귀하께서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시거나 알맞은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I. 개인관련 질문입니다.**

1. 귀하의 가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모든 가족원**의 해당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기입해 주십시오(학력, 직업은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성별은 √표로 해당사항을 기입해 주십시오)

구분	가족관계	성별		학력	연령	직업
		남	여			
1	본인					
2						
3						
4						
5						
6						

2. 귀하가 살고 계신 주택의 유형은 어느 것입니까? (     )  
 ① 단독주택    ② 아파트    ③ 연립, 빌라    ④ 기타
3. 귀 닥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모두 얼마입니까? 약 \_\_\_\_\_ 만원
4. 가계의 한달 평균 생활비는 얼마입니까? (저금, 임대료 등을 제외한 실제 생활비) 약 \_\_\_\_\_ 만원
5. 귀하 가정의 현재 경제적 생활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숫자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①최하	②	③	④	⑤보통	⑥	⑦	⑧	⑨	⑩최상
-----	---	---	---	-----	---	---	---	---	-----

- (보기)직업 : 1. 전문. 기술직 : 대학교수, 교사, 판사, 의사, 기자, 언론인, 방송인, 회사나 관청의 연구원 등  
 2. 경영. 관리직 : 종업원 10인 이상의 기업이나 가게의 경영자, 회사나 관청의 과장 이상인 사람  
 3. 사무직 : 회사나 관청의 과장 이하 사무원, 은행원, 경찰관, 기타 사무관련직 종사자  
 4. 상공자영업 : 종업원 9명 이하의 기업이나 가게의 경영자, 개인택시 경영  
 5. 자유업 : 작가, 종교가, 사회 운동가, 예술가, 연예인, 운동선수, 점술가  
 6. 판매. 서비스직 :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또는 가게의 점원, 외판원, 수금원, 배달원 등  
 7. 기능직 : 운전기사, 기능공, 전화교환수, 이·미용사, 조리사 등  
 8. 노무직 : 일반직공, 식당종업원, 환경미화원, 건물관리인, 잡역부 등  
 9. 농업. 축산업. 임업, 수산업  
 10. 전업주부  
 11. 학생  
 12. 은퇴. 무직
- 학력 : ① 초등학교졸 ② 초등학교졸 ③ 중학교재 ④ 중졸 ⑤ 고등학교재  
 ⑥ 고졸 ⑦ 대학교재 ⑧ 전문대졸 ⑨ 대졸 ⑩ 대학원이상

※ 부모님 자신의 인터넷 이용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현재 를 기준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1. 부모님의 컴퓨터 사용 능력은 어느 수준입니까?

	①하	②중하	③중	④중상	⑤상
아버지					
어머니					

1-1. 귀하는 얼마나 자주 인터넷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

- ①매일 이용 ②주말에만 이용 ③일주일에 2-3번 ④한달에 1-2번  
 ⑤이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⑥이용하지 못함 ⑦기타

1-2. 귀하는 인터넷을 몇 시간 정도 이용하십니까?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평일 : \_\_\_\_\_ 시간 토요일 : \_\_\_\_\_ 시간 일요일 : \_\_\_\_\_ 시간

2. 다음은 인터넷 이용 분야입니다. 각 문항별로 귀하가 할 수 있는 정도를 V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정말 그렇다
1. e-mail을 주고 받는다					
2. 자녀와 함께 게임을 한다					
3. 자녀의 숙제를 도와 준다(인터넷 검색)					
4. 문서작성을 한다					
5. 인터넷 쇼핑(물건구입)을 이용한다					
6. 인터넷 주식투자, बैं킹 이용 한다					
7.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다					
8. 뉴스나 신문을 본다					
9. 자산관리, 가계부 정리를 한다					

3. 귀하의 집에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 )

- ①부모님 방 ②자녀 방 ③거실 ④서재 ⑤기타( )

4.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주로 감독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 )

- ①어머니 ②아버지 ③부부공동 ④경우에 따라 다름  
 ⑤부모 중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 ⑥기타( )

5.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대한 감독을 할 때 부부간의 의견차가 있습니까? ( )

- ①전혀 의견차가 없다 ②의견차가 없다 ③그저 그렇다 ④의견차가 있다 ⑤항상 의견차가 있다

6. 귀하는 인터넷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 ①예(7번으로 가시오) ②아니오(인터넷 이용 인식으로 가시오)

7. 인터넷 교육을 받은 후 자녀와의 관계에 변화가 있었습니까?(교육 받은 분만 응답)( )

- ①예 ②아니오

※ 자녀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는 자녀를 대상으로 설문하여 주십시오.

1. 귀하는 자녀에게 용돈을 얼마나 주십니까? 약 \_\_\_\_\_ 원  
(자녀가 필요하다고 할 때마다 용돈을 주시는 경우도 월평균 얼마정도인지를 적어주십시오)
2. 귀하가 생각할 때 자녀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주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문항별로 V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정말 그렇다
①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숙제)					
②심심해서(그냥)					
③갈등(스트레스) 해소					
④현실을 피하는 것(회피), 간섭 받지 않는 것					
⑤기분전환(외로움, 화 등)					
⑥재미나 흥미가 있어서					
⑦새로운 세계(정보)를 접하려고					
⑧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위해					
⑨습관적으로					

3.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걱정되는 부분들입니다. 각 문항별로 V표 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정말 그렇다
①음란물, 동영상 접촉					
②게임중독, 폭력적 게임 등					
③인터넷 중독(몰입)					
④상거래 행위(불법적인 거래행위 등)					
⑤채팅(채팅내용, 채팅상대, 채팅 후 만남)					
⑥인터넷 접속 사이트					
⑦언어사용(언어폭력, 맞춤법 사용, 언어파괴)					
⑧자녀의 친구관계(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⑨학교지각 및 결석, 피곤함					

4. 인터넷을 이용하고서부터 자녀의 생활에 변화가 있습니까? 각 문항별로 V표 해주십시오.

	매우 감소	감소	변화 없음	증가	매우 증가
혼자 있는 시간					
운동					
독서, 취미 활동					
TV시청					
가족과의 대화					
부모님의 간섭					
오락, 게임					
공부, 학교숙제					
밖에서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					
수면시간					



※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따른 갈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있어 부모님과 갈등이 있습니까? ( )

- ①갈등이 전혀 없다    ②갈등이 없는 편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갈등이 있는 편이다    ⑤갈등이 아주 많다

2.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있어 자녀와의 갈등은 어떤 부분입니까? 각 문항별로 V표 해주십시오

	갈등이 전혀 없다	갈등이 없다	보통	갈등이 있다	갈등이 아주 많다
1.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					
2.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밤이나 새벽					
3. 인터넷 이용 사이트가 오락위주					
4.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감독					
5.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칙이나 벌칙이 많음					
6. 가족간의 대화시간 감소, 함께하는 활동 감소					
7. 부모님과 자녀의 컴퓨터 관련 지식 차이					
8. 인터넷으로 인한 신체변화(시력저하, 어깨아픔)					
9. 인터넷으로 인한 생활변화(낮과 밤이 바뀜, 늦잠)					
10. 인터넷으로 인한 행동변화(폭력적, 욕을 자주함)					
11. 인터넷 언어를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					

3.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어느 정도의 규제나 감독을 하십니까? 각 문항별로 V표해주십시오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인터넷 이용 시간					
2. 인터넷 이용 시간대					
3. 인터넷 이용 사이트					
4. 인터넷 이용 장소					
5. 인터넷을 같이 할 때의 친구들					

4.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규칙이 있습니까? 각 문항별로 V표해주십시오

문항	있다	없다
주중에는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숙제, 공부는 제외)		
시험이 끝난 후 며칠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말에는 무제한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필요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준다		
평일에는 하루 몇 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주말에는 하루 몇 시간으로 제한을 하고 있다		
기타 : ( )		

5. 귀하는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으로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 : 평일 : \_\_\_\_\_ 시간 주말 : \_\_\_\_\_ 시간  
귀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인터넷 이용시간 : 평일 : \_\_\_\_\_ 시간 주말 : \_\_\_\_\_ 시간

6. 자녀가 인터넷을 이용할 때 자녀에 대한 부모님 자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문항별로 V표해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그렇다	매우 그렇다
1.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					
2.인터넷을 잘 몰라서 그냥 둔다					
3.인터넷 이용에 대해 믿고 맡기는 편이다					
4.자율적이지만 책임을 갖도록 한다					
5.인터넷을 할 때 격려를 하는 편이다					
6.인터넷 이용에 대해 규칙을 정해준다					
7.인터넷을 이용할 때 항상 감독한다					
8.자녀들은 인터넷 이용시 부모의 허락을 받고 이용하도록 한다					
9.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편이다					

※ 부모님과과의 갈등해결방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 만일 자녀가 부모님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바꾸기를 바라십니까?  
①예(2번으로 가시오)      ②아니오(3번으로 가시오)
- 자녀가 부모님과과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어떤 부분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까?  
각 문항별로 V표 해주십시오.

	변화되기를 바람	변화되지 않기를 바람
1. 인터넷을 오랜 시간 이용		
2.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이 밤이나 새벽		
3. 인터넷 이용 사이트가 오락위주		
4. 인터넷 이용에 대한 부모님의 감독		
5. 인터넷 이용에 대한 규칙이나 벌칙이 많음		
6. 가족간의 대화시간 감소, 함께하는 활동 감소		
7. 부모님과 자신의 컴퓨터 관련 지식 차이		
8. 인터넷으로 인한 신체변화(시력저하, 어깨아픔)		
9. 인터넷으로 인한 생활변화(낮과 밤이 바뀜, 늦잠)		
10. 인터넷으로 인한 행동변화(폭력적, 욕을 자주함)		
11. 인터넷 언어를 실생활에 사용하는 것		

- 앞으로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받아보겠습니까? (      )  
①예      ②아니오
- 바람직한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교육 내용이 무엇이었던 좋겠습니까?(우선순위를 적어주세요) (      )  
①불건전물 신고방법(      )      ②부모님과과의 갈등해결방법(      )  
③인터넷 이용시(게임, 채팅) 주의사항(      )      ④인터넷 중독방지 (      )  
⑤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이상한 창이 떴을 때 대처방법(      )  
⑥바이러스 대처방법(      )      ⑦기타(기타는 자세히 기입해주세요) : (      )

※ 부모님께서 자녀에 대한 생각과 관심정도에 일치하는 곳에 V표 해주십시오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 않다
1. 사람들이 자신의 사랑이나 애정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 자녀뿐이다					
2. 부모가 못다 이룬 꿈을 자녀를 통해 성취함으로써 기쁨을 느낄 수 있다					
3. 자녀를 위한 희생은 가치 있는 일이다					
4. 자녀를 원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가 늙어서 일할 수 없을 때 자녀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자녀를 갖고 나면 자녀가 성장해서 집안일을 돕기 때문에 좋다					
6. 자녀가 성공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상승될 것이다					
7. 자녀를 갖는 것은 부부자신보다 주위사람의 의견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8. 자녀를 갖는 것은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9. 자녀를 갖는 것은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것이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감사의 글

이제 비로소 박사논문을 완성하게 되니 뿌듯하면서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작은 결실이지만 새로운 시작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시작의 시점에 서 있으니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박사과정 1기생으로 공부하면서 우왕좌왕 할 때도 있었고, 힘들었던 일들, 기뻐던 일들...

힘든 일,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어 주신 많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 논문을 마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작은 발전에도 칭찬으로 제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신 김혜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 일에 대해 기뻐해 주시고 또 안타까워 해 주셨던 일들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제나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잊지 않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자로서의 본모기를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지도해 주신 김혜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심사를 맡아 부족한 논문이 잘 다듬어질 수 있도록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진영 교수님, 김철수 교수님, 고보선 교수님, 박찬정 교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학부시절부터 많은 도움을 주신 학과의 김양순 교수님, 김혜숙 교수님, 김정숙 교수님, 김봉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경린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학원 그 시간 속에서 알게 된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언제나 제 편이신 고인숙 선생님, 명실언니, 양정선 선생님, 강인자 선생님, 서종선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배 진경이, 은주, 정은이, 은령 선생님, 말숙이, 경복이, 민혜, s.y. 모두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 외 대학원생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내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원 생활동안 언제나 곁에서 벗어 준 인혜야 고맙다. 힘들 때마다 힘이 되어준 민정 언니, 엉뚱함으로 늘 웃음을 주는 혜정이, 서울에서도 내 논문에 관심을 가져 준 경미,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윤미, 삶의 지침을 주는 향숙선생님, 그리고 ITRC센터 식구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는 동안 묵묵히 제 뒤에서 응원해준 내 가족, 언제나 열심히 하라는 응원과 함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공부하는 언니 뒷바라지 해준 효정이, 서울에서도 언제나 마음은 내 곁에 있는 은숙이, SOS할 때마다 도움 준 우리집 아들 정훈이(영준).. 너희들이 내 동생이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남편, 매일 공부하느라 뭐 하나 제대로 못해준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 논문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과 격려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